영가천도 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단일 · 합동천도 봉행 조상령 천도전문 · 낙태아 수자령 천도
무료책자신청 문의상담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9월 1일(음력7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489호

민영교도소 불교계엔 '먼산'

정부 "종교계 참여토록 설치 확대" … 조계종 "검토중"

가톨릭 · 개신교 본격 추진 단계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확대 발언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8월 23일 "개신교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설치를 확대 하겠다"고 밝혀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논의를 재촉발시켰다.

김 장관은 변호사 시절 개신교계가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 이사로 참여,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다.

1995년부터 추진된 개신교 교도소 설립사업은 2001년 아가페가 출범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가페는 현재 정계와 재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165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재정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소자와 가족들을 연결시키고 교도소 옆에 공장을 설치, 자활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종교계에 민영교도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은 교화실패와 과밀수용 문제 때문. 브라질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 1984년 천주교에 '휴마이타 교도소'를 천주교에 위탁했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도소는, 브라질 교정행형의 평균재범률이 70%를 웃도는데 비해 출소자 재범률을 4% 가까이 낮췄다. 브라질 정부로서는 종교계가 민영교도소를 운영, 재정적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재범률까지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아가페는 민영교도소를 '기독교교도소'로 부르며 성경에 기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신앙훈련 등)이 운영된다고 소개하고 있어, 개신교 선교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신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지난해부터 50명 규모의 민영 소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는 현재 교구차원에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교회의 등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한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을 계기로 민영교도소와 관련한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재정확충방안"이라며 "개신교측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경우 설립에만 300억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작성한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시설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로 규정, 정부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는 많은 토지를 소유, 더 좋은 설립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특수교도소 및 소규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교 분리 및 종교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설립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립되면 많은 경험을 축적한 교정인 불자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경내지 인근개발 '심의후' 가능

전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경내지 주변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등이 부적합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등에 비춰 부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시 · 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의 역사 · 문화적 가치와 풍치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전통사찰 및 주변 환경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전통사찰 지정 및 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보호,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주요 개발계획, 보수정비예산 지원신청 대상 전통사찰 선정 등을 관장한다.

전통사찰로 등록할 때 시 · 도지사는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도면으로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지율 스님 단식 끝내

정부, 공사중단 약속

청와대가 지율 스님에게 사과하고 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의 잠정중단을 약속하면서 58일 동안 이어진 스님의 단식정진은 8월 26일로 끝을 맺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이 8월 25일 지율 스님을 사과방문 한데 이어, 불교계와 불교계, 환경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26일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13-3, 13-4공구) 공사를 항소심 판결까지 중지하고 지율 스님도 단식을 중단한다' '재판결과에 승복한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율 스님도 26일 오후 제3차 단식을 회향했다.

불교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부터 관통구간 현지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을 꾸리게 되며 그 결과는 부산 고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혜초 종정 추대 법회

9월 6일 봉원사서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대종사 추대법회가 9월 6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영산재보존회 어산스님들의 집전으로 종조 태고보우국사와 역대 종정, 선조사 스님들에게 종정 취임을 고하는 다례의식이 불교 전통의례로 봉행된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 · 獨 로쉬사원

자 매 결 연

합천 해인사와 독일 로쉬(Lorsch) 수도원이 9월 4일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번 결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가 지난 2002년 세계유산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권고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갖는 결연식이다. 결연식을 계기로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과 로쉬 성서 비교 연구 △해인사 장경각과 로쉬 왕의 성당 비교에 대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10월 6~11일), 고려팔만대장경 동판본 전시 △한 · 독 학생문화교류 사업 및 박물관 실습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연식에는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쉐퍼 로쉬 수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별세

8월 27일 '동국대葬'



前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과 동국대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무애(無碍) 서돈각(徐燉珏) 박사가 8월 24일 저녁 경희대의료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5세. 관련기사 3면

영결식은 27일 동국대 불상앞에서 '동국대장'으로 열렸으며, 유해는 다비절차를 마치고 통도사 서울포교당인 구룡사에서 49재를 지낸 뒤 전북 부안 가족 납골묘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삼보일배로 역사왜곡 항의

현직 교사 100여명은 8월2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며 탑골공원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민족의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왜곡도 막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보일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그림 · 조태호

정락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동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륜 행실도, 신이담,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륜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립(申砬)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라 하여 꺼린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룽먼(龍門)의 거센 물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폭한 잉어는 용으로 회신하여 등천한다는 전설에서 곳이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나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신도증 수계증 남발하지 말자

1994년 개혁이후 조계종은 그 조직과 사업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했다. 그중 하나가 신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포교원의 설립이다.

포교원에서는 출범초기부터 중요 사업과제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신도증을 제작 배포해 오고 있다.

포교원은 조계종 최초로 통일된 신도증을 조직적인 신도관리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신도교육의 중요한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홍보포스터에는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여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으나, 관람료 사찰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까닭에 일종의 '무료입장권'으로 신도가 아닌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불교계 기관들(불교방송, 동국대 등 종립기관)은 입사지원 서류로 수계증 또는 신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불자들이 단순히 불교계에 취직하기 위해 사찰이나 단체에서 정식절차 없이 신도증이나 수계증 등을 임의로 발급받아 인사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무료입장권·취업용 인식 곤란
입교과정·관리 체계확립 시급

문제는 이들이 과연 불교를 제대로 알고, 불교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불교에 발을 들여 놓는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초심' 또는 '초발심'이라고 하여 '첫 마음'을 소중히 하는 것이 불교의 전통이다.

실제로 불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불교적 소양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교리의 이해와 경험뿐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초심을 갖출 수 있는 3귀의 5계 수지를 통한 신도의 입교과정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계종은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위해 '기본-전문-심화' 과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실제로 조계종이 통일하여 보급하는 '3귀의 5계 수계의식문'과 '수계증' 및 '입교안내서' 조차 없는 형편이다.

조계종 신도법 11조(기본교육) 3항에서는 각 신도단체의 임원, 각급 종무기관 및 종단산하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취임 후 1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법은 신도로서 입교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종단의 소임을 볼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신도증, 수계증의 남발은 양식의 부족도 문제이나 근본적으로 '입교'과정과 내용의 부실도 적지 않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찰별로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교의 입교과정이 신도증, 수계증의 남발을 방치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단적으로 통일된 입교에 대한 교육내용과 과정을 정립하고, 관리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 주경(조계종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총 사찰의 64%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 의미

창건주 권리보장·공개념 분명히

절반이 미등기·미보고…매매·무상양도등 불가능하게

조계종 사찰의 64%를 차지하는 사설사암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은 8월 23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7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설사암 창건주가 본 종단의 승려일 경우 주지로서 사찰을 관리할 권한을 갖으며, 주지로 취임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는 주지추천권을 갖는다.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승려가 아닐 경우에는 본 종단에 대한 주지추천권을 갖는다"고 명시, 창건주의 권리를 보장했다.

또 "창건주가 2인 이상일 경우 등록시 창건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과 그 행사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며 2인 이상 공동출연한 사설사암 소유권 분쟁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창건주의 권리를 종령에서 정하는 종단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승계되고, 상속되지 아니한다. 창건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사찰의 창건주가 사망한 사찰은 공찰로 귀속해 관리토록 한다"고 규정, 사설사암에 대한 사찰 공개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창건주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할 수 없고 그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 사설사암 매매 뿐만 아니라 무상양도 또한 불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제5장 징계 조항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켰다.

한편 회의에서 사설사암 교구 선정 문제와 법 시행 후 기존 사설사암 재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으로 남겨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사설사암 특위 전체회의와 중앙종회를 거쳐야 입법된다.

위원장 효림 스님은 "사설사암 사자상승 부분이나 창건주 권한, 사설사암 소유 등 개정안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 중앙종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사암 무엇이 문제인가?

조계종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설사암 수는 총 1519곳(2003년 11월). 이 중 완전등기 309곳, 부분등기 572곳을 제외하면 사설사암 절반 정도가 완전미등기 또는 미보고 상태다.

완전미등기는 사찰 소유 토지와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고, 미보고는 재산 현황 자체가 보고 되지 않은 경우다. 특히 종단 유관 각종 위원회 소임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과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도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사암들은 직할교구 사설사암 분담금 납부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2003년 분담금 배정을 기준으로 배정률 24%, 납부율 65%로 분담금 배정비율이 낮고 납부율은 공찰 92.8%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사설사암 예산규모에 따라 분담금 배정율을 높이고,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강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설사암 관리 안 되는 이유와 대책은?

조계종 스님 및 신도가 사설사암을 설립할 경우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종단에 사찰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종단에 대한 신뢰성 부재와 과거 사찰 운영권을 전횡했던 정서로 인해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설사암 관리시스템이 총무부와 재무부, 호법부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설사암을 관리하는 인력이 총무부 담당자 1명뿐인 것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특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는 변화된 조건에 맞는 사찰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 기본법령 정비와 함께 종단등록 사찰관리 기본법령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남동우 기자

고교종교교육 편향 '심각'

기독교계 절반이상 선택 지침어겨

교육청 자료서 드러나

서울지역 고교 10곳 가운데 2곳이 기독교계 학교이고 이들 대다수는 종교과목 복수 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정규 교과시간외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등 학생개인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한 '2004학년도 고교 종교과목 및 종교활동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고교 289개교 가운데 59개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며, 불교와 천주교가 각 3곳이었다.

종교편향적 운영으로 문제가 된 기독교 재단 59개 학교 가운데 종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하고 있는 학교는 52개 학교였으며, 교육학, 철학, 논리학, 종교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종교(기독교)한 과목만을 가르치고 있는 곳도 25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3개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급별 예배, 신앙수련회, 정규시간외 예배 등 각종 종교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조용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난 7월 15일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난데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현 병역법 88조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교계 오태양(정토회 활동가 · 29) 씨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하고 있는 300여명에 대한 판결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판단은 사실상 종결됐다.

조용수 기자



법장 스님이 정동채 문광부 장관에게 문화재 보수 권한을 기능공에게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재보수 권한 기능공에게도…"

법장스님 지적, 정동채장관 "검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8월 24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의 시험을 통해 등록된 기능공에게도 문화재 보수 권한을 줘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이에대해 "기술자는 문화재 보수 이론에 능한 사람일 뿐 기술이 부족해 실질적 보수는 기능공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동채 장관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장 스님은 23일 이보경 신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무실을 종무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종법개정 '의견일치'

조계종호법분과위원회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가 중앙종회의원 징계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종헌개정 무기명비밀투표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호법분과위는 8월 19~20일까지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호법분과위 소관 종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종단의 사법기관은 호계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헌 제38조 제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종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중앙종회법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론 내렸다. 남동우 기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대학장 활안 (한정섭) · 대학원장 호암 (김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4년 8월 31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천성산' 어떻게 되나

지율 스님은 지난 6월 30일 제3차 단식정진을 시작했다. 고속철도 공단이 천성산 구간 공사를 강행하려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천성산의 모든 생명을 구하려는 스님의 외침은 단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서히 알려졌고, 마침내 단식 58일째인 8월 27일 스님의 생명이 경각이 이르면서 '법원 판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율 스님이 그동안 벌여온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얻은 성과와 과제 등을 종합해 본다.

재판 판결까지 공사중단 · 전문가 재검토

▮단식 배경 및 진행과정

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원효터널, 총 13.5㎞) 건설을 놓고 벌어진 '천성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속철도 공단은 부산-대구간 고속철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부산 · 경남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속철도 공단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터널 공사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02년 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율 스님은 처음 문제제기를 했다. 그리고 고속철도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당시 '산감' 소임을 맡고 있던 지율 스님은 "수달, 팔색조 등 천연기념물 11종과 환경부 보호야생동물 19종, 특별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제치 늪 등 22개의 늪을 보유한 천성산이 환경영향평가 최하등급인 8~9등급으로 분류돼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스님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고속철 천성산 통과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에는 노선검토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천성산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노선검토협의회의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다. '천성산 문제'의 당사자인 지율 스님의 의견은 철저히 협의회에서 배제됐으며, 노선검토협의회는 1달 만에 현행 노선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3년 3월 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38일간의 단식정진을 벌인 지율 스님은 이해 8월경부터 다시 45일간의 제2차 단식, 40일간의 1천배 정진, 부산역부터 천성산 정상까지의 삼보일배 정진을 했다. 2004년 초 지율 스님은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도롱뇽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심리 중에 있다.

▮무엇을 얻었나?

이번 단식 정진의 직접적 성과는 청와대 · 건설회사와의 공사중단 약속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들과 불교계, 시민 · 환경단체들은 재판 판결에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고법 판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지율 스님은 단식을 회향키로 8월 26일 합의했다.

이로서 불교계는 천성산 관통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한 재검토와 도롱뇽 소송 승리를 위한 100만인 서명인단을 모을 여유 시간을 얻었다. 노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약속 위반에 대한 사과를 받은 것도 성과중 하나다.

그러나 지율 스님의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재조사 작업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6개월 동안의 공사중단'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과제와 전망

이제 남은 것은 도롱뇽 소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하며 소송 승리를 위해 100만인 서명인단을 모아야 한다. 전문가 검토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100만인 서명인단 모집은 천성산 문제와 관련한 여론의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재판이 앞당겨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는다면 다시 한번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환경단체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문제다. 노선검토협의회 활동을 거치면서 환경단체 상호간의 골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내야만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생명살림의 가치관과 대안을 발견해 낼 필요도 있다. '천성산 문제'가 초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눈에 맹목적인 반대로 비쳤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환경 파괴가 국민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거대 국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 생명사상'의 논리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천성산은?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해발 922m)은 특별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제치늪을 비롯해 밀밭늪 화엄늪 등 22개의 습지가 흩어져있는 한국 최대의 습지 지대다. 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는 4㎞의 내원사 계곡 등 아름다운 절경을 가지고 있다. 원효 스님이 화엄벌에서 1천여 중국 스님들에게 법을 베풀어 득도하게 했다 해서 '천성산(千聖山)'이라고 불린다. 2002년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원효터널' 공사를 시작하면서 '천성산 문제'는 시작됐다.

강유신 기자

"끝까지 '희망' 버리지 않겠다"

인터뷰

지율 스님

▲합의내용에 만족하나?

—옳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천성산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가 국회에도 상정됐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개정의사를 밝혔다. 합의 결과가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제 우리들의 몫이 많이 남은 셈이다.

▲단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50일이 넘어서도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좌절감을 많이 느꼈다. 정부가 민의에 귀 기울일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들은 이전에 실시된 환영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환경부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의 차를 줄이는 부분이 어려웠다.

▲단식 중 환경운동연합과 조계종에 서운함을 비치기도 했는데?

—천성산 문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조계종 총무원은 자정의 계기가 됐으리라고 본다.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눈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경우 지질 분야 등에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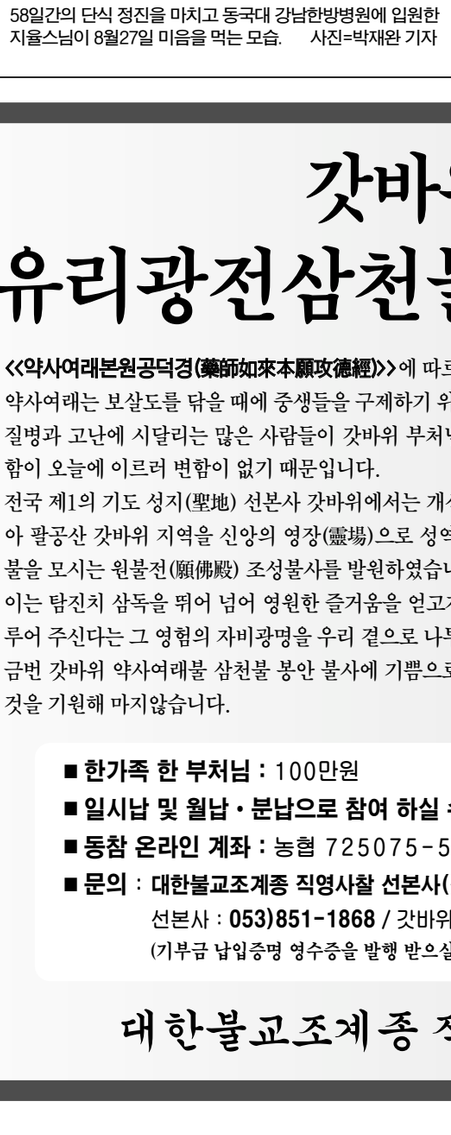
▲방법이 극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수행자가 중도를 걷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내 감정에 솔직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운동하면서 선악의 관점에서 운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달은 도롱뇽 소송 100만인 서명운동에 뛰어들고, 다른 한달은 생명연대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며, 나머지 한달은 생태학습 등을 통해 천성산 생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싶다. 특히 새만금 문제 등 생명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대해 영상과 인터넷을 통한 '생명공명'을 하고 싶다.

남동우 기자



58일간의 단식 정진을 마치고 동국대 강남한방병원에 입원한 지율스님이 8월27일 미음을 먹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24일 타계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행장

평생 재가불교운동 헌신



서돈각 이사장 영결식이 8월 27일 동국대 불상앞에서 동국대장으로 거행됐다.

서돈각(徐燉珏)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평생을 불교 포교에 전념해왔다. 서 이사장은 1929년 10세때 신문에 난 관세음보살상을 보고 그때부터 성냥갑에 모신뒤 매일 108배를 드리기 시작해 타계하는 날까지 수행을 계속했다. 평소 자택에 불단을 모셔놓고 매일 새벽과 저녁 예불을 올릴 만큼 신심이 깊었으며, 금강경 독송을 평소 수행으로 삼았다.

1920년 11월 3일 대구에서 출생한 서 이사장은 일본 경도제국대학 법학부, 경성대학(서울대학) 법문학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Southern Methodist대학에서 법학석사, 경희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50년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故 황산덕 박사와 함께 법불회를 결성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 대불련 지도위원장과 고문 등을 맡으며 대학생 불자육성에 큰 자취를 남겼다.

60년대 탄허 스님, 해안 스님,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특히 69년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다"며 서울 성북동 보문사에 해안 스님을 모시고, 재가불자 참선도량을 열기도 했다.

1972년부터 74년까지 동국대 총장, 79년부터 81년까지 경북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 행정가로 모범적인 운영을 했다.

92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해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와 불교방송 이사로서 학교 및 언론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95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급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불교재가회의 상임의장을 맡아, 도덕 환경 통일등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재가 결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 이사장은 88년부터 92년까지 학술원 회장을 역임하는등 학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서 이사장은 법학을 비롯 한국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 법률문화상, 보험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을 수상했다. 선불교 해설서인 <선학의 황금시대>를 비롯 전공인 상법 분야에서는 '신고상법 上.下' '상법요론' '신(新)주식회사법의 기본문제'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김원우 기자

▮진흥원 이사장 어떻게 뽑나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로 한국불교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하고 있는 불교진흥원의 이사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에 따르면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며, 빠른 시일내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연장자인 홍승희 이사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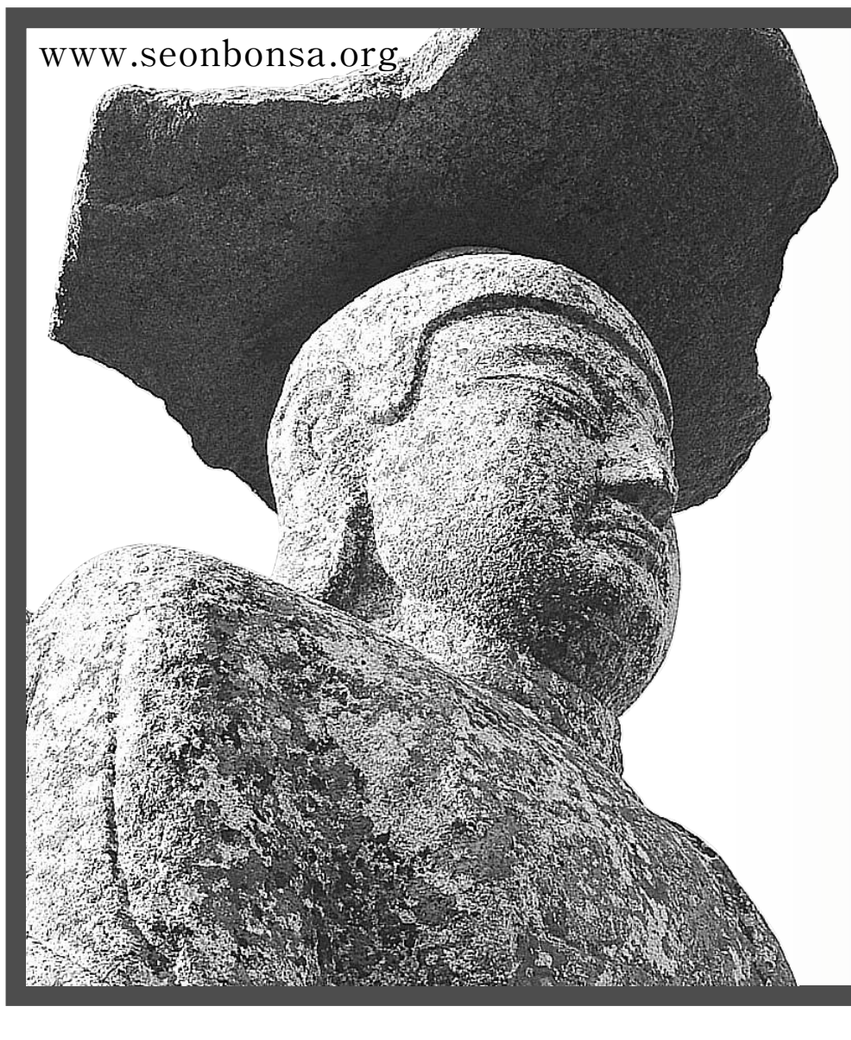
홍승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를 소집해 새 이사장을 뽑는 수순을 밟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새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호선 형식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사장 임기는 4년이다.

현재 진흥원 이사는 홍승희, 배명인, 김표진, 송석구, 장상건, 명호근씨등 6명이다.

진흥원 한 관계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ww.seonbonsa.org



갓바위(禪本寺)
유리광전삼천불 봉안 불사 모연문

<<약사여래본원공덕경(藥師如來本願攻德經)>>에 따르면
약사여래는 보살도를 닦을 때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열두 가지의 거룩한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 부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갓바위 부처님이 약사여래로서 이같은 영험함과 신비함이 오늘에 이르러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제1의 기도 성지(聖地) 선본사 갓바위에서는 개산(開山)1400여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옛부터 내려온 선풍을 본받아 팔공산 갓바위 지역을 신앙의 영장(靈場)으로 성역화(聖域化)할 것을 천명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갓바위 유리광전에 삼천불을 모시는 원불전(願佛殿) 조성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이는 탐진치 삼독을 뛰어 넘어 영원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중생을 위함일진대 지극한 염원으로 기원하면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그 영험의 자비광명을 우리 곁으로 나투시게끔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금번 갓바위 약사여래불 삼천불 봉안 불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고 무애자재한 삶을 자손만대에 계승할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 **한가족 한 부처님 :** 100만원
■ **일시납 및 월납 · 분납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참 온라인 계좌 :** 농협 725075-51-02059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갓바위)**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번지
선본사 : **053)851-1868** / 갓바위 : **053)851-1869** / 팩 스 : **053)853-7537**
(기부금 납입증명 영수증을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불기 2548년 갑신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8월 30일(음력 7월 15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전국선원수좌회는 〈갑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을 통해 올해 하안거에는 전국 91개 선원, 총 2,186명의 대중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구선원 해인총림선원 등 57곳과 비구니선원 견성암선원 등 34곳에서 1,871명의 수좌와 외호대중 315명이 무더위 속에서 구도를 위한 용맹정진을 마쳤다.

전국 총림 해제법어(요약)…전문은 buddhanews.com

하안거 해제에 맞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석 달간 수행에 매진한 수좌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방장 스님들은 수좌들을 향해 "정진 또 정진하여 견성오도한 후 중생을 위하여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총림과 영축총림은 해제 당일에 법어를 내리기로 해 지면에 싣지 못했다. (8월 27일 현재)

한 총림서 나와 다른 총림으로 들어갔는데…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출일총림입일총림(出一叢林入一叢林)
삼봉수급 오로운심(三峰水急五路雲深)
산등방과무타의(山藤放過無他意)
향도진유불환금(向道眞鍮不換金)

한총림에서 나와서 다른 총림으로 들어갔는데
삼봉에는 물이 급하고 오로봉에는 구름이 깊도다.
등나무 몽둥이로 때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놋쇠와 순금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였네.

경청(鏡淸) 선사께서 어떤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즈음 어디에서 왔는가?"
"삼봉(三峰)에서 떠나 왔습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름은 어디에서 지냈는가?"
"오봉(五峰)에서 지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서른 방망이를 때리리라."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한 총림에서 나와서 다른 한 총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니라." (중략)

경청(鏡淸) 선사께서 행각을 하는 어떤 납자에게 온 곳을 물으니 삼봉(三峰)과 오봉(五峰)이라고 대답하니 삼십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러자 그 납자는 억울하다고 여겼던지 무엇이 잘못이냐고 따지니 한 총림에서 나와서 다른 한 총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산승이 해제대중들에게 묻겠습니다.
경청선사의 법문낙처(法門落處)를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면 행각을 하면서 늘 참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종견저(海枯終見底)니와
인사부지심(人死不知心)이로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보거니와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푸른 파도 우레로 변해 용을 보내네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옛 스님이 이르기를 "일갈(一喝)에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마르니 전체가 활짝 벗어나 규모(規模)가 없다. 진흙소가 구름 밖으로 뛰어 오르니 아름다운 소문이 거리마다 가득하다" 했는데 대중들은 이 소식을 알겠는가!

(주장일타)

일갈(一喝)은 봄날의 우레 같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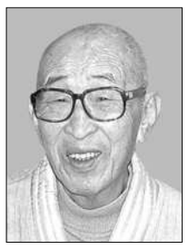
무사노옹갈일성(無事老翁喝一聲)
건곤요탕대풍생(乾坤搖湯大風生)
천변백운은산곡(天辺白雲隱山谷)
창파화뢰송유룡(滄波化雷送遊龍)

일 없는 노옹(老翁)의 한 소리 할에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큰 바람이네
하늘 끝 흰 구름은 산 계곡에 숨고
푸른 파도는 우레로 변하여 용을 보내네

눈 똑바로 뜨고 참사람 봐야 하느니라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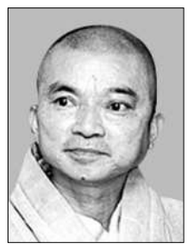
삼불형의총불진(三佛形儀總不眞)
안중동자면전인(眼中童子面前人)
약능신득가중보(若能信得家中寶)
제조산화일양춘(啼鳥山花一樣春)

부처님이 삼십이종상 팔십종호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이 모두 참이 아니나니,
눈 똑바로 뜨고 참사람을 바로 보아야 하나니라.
만약 능히 집안의 보배를 믿어 얻으면,
새 소리와 산에 피는 꽃이 한 가지로 이 봄소식이로다.

봄 가을 겨울 여름 어느때든 항상 좋아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아금장하위령인(我今將何爲令人)
춘추동하호시절(春秋冬夏好時節)
열향계변한향화(熱向溪邊寒向火)
한절백운야반결(閑截白雲夜半結)

내 이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거나
봄 · 가을 · 겨울 · 여름 어느 때든지 항상 좋아
더우면 물가에 가고 추우면 불을 쬐며
한가하면 흰 구름과 같이하고 밤이면 참선하네.

(중략)출가사문이 가진 것이라곤 수행하여 견성오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30일 하안거 해제 … 선방 풍경

장삼 · 좌복 · 발우 등 살림 깨끗이 손질

마지막날 포살 · 自恣 통해 대중 앞에서 참회

바람결에 어깨춤을 추고 있는 장삼자락 사이로 선방 앞 공터에는 빨래를 널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비친다. 한쪽에서는 깨끗이 씻어말린 발우를 거두는 손길이 바쁘다. 석 달간의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며칠 앞둔 선방들은 해제에 앞서 옷과 발우 등 그동안 사용했던 살림을 깨끗이 손질하는 스님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방 스님들은 해제 3~4일전쯤 죽비를 내려놓고 자신이 입던 장삼, 깔고 앉았던 좌복 등을 꺼내 세탁하기 시작한다. 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왔던 해제의 식으로, 다음 철 정진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의식이다.

안거는 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4월 보름~7월 보름까지 일년에 두 차례 스님들이 선방에 머물러 수행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안거 해제는 8월 30일. 원래 안거는 부처님 당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출가 수행자들이 우기(雨期)인 여름철에 폭풍우를 만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초목과 벌레들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 시기에는 아예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던 관습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들어와 안거는 산중과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일컫는다.

석 달간의 안거생활을 마친 스님들의 느낌은 어떨까?

대부분의 스님들은 산문을 나서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안거 기간동안 큰 도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 또 하나는 다시 속세로 돌아간다는 설레임이다. 어떤 스님들은 그런 감정이 안거의 횟수와 상관없이 거듭되는 것 같다며 쑥스러워 하기도 한다. 사실 해제를 보름정도 앞두고 부터는 마음이 다소 산란해진다고 한다. 빨리 산문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번뇌로 찾아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를 다그치고 수행에 정진하는 게 선방의 스님들이다. 일부 스님들은 해제와 함께 또 다시 산(散)철 결제에 들어가기도 한다. 막상 수행의 참맛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을 때 해제를 하기가 곤란한 스님들은 그대로 선방에 남아 안거를 계속한다. 이러한 스님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년 까지 안거를 지속한다.

안거 마지막 날은 자자(自恣)를 통해 안거 중에 한 행동들을 대중 앞에 참회하고 잘못을 지적받는다. 요즘은 포살과 자자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것에서 스스로 참회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를 마친 스님들은 선방에서 친하게 지낸 도반들과 삼삼오오 모여 다담(茶談)을 나누기도 한다. 이때 오가는 얘기는 주로 앞으로 자신의 수행 향로에 관한 것일 경우가 많다.

해제날이 밝으면 결제를 지낸 스님들은 머물던 요사를 정리하고 안거증을 받는다. 이어 큰 법당에 앉아 조실스님 등 큰 스님의 법문을 듣은 후 약간의 해제비와 발우, 장삼, 실바늘 등 6물을 담은 걸망을 짊어진 채 산문을 나선다. 수행자에게 수행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은 쉼이 없기 때문이다.



해제를 며칠 앞둔 선방의 수좌들은 다음철 정진을 위해 석달간 자신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한다. 문경 봉암사 수좌들이 자신의 옷을 깨끗이 빨아 널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금주의 발원

[새벽쇳송-4]
이제부터 이몸으로 부처몸이 되기까지
금한계율 굳게지녀 훼범하지 않으리다
바라오니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
몸과목숨 부숴져도 물러서지 않으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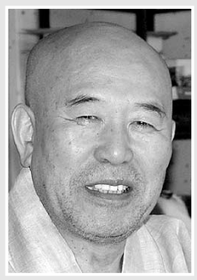
세존께서 수행자로 설산중에 들어가사
자리잡고 앉으시매 육년세월 모르셨네
하루아침 샛별보고 무상대도 깨치시니
어느새에 그애기가 삼천계에 두루했네

고요하게 남대앉아 향한자루 사르고서
종일토록 우두커니 온갖생각 놓고보니
마음쉬고 망상또한 없앨것도 없거니와
굳이애써 세상사를 헤아릴게 또한없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올바른 간화선 수행법 제시하는 계기"

동화사, 담선대법회 4일부터 12회 개최



인터뷰 주지 지성 스님

무차법회·담선법회·논강 방식 수용

고우·무여·호진 스님 등 대종장 한자리

"담선대법회는 80년대 초 은해사 주지로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젊은시절 제방선방을 다니며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수좌들과 토론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수행과정에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지대방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혼자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2시)마다 12차례에 걸쳐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대작불사 '담선대법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담선 대법회 개최 취지를 묻자 이렇게 20년 전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구 동화사로 출가한 지성 스님은 동화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2002년 백고좌 법회와 2003년 화엄논강을 개최했다. 그동안 수행정진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 출가 본사에서 회향하겠다는 원력 때문이었다.

스님은 담선법회의 준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리의 선에는 '사교입선'이라는 주장도 있고, '불입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주장도 있지요."

선의 이런 특성으로 처음 '선논강'을 준비했던 스님은 '선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딪힘에 봉착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고려시대 불일보조 지눌국사가 참여했다는 담선대법회다.

담선대법회는 형식에 있어 무차법회와 담선법회, 논강의 맥을 계승한 것이다. 논주와 논사가 발제와 논평을 맡는 점에서는 논강의 형식을,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종안을 드러내는 지혜계발의 장이라는 점에서는 담선법회의 모양을, 누구나 진리의 법연에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차법회의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

스님은 "수십년 선 수행만을 해온 스님들은 혜는 밝으나 논에 약하고 또 교학만을 공부한 학자는 선을 모르기에 때문에 논주와 논사, 사회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고심 끝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화선 종장 고우, 무여, 정광, 지환 스님과 선학에 권위있는 성본, 월암 스님 근본불교에 전문 식견을 겸비한 호진 스님 등을 논주로, 제방에서 간화선을 실참하고 있는 선방스님들을 비롯한 선과 교의 대종장들을 논사로 모셨다.

스님은 "담선대법회를 통해 간화선이 정말 최고의 수행법으로 마땅한지, 21세기 미래를 위한 대안사상으로 적합한지를 밝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화선 수행체계를 드러내 올바른 간화선 수행법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053)982-0101

대구=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지역민의 푸근한 쉼터로 …"

대구 보현사 문화관 개관



대구지역의 불교전문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보현문화관의 개관식 모습.

1만 3천여권 도서 보유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 반월당에 위치한 보현사(주지 원일)가 보현문화관을 개관하면서 시민들 속으로 다가서고 있다.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가 최근 사찰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신도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대구시 제일 포교당으로의 쇄신을 다짐하며 보현문화관을 개원했다. 개관식은 8월 24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보현 문화관은 방치되었던 보현사 내의 50평 지하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시는 탕비실과 어린이 학생들의 시청각 법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보현문화관 최고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불교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보현사는 문화관 중앙에 부처님을 모셔두고, 벽면을 따라 원시불교부터 선, 어록, 불교사, 계율학, 비교종교학, 어린이 불서 등 1만 3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보현문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다음달 초부터는 다도와 가야금, 사경교실 등 주1회의 다양한 교양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053)431-5400

배지선 기자

경내에 오작교 놓고 공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공연.

부산 삼광사 칠석예술제 개최

불교·대중 만남의 장 펼쳐

8월 22일, 삼광사(주지 도원)에서는 칠석명절을 기념하는 감동적인 칠석예술제가 열렸다.

이날 삼광사의 칠석예술제는 일년에 한번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의 만남처럼 가족과 가족이 하나되고, 신도와 신도, 지역과 나라가 하나로 만나길 기원하는 뜻 깊은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칠석예술제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비가 내렸지만 참여 대중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비속에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오늘의 이 법연을 계기로 가족 사랑의 메세지가 우리 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피어올라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부산이 되고 나아가 APEC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범종 타종, 법고, 한국무용 헌화무, 헌등에 이어 운덕 총무원장의 법어가 이어졌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가의 명절인 칠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칠석예술제가 불교와 문화가 만나고 불교와 대중이 만나는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칠석제는 대웅전과 대웅전 앞 마당을 이어 설치된 오작교를 통해 삼광사 꽃꽂이회의 헌화, 삼광차문화연구회의 헌다가 펼쳐졌으며 한국무용, 테너 김화정씨의 청산은 나를 보고 독창, 현악 4중주, 트럼펫 색소폰 합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모국을 선물하러 왔어요"



프랑스 한국입양아들이 부산 범어사에 모여 연꽃 만들기를 통한 모국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佛 한국입양아, 템플스테이 범어사서 전통문화체험

"아이들이 태어난 이곳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시켜 주고 싶어 범어사에 왔습니다."

8월 21~22일 프랑스인 피에르 씨는 자신이 입양한 한국 아이들을 위해 범어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이날 범어사 휴휴정사엔 피에르 씨의 두 딸 마리와 샤로뜨을 비롯 프랑스로 입양됐던 한국 입양아들과 프랑스 부모, 인솔자 등 50명이 찾아왔다. 참가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지만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보기 위해 범어사를 찾은 것이다.

처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기, 법복 입기 등에 난색을 보였던 이들은 이내 법복으로 갈아 입고 진지하게 템플스테이에 임했다. 연꽃 만들기, 탑돌이, 참선, 발우공양, 불무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툰 솜씨지만 종이컵에 연잎을 붙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완성된 컵 등에 촛불을 켜고 어두워진 도량의 탑을 돌며 이들은 무엇을 소원했을까?

"아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국을 선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모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낳아주신 부모님도 만나서 많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의 극진한 사랑 때문일까? 컵등을 든 아이들의 표정은 불빛보다 밝아 보였다.

이들은 인솔했던 윤숙희 목사는 "입양아들이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임원 및 이사진 통합 개편

부산불교신도회·불심홍법원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은 8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을 법인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류진수 현 이사장은 이사로 선임됐다.

불심홍법원은 류진수 이사장 체제는 인수팀 성격의 것으로 공병수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는 것이 수순이라고 판단,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됐으며 8월 21일, 22일 열린 신도회 수련회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신도회에 기탁한 30억원의 관리를 둘러싸고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와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류진수)로 양분화 될 조짐을 보이던 부산불교신도회가 통합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한편 불심홍법원은 8월 19일 열린 부산불교신도회 운영이사회에서 신도회 회장단을 재단법인 임원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천미희 기자

'참 좋은 유치원' 기공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8월 23일 대구시 남구 봉덕3동 사찰 옆 공터에서 회주 우학스님과 이신학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



좋은 유치원' 불사 기공식(사진)을 거행하고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다.

영남불교대학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2천240평의 지역 최대규모의 유치원을 지어 2006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민족정신 다시 일깨우자'

인각사 일연성사 다례재

일연성사 열반 715주기 추모 다례재가 8월 23일 삼국유사 집필지인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거행됐다.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박영언 군위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청백 다례원 불자들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일연성사 연보소개, 봉행사, 성탄사,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다.

법타 스님은 성탄사를 통해 "일연성사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크게 일깨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연수 교육

대한불교대승종은 2004년도 정기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전 종도는 무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548년 9월 18일 ~ 9월 20일
- **입 재 :** 2548년 9월 18일 오후 3시 (단, 당일 오후 2시까지 등록 완료 바람)
- **대 상 :** 대한불교대승종 전 종도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 **장 소 :** 다보수련원(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 대승종 교육원(02-2279-9035)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02-2678-2447) 각 지역 종무원

2548년 8월 25일

대한불교 대승종 교육원장 도일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불교교양대학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서 금강석과 같이 견고한 반야지혜의 보검으로 모든 허상과 집착을 타파(打破)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성취하도록 이끌어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흥국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강경을 강의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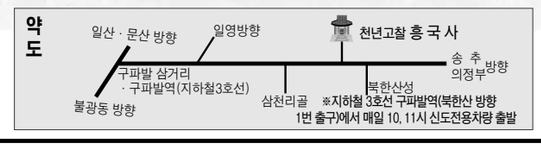
- ▶개강일시 : 2004년 9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강의기간 : 2004년 9월 7일(화) ~ 11월 30일(화) 3개월 과정
- ▶강 사 : 흥국사 주지 (대오)
- ▶수 강 료 : 3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및 접수 : 02-381-7970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 국 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 http://www.heungguksa.or.kr

주말 템플스테이 안내

흥국사는 수도권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서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주말 템플스테이를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홈페이지 참조)



자비와 지혜로 한·일 불교종립학교 자매결연

미래불자의 꿈 펼치길

한국과 일본의 불교종립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사와 학생들을 교류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천운)은 8월 24일 광주 정광고 이사장실에서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에 소재한 오야마다이(尾山台) 고등학교와 '한 · 일 학교 교류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광학원 이사장 천운 스님, 김영희(정광고), 정인영(정광중) 교장 등 정광학원 관계자와 일본에서 온 니시다니 타가시(西谷 隆) 교장 등 오야마다이 고등학교 교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와 일본 오야마다이 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사와 학생들을 교류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고교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국제감각을 익히며 △수업지도에 필요한 자료교환을 하기로 조인문을 체결했다.

또한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대학교 홈페이지를 연결해 학생들끼리 이메일을 교류하고, 방학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직접방문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합의했다.

조인식에 앞서 천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한 · 일 양국의 불교종립학교가 교류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며 "종립학교 설립 이념에 따라 부처님 자비정신이 전 세계에 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타가시 교장도 "같은 불교 종립학교로써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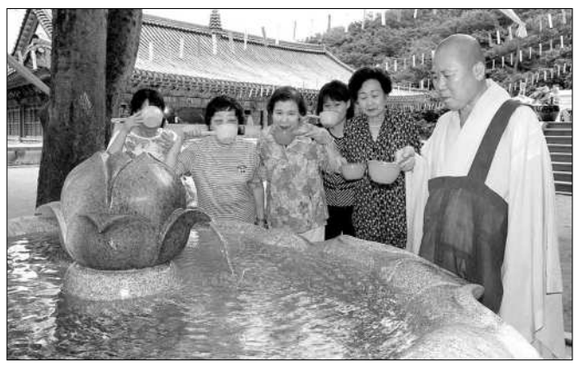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정광학원을 대표해 김영희 교장이 오야마다이 학교에 '부모은중경 병풍'을 기증했다.

한편 이번에 정광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오야마다이 고등학교는 1922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념으로 혼간지(本願寺)에서 설립한 불교 종립학교이다. 전교생은 매일 아침 강당에 모여 기도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남녀 고교생 850여명이 재학중이다.

학교법인 정광학원도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이 호남지역 5개본사로 부터 지원받아 설립하였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남녀 중고생 19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삼각산에 사자후 '쩌렁 쩌렁'


주지 혜자 스님이 도선사 신도들과 함께 최근 완공한 연꽃수곽을 둘러보고 있다.

도선사 고승초청 대법회 윤장대·반야굴·수곽 완공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는 9월 8일 7관세음 33일기도 입재에 맞추어 큰스님 14명을 한자리에 초대하는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를 10월 11일까지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 초대되는 14명 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경국사 회주 인환 스님,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문수사 조실 혜정 스님,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해동선원 조실 성수 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 14분이다.

이와 관련 혜자 스님은 "도선사가 제2의 도약을 한다는 복안 아래 각종 불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신도들의 신행활동 정립과 신앙심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어 이번 법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도량 재정비 불사를 추진해온 도선사는 8월 16일 반야굴 준공 및 봉안 법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 명부전 앞 연꽃수곽, 30일 윤장대 조성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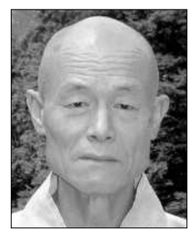
반야굴은 십일면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준공법회에는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다. 연꽃수곽은 도선사 신도들에게 식수 및 공양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북한산 노적사

다이나믹한 문화도량



"문화포교는 사찰이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북한산 노적봉 아래 위치한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사진)은 평소 힘쓰고 있는 문화포교의 의의를 이렇게 말했다.

문화포교를 서원으로 세운 스님과 그 뜻을 함께 하는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창단, 성지순례,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불교교양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적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30여 년 전만 해도 노적사는 찾는 이 없는, 방치되다시피 한 절이었다. 종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1977년 이후 신도들과 함께 뜻을 모으며 절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갔다. 대웅전을 재건립하고 나한전을 신축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여래불도 봉안했다, 최근에는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등 북한산의 대표적인 가람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 위주의 효율적 수업방식 큰 인기 청림정각회·지장회 등 신도회 특색화

노적사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문화포교활동의 요체는 2001년에 개설된 불교교양대학이다. 불교교양대학은 수준에 따라 초급반(기초교리 강좌)과 중급반(아함경 강의)으로 나누어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매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수요일에만 한다.

스님은 수강생들이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재도 직접 만들었다. 수강생들이 예습을 충분히 해와서 강의 시간에는 묻고, 답하고, 토론이 위주가 된다. 그래서 수업이 효율적이고, 학습효과가 커 신도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노적사의 또 다른 특징은 신도회의 활동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평신도회' '청림정각회(거사들의 모임)' '지장회(지장재일법회 모임)' '관음회(관음제일법회 모임)' 등으로 제각기 특색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림정각회(회장 신윤식)는 활동이 활발해 주변 사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신윤식 회장은 "불교교양대학의 강의도 함께 들으며 신심을 함께 키우고 있다"며 "동참 회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적사는 요사채, 종각, 선수행실, 명부전 등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사음악회, 어린이 북한산 성지순례 등을 추진해 포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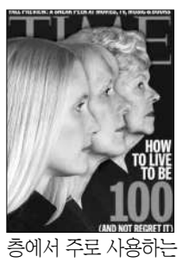
그것은 종후 스님이 서원한 문화포교의 방편이며, 지역 불교 중흥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031)353-5016

박익순 기자


바위아래 공간에 마련된 미륵전에서 기도중인 노적사 신도들.

'100세 가능하다'

원만한 대인관계 중요, 금연 · 小食 등 수명 8년 연장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마가렛 델 여사. 운전면허증에 나온 대로 그녀의 나이는 96세다. 그러나 그녀는 고령의 나이에도 청장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할리 데이비슨' 로고가 새겨진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니며 70여 노인 친구들의 이동을 돕는 '지정 운전사'다. 지난 겨울 폭설에는 차를 끌고 나오기 위해 삽으로 집 앞의 눈을 손수 치우는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뜨개질을 하며 테니스를 즐긴다.

타임지 최근호, 비법 공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8월 22일자)>은 100세가 넘도록 잔병 없이 살아가는 장수 노인들에 대한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 장수 비법을 공개했다.

장수 연구의 권위자 보스턴대의 토머스 펄스 박사는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한 장수촌 마을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100세 이상 장수 노인 가운데 90%가 92세까지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단을 짜는 것도 중요했다. 미국 국립건강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는 오키나와 장수촌 세이류 도구치(103) 씨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저지방, 저염분, 섬유소가 많고 항독성이 탁월한 야채와 과일을 먹고 있었다. 또 오키나와 장수촌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원만한 가족 ·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치매나 기타 노인병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도 훨씬 낮았다.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지방과 열량을 함께 줄이는 다이어트법'의 효능도 증명됐다. 또한 오키나와 장수촌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小食)'을 하고 있었다. 노인 대부분이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인 정량의 80% 정도의 식사를 하며, 하루 섭취 열량은 1천800칼로리 미만으로, 미국인 평균 2500칼로리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청결한 생활도 중요한 장수 비결 중 하나다. 금연, 금주,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미국 유타주 '제7의 안식일 재림파' 신도들의 평균 수명은 미국인 평균보다 8년이나 길었다.

조지아대학 노년학 연구소는 1988년부터 장수자들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4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백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픈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먹을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유신 기자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 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열역신서

增補版 증보판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Ⅰ, Ⅱ型
太陰人 Ⅰ, Ⅱ型
少陽人 Ⅰ, Ⅱ型
少陰人 Ⅰ, Ⅱ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숙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욕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세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젼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자연을 닮은 불심 '세상 속으로…'

단양 각종 축제의 중심 저력 발휘 제천 복지·문화로 생활불교 확산

충북 단양·제천

있는 그대로가 경이롭다. 아무 말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수많은 얘기를 듣는다. 자연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힘이 있다.

빼어난 산수(山水)를 자랑하는 단양과 제천. 단양과 제천의 불교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자연'이다. 불교는 '사람들' 사이에 서있고, 사람들은 '불교'를 듣는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건 탓할 바가 못된다. 중심이 확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고 있다. 두 지역의 불교는 그런 '바람'을 메가톤급 '태풍'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단양불교의 중심축은 단연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다. 단양이 구인사고, 구인사가 단양일 정도로 구인사의 비중은 상상 이상이다. 오히려 다른 사찰들이 구인사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구인사는 연일 신도들과 참배객들로 붐비는 한국불교 제일의 성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단양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인사는 군과 함께 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구인사를 축으로 한 단양사암연합회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온달 축제 때 유등제를 개최하고, 소백산 철쭉축제에도 참여하면서 불교를 심고 있다. 게다가 금수사와 구인사 도심 포교당인 광법사가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고, 광덕사와 광덕사 선원이 대규모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천은 개별 사찰들이 특성화된 포교활동을 펼치며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사찰간 교류도 그런대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송화사는 20년 넘게 어린이·학생·청년회를 운영, 이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활동력을 갖췄다. 특히 송화사는 이들 법회를 통해 지역 불교인재양성에 기여하면서 많은 전문인력을 배출하기도 했다. 시내에 개설된 포교당인 '진여원'은 제천불교 제일의 '포교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무암사는 봉사단체인 '무진등원력회'를 구성, 지난 5년 동안 천주교 시설인 성보나복지관과 소쩍새마을 등 각종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을 해오면서 불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또한 정방사, 봉정사, 무암사 등이 군 포교에 전력하고 있고, 복천사, 원각사, 한산사 등 도심의 사찰들도 나름대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거나 포교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천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제천불교어머니회는 15년 동안 지역의 청소미화원과 장애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자리 잡았다.

스님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제천불교총연합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봉축행사는 물론이고 제천문화제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왔으며, 오는 10월에는 제천시 발전기원 호국영령 수륙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5월과 7월에는 제천시가 진행한 제천시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북한 고성군 과수원 조성사업을 맡아 북한을 방문, 쌀 4톤을 고성군에 전달하는 한편 11월에 다시 고성군을 방문해 1천주의 사과나무를 전달할 방침이다.

단양·제천=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천불교총연합회의 스님과 불자들은 지난 7월 북한 고성을 방문, 과수원 조성사업을 논의했다.(사진 왼쪽)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는 신도 안거(사진 오른쪽 위)와 야생화 꽃 전시회(사진 오른쪽 아래)가 함께 진행되면서 기도객과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다.

종단가풍확립에 동분서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불과 몇 십 년 만에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으로 자리 잡은 천태종. 사람들은 이를 일러 '기적'이라고도 한다. 몇 백 년이 걸릴 일을 불과 몇 십 년 만에 이뤄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대중불교·생활불교·애국불교 구현을 3대 지표로 내세우고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천태종. 사찰 250여 곳, 신도 200만 명, 스님 500여 명의 거대한 조직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다른 불교 종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천태종의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그 핵심에는 바로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있다. 1980년 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12대 총무원장에 이르기까지 24년간 6대째 총무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운덕 스님은, 이력에서 보듯이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천태종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으로 자리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외유내강 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운덕 스님은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이지만 한 번 결정한 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 천태종 역사에 이정표가 될만한 대형 불사들을 무리없이 이뤄냈다.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를 건립, 사회복지재단 설립, 북한 영통사 복원사업, 중국과 일본 천태종과의 교류 강화, 천태국제학술회의의 정기적 개최 등은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뿐만 아니라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계승하면서 창종정신을 선양하고, 종단의 가풍을 확고히 확립함으로써 종도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단 1초도 기도소리 끊이지 않아



구인사 전경

구인사는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200만 천태종도들의 근본수행도량이다. 1945년 상월원각 대조사가 창건했으며, 국내 최고의 기도도량이자 성지순례지로 자리 잡았다. 구인사(救仁寺)라는 절 이름은 '모든 중생을 어질게 하여 스스로를 구제하게 한다'는 뜻으로, 복을 짓는 자력수행의 도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사에서는 단 1초도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이래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전통을 뿌리내려 낮에는 제각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밤에는 관음염송을 통한 염불선 수행에 정진하는 종풍을 이어왔다.

소백산 연화지에 위치한 구인사에는 5층 규모의 대법당을 비롯해 삼보당, 설선당, 인광당, 총무원 청사 등 50여 전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00년 완공된 조사전에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세웠다가 조선 세종 때 종맥이 끊어진 천태종을 540여 년 만에 중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좌상을 모셨다.

모두 300여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신도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지역불교 이끄는 스님들

국제적 총림 불사 발원

무허 스님
단양 광덕사 선원 조실



물질적인 풍요를 경계하며, 진리에 대한 각성을 강조하는 스님. 제자들이나 불자들에게 자기 깨달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외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국제총림'을 세우겠다는 뜻을 세워놓고 있다.

경남 산청 불타사와 서울의 석가사를 창건하고, 뉴질랜드의 한국사찰인 환희정사를 운영해오면서 국내외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환희정사가 뉴질랜드의 모든 외국 종교단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종교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뉴욕주립대 플라치버거 캠퍼스에서 특별초빙교수로 3년간 '원시불교' 강의를 했을 정도로 불교학과 영어실력을 인정받고 있기도. 어학연수를 원하는 스님들에게 미국연수의 길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황무지에 포교도량 일궈

혜광 스님
단양 금수사 주지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가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에 금수사를 세우고 포교중심도량으로 일궈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일이 없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낮추니 신도들이 따를 수밖에.

하지만 혜광 스님은 신도들에게 엄하다. 제대로 공부하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다. 태고종 득도수계산림 23기 모임인 '원융회' 회장을 6년째 맡아 동문화합을 잘 이끌면서 '융화'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군 포교와 지역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왔다. 밭일과 사찰 일을 직접 할 정도로 부지런하기도.

금수사를 수행도량이자 복지도량으로 만드는 것이 꿈. 현재 요사채를 짓고 있으며, 선방을 건립하고 복지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불입종과 지역불교 견인

경암 스님
제천 송화사 회주
불입종 총무원장



제천의 스님들은 제천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 경암 스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맨 손으로 송화사를 일구고, 시내에 포교당(진여원)까지 마련해 제천불교 발전을 선도했다. 특히 어린이·학생·청년 포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티베트·중국 대장경 등 1만여 권의 불서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불교학에도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를 읽는 눈도 날카로워 곳곳에서 법문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달 평균 법문 횟수가 30여 회에 이른다. 88년부터 지금까지 5대째 불입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만큼 종단 내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초대 제천지부장을 지낸 시조시인으로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내고 도예전도 여는 등 다재다능하다.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수련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화합과 참여의 상징

혜암 스님
제천 봉정사 주지
제천불교총연합회장



35년 전 봉정사를 창건하고 지역 포교에 헌신해 온 제천불교의 터줏대감. 제11대 제천불교총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혜암 스님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찰 간 화합과 불교의 사회 참여. 특히 제천시의 각종 사업에 지역 불교계가 적극 참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2년부터는 변호사들의 연합체인 대한법률중앙회에서 종교위원을 맡아 1년에 두 차례씩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군 포교에도 적극적이다. 법화종 교무부장을 맡고 있으며, 봉정사 중창불사를 계획 중이다.

군포교에 남다른 열정

석구 스님
제천 정방사 주지



제천불교 군 포교의 1인자. 제5탄약창에 군법당을 새로 지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열어온 지 벌써 5년 째.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군 포교가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환경운동연합 제천지부 상임대표를 맡아 지역 환경운동에도 적극 관여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 활동이 지역불교를 발전시키고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폐사 직전의 정방사를 중창, 지금은 참배객들이 자주 찾는 지명도 있는 사찰로 자리매김 시켰다. 주말수련회와 청소년 포교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불사·봉사활동 '독보적'

황도 스님
제천 무암사 주지



나보다는 남이, 말보다는 행(行)이 먼저 앞서는 스님.

복지활동은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하지만 스님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신도들이 하는 일"이라며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린다. 신도들이 그런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주로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후원을 해 온 제천복지의 대명사. 게다가 7년째 지역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양로원과 고아원을 겸한 복지원을 건립하는 것이 꿈. 군 포교 발전에도 공이 크다.

5년 전부터 매년 현충일 때마다 21사단에서 천도재를 지내주고, 매주 군인 법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내면의 불사' 강조

장산 스님
제천 고산사 주지



책 읽고 수행하는 것이 전부인 스님.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면의 불사'. 그래서 신도들에게도 늘 수행을 강조한다. 불국사 승가대학 중강과 법주사 교무국장을 지냈을 정도로 학문과 행정에 밝지만, 스님은 언제나 수행자 이기를 고집한다.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곡사 태화선원, 김천 수도암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행한 뒤 이곳 고산사에서 다시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20년간 침술을 연구, 한의과대학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트럭 끌고 다니며 전법

성문 스님
제천 복천사 주지



불교장례의식 보급에 앞장서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자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있어 친근하고 자상한 스님으로 통한다. 특히 우리는 선우 제천지부, 제천불교어머니회와의 교류를 통한 지역불교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직접 트럭을 운전하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신행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도심에 위치해 있는 복천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어린이·학생법회를 운영, 도심포교당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종단협 운영 달라진다

25개 전체 회원종단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사무국 역할 강화…국장에 환적 스님 내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은 8월20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종단협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내 모든 회원종단이 운영에 참여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이하 종단협) 회장단이 종단협의 운영체계를 바꾸기 위해 8월 20일 회동을 가졌다. 지난 7월 열린 총회에서 거론된 종단협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다시 나누기 위한 자리다.

회장단은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의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운영체제를 모든 회원종단이 참여하는 이사회 체제로 다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들러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회원종단들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들 종단의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사회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큰 종단 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도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1년에 겨우 6~7차례 밖에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25개 종단 총무원장을 포함한 3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는 것. 종단 관계자들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날 회장단은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국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무총장의 임기제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무국 역할 강화를 위해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사무국장에 조계종 사회국장 환적 스님을 내정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외에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불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10월 22~27일 베이징에서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종단협 운영의 문제만 제기했을 뿐 사찰환경 훼손 대응, 연합감찰제 등 종단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회장 종단의 한 스님은 "이번 회동은 회장 법장 스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동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종단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회장단, 이사회, 사무국이 각각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종단간 협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종무행정 투명화 힘쓸터"

법상종 12대 총무원장 해월 스님



"오 랜 역사에 걸맞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종도들의 화합을 실현하고 법상종의 종지종풍을 쇄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종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9월 1일 안산 대선사에서 열리는 종도연수교육에서 취임사를 대신한 법상종 제12대 총무원장 해월 스님(사진)은 '화합과 참여'를 종무지표로 삼고 종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무행정 투명화, 교구종무원 권한 확대, 승려양성체계 확립 등을 최우선과제로 종단체질 개선에 나선다.

해월 스님은 투명한 종무행정 실현과 관련 "총무원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종도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맑은 종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며 "중앙종무기관의 8월 회계결산 내역을 처음으로 종도들에게 공개하는 등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총무원을 주석사찰인 안성 쌍미륵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는 등 효율적으로 종단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원 설립을 위해 평택에 3만여 평의 부지와 사찰을 확보했다는 해월 스님은 승려양성 및 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스님은 "종단 재정 마련을 위해 일정한 심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종단가입을 받고 있는 것이 작은 규모 종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스님들의 자질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종단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월 스님은 이같은 뜻을 펼 수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9월 10일까지 구성, 종단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월 스님은 1984년 충주 미륵사에서 법상종 종정을 지낸 우남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서울 덕암사, 안성 쌍미륵사에서 중창불사와 수행정진에 힘썼다. 이후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안성사암연합회 총무, 안성의제21 공동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교구청 사무지도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교구청을 비롯 대구, 부산, 대전, 경주, 포항 등 6개 교구청별 심인당 · 종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무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무지도는 심인당 운영 및 포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무지도와 사감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월 13일 서울교구를 시작으로 14일 대구, 15일 부산, 16일 경주, 17일 포항 · 대전, 9월 20일 서울교구 순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24일 '법률안 입안연습'(사진), 25일 '예산안 결산제도 및 심사', 26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강의를 통해 입법기능과 예결산 심사기능, 종책 감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쌓았다.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정활동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관음종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10월8일 장충체육관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개산조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한국불교를 대표해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성휘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이시 쇼겐 스님 등 한 · 중 · 일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관음종은 앞서 오전 10시 승인동 묘각사에서 총본산 불사 낙성을 겸한 태허 스님 100주기 다례제와 창종 연혁비 제막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또 관음종은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내년 여름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태허 스님의 육필 원고를 모은 책자를 간행한다. 이 책자에는 관음종 창종 배경과 종단사, 태허 스님이 남긴 근 · 현대 불교사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02)763-0054

미타종 재단법인 설립

이사장에 종정 벽암 스님

미타종이 총본산 단양 봉암사 등 종단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유지재단을 설립했다.

미타종(중앙본부장 성우)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대한불교미타종 유지재단'이라는 명칭으로 8월 17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미타종 이사장에는 미타종 종정 벽암 스님이 추대됐으며, 이사는 부종정 혜우 스님, 원로의원 병문 스님, 중앙본부장 성우 스님, 사회부장 대산 스님, 인천시 종무원장 태영 스님, 사무국장 희진 스님 등이 맡았다.

진구 스님은 감사로 선임됐다. 유지재단 관련 업무는 중앙본부 법인원에서 담당한다.

미타종은 창종 62주년 기념일인 18일 창종 기념 및 유지재단 설립 기념법회를 단양 봉암사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벽암 스님을 비롯해 부종정 혜우 스님, 총무원장 성우 스님 등 종단 원로 및 간부 스님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종정 혜우 스님은 "소중한 삼보정재를 유지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불교계와 종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말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해 종단의 역할을 늘려나가는 한편 불교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법계고시 시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제9차 법계고시를 시행한다.

승단의 위계질서와 승가상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계고시는 고시위원회에서 지정한 주제의 논문을 제출한 스님 가운데 5급 선덕,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에 해당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기고사와 면접으로 치러진다.

또 총무원장의 추천과 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되는 종사 법계는 9월 3일 특별전형을 통해 고시위원회에 추천된다.

태고종은 9월 15일 고시위원회 사정회의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법계 품수법회는 10월 4일 오후 2시 봉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종단소식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천태종 전국청년회는 9월 5일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제31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천태종 산하 250여 사찰의 모든 청년회가 참가해 주종목인 배구를 비롯해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족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또 진주, 배일호, 이유진, 삼태기 등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한마당잔치도 열릴 예정이다.

9일 총무원서 종도 연수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평창동 총무원에서 '불기 2548년 종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원(원장 동광)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의 '정토교법' 특강과 종무행정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총무원 부원장 영각 스님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연봉)는 8월 19일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부원장에 前 감사원장 영각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올 연수교육을 10월 17~20일 양산 대인사에서, 행자교육을 10월 9~16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열기로 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장소 : 인도의 수도 델리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A팀 기간 : 10월24일~11월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B팀 기간 : 10월26일~11월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C팀 기간 :10월25일~11월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D팀 기간 : 10월26일~11월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가야-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청전스님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문화 이해하니 마음도 통했어요”

2004 한 · 일 공동 미래프로젝트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의 우정만들기 현장



① 동해의 해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세워진 와타즈미 신사를 찾아 양국의 긴밀했던 문화교류 역사를 생각해 보는 청소년들.
② 대마도 일정 마지막 날, 4박5일간의 한국행을 위해 한국 청소년들과 합류한 일본 청소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③ 태풍 ‘매미’로 카미자카 전망대 등을 찾지 못한 한국 청소년들이 대마도 해변가에서 즐거워 하고 있다.
④수원포교당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연등을 만드는 모습. ⑤환영행사로 수원포교당에서 펼쳐진 야단법석의 환경공연.









韓 · 日, 중 · 고 · 대학생 90여명 양국 역사 · 문화 체험
대마도 한국유적 답사 · 법주사 참배 통해 우정 다져

1428년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평화증진을 위해 대마도에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그리고 일본국왕사. 그들의 후예들이 60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2004년, 옛 선조들의 역사문화현장 답사를 통해, 양국의 긴밀했던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청소년 교류의 물꼬를 텄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조계종 복지법인 아름다운 세상이 진행하는 2004 한 · 일 공동 미래프로젝트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의 우정만들기’가 바로 그것.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대마도를 비롯해 보은 법주사, 수원포교당 등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한국 중 · 고 · 대학생 60여명과 일본 고 · 대학생 30여명이 참가해, 서로의 역사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등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일본친구들에 앞서 먼저 대마도를 찾은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속의 한국역사’에 관한 강의를 필두로 8월18~20일 2박 3일간의 일본문화체험 및 일본 속 한국역사탐방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10여명씩 6개조로 나눠 조장의 통솔아래 조선통신사비와 대마도역사자료관, 구한말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덕혜옹주결혼기념비, 최익현순국비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누구 하나 현장의 의미를 부연설명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역사적 고증과 사료보다도 더 정확하고 투명한 눈으로 그 현장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었다.

“역사자료관을 방문하고 조선통신사가 형식적인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12회나 일본을 방문하며 양국의 학문, 예술, 문화교류를 위해 힘쓴 문화사절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효정 · 수원 천천고 1년)

“전 황량하게 세워져 있는 최익현순국비를 보며, 구국항일투쟁에 앞장서다 이곳 대마도에서 유배당해 끝내 목숨을 잃은 최익현 선생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았어요.” (홍재혁 · 청주 율량중 2년)

이튿날 강하게 불어 닥친 폭풍 ‘매미’의 영향으로 예정된 카미자카전망대 및 쯔쯔자키 등대공원 등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청소년들은 귀국하는 순간까지도 한국전망대, 와타즈미신사 등을 찾아 나서며, 일본문화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한국의 숨결을 느끼려 노력했다.

20일, 4박 5일간의 한국행을 위해 한국 친구들의 마지막 일정에 합류한 일본 측 청소년들 또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일본역사 속 한국모습을 찾아 두 나라의 교류역사라는 퍼즐을 하나, 둘 끼어 맞추고 있었다.

처음 한국을 찾아 가슴이 떨린다는 가와카미 요시아(대마고 2년)부터 내년 한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 한다는 나카지마 쇼우코(동지사대 졸업)까지. 또래의 한국 친구들과 금세 친해진 일본 청소년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보은 법주사와 수원포교당, 서울 인사동 등지를 찾았다.

법주사에 도착해 새벽예불부터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세는 다소 어색했지만, 결눈질로 옆의 친구들의 합장하는 모습과 절하는 모습 등을 살짝살짝 보며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은 정겹고 늠름하기만 했다. 이어 진행된 돌탑쌓기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뽑았을 만큼, 양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엮어 준 이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의 탑으로 완성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탑 앞에 서서 간절한 소망을 불어넣는 순백의 마음.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 보다 활발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소망하며 만들어가는 하나의 발원탑 같았다.

그 발원을 소중히 가슴 속에 새기고 다음날 수원포교당으로 향한 청소년들. 이곳에서 타악공연단 ‘야단법석’의 환경공연을 관람하고, 연등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보다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한국 청소년들은 능숙한 솜씨로 연잎을 꼬아가며 일본 친구들을 도왔고, 일본 청소년들 또한 “아리가또(고마워)”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해맑은 웃음을 나눴다.

“한국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뜻 깊고 재미있었어요. 특히 새벽예불 체험은 일본에서의 예배방식과 많이 달라 힘들었지만,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염불도 하고 절도 하면서 같으면서도 가깝지만 참 많이 다른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봤어요.” (기와사키 코세이 대마고 2년)

“대마도 탐방을 통해서는 오래된 양국의 교류역사를, 일본 친구들과 함께한 국내 프로그램에서는 말은 안 통했지만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박훈식 수원대 3년)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디든, 무엇이든 함께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한 아이들. 보다 성숙한 만남과 교류를 기약하며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교환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꼭 연락해.” “나 잊으면 안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인사말들. 이별이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법이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다. 그동안 서로가 함께 쌓은 우정은 잊으라고 해서 잊혀질 것도 멀리 떨어져있다고 해서 무너질 것도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튼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6백년전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글 · 사진=김은경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650,000원 (중국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자 | 주요일정
20일 |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저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 천진으로 이동 진천페리 승선 / 출발
25일 | 인천 도착 해산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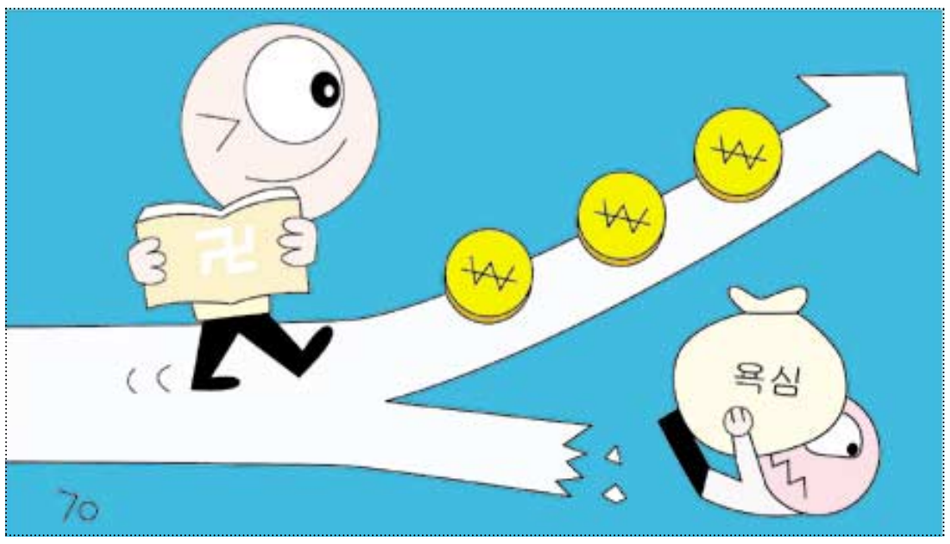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불교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불교를 제대로 알면 부자가 된다? '불교와 돈', 전혀 어울리지 않을 두 단어. 불교는 수행으로 탐욕을 없애라 하는데, 돈 버는 법이 어떻게 불교에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불교는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쓰는 법을 경전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럼, 불교는 일터불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또 부처님은 돈 벌고 쓰는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돈 벌고 쓰는 법을 '한 수 배웠다'는 일터불자들. 이들이 털어놓는 '불교식으로 부자 되기'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

돈? 마음 비울때 보여요

탐욕은 재테크의 가장 큰 적
'10% 이익에 만족하기' 습관을



부자되는 길 보려면…

사이버증권투자가 김광태(42)씨.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수도 없이 오간다. 4개의 증시현황 모니터를 수시로 살피며 '손실과 이익'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치밀어 오르는 화와 이득의 기쁨도 여지없이 김 씨에게 뒤따라온다. 순간순간 요동치는 마음자리에 과보를 즉각적으로 받는 셈.

증권맨 초년병 시절, 김 씨는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주식을 했다. 주식장에 떠도는 뒷이야기에 솔깃해 줏대 없이 맹목적인 투자를 했고, 그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다가왔다. 사는 주식마다 매번 하한가를 쳤고, 족족 '깡통주식'이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기를 5년째, 김 씨가 불교에 입문하면서 주식실패의 원인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간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문제였다. 불혹의 나이에 넘게 접하게 된 불교, 돈 버는 법은 탐욕이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직관하는(如實之見)'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었다. '여실지견'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알게 했다. 팔아야 할 때와 사야할 시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김 씨는 지금 수억원의 자산가가 돼 있다.

"흔히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그 욕심은 탐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더 커지고, 비우지 못한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게 했지요. 이럴 바에는 그 탐욕을 180°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큰 이익을 보겠다는 집착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돈이 벌리더군요."

<마음만 먹으면…된다 심상사성(心想事成)>(장승 刊)을 펴낸 우승택 삼성증권 종로타워지점장(44 · 부동)도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 돈 버는 법이 저절로 체득됐다. 증권사 VIP 자산관리사로서 '공(空)사상'을 바탕으로 한 <금강경>에서 주식투자 등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찾았다. 지난 4년간 만났던 사업가, 자영업자 등 4백여 명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사실을 나름대로 확인도 해보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력가들은 금강경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여한' 눈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가지수 1000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제전문가들의 숫자놀음에 흔들리지 않고 종합주가지수이건 종목이건 평소에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회를 봐 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 지점장은 특히 주식투자의 실패 원인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금강경> 중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에서 불교식 부자 되는 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구절을 '사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사라'는 말로 해석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골메뉴인 '무소유'에 대한 견해도 자산관리자다운 해석을 내놓았다. '남이 못 보는 길 먼저 보고 남이 못하던 것 먼저 해서 멋지게 성공하되, 그 성공과 부와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공심이면 '돈 흐름' 보여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일터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임완숙 교사(58 · 법륜행)가 바로 그 주인공. 임 교사는 발원이 담긴 '올바른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전 사글세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임 교사가 올해 초 용인 지역에 4억원대 전원주택을 구입할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라'는 팔정도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가짐을 공심(空心)으로 만들었고, 그순간 '돈 흐름'이 보였다는 것이다.

"마음을 밝히면 돈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라는 정견(正見)을 갖고자 노력하다보니 무엇이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 불자회 총무 고정현 차장(42 · 길상)은 '돈 그릇'과 '마음 그릇'의 크기는 서로 정비례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함수관계에는 보시행이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혼자만 잘 살려고 마음 그릇을 작게 만들고 움켜쥐려고만 하면 마음이든 돈이든 모두 죽게 됩니다. 마음이 커지면 그에 따라 그 그릇에 돈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마음그릇'과 '돈그릇'은 정비례

고 차장은 담을 그릇이 작으면 조금 밖에 담을 수 없다는 확신은 <법구경>을 읽으며 마음과 돈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은 똑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 양이 달라진다. 큰 나무는 많은 물을 빨아들이고, 작은 나무는 적게 물을 담는다'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큰 나무일수록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늘도 큰 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은행원인 이재상 씨(48 · 심공)도 같은 생각이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이치와 <반야심경> 중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不生不滅 不增不減)'에서 '선택과 결정'의 지침을 얻었다. '성주괴공'과 '불생불멸…'의 이치는 돈 흐름의 향방을 미루어 짐작케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실시간별 증폭이 심한 증시 추이를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면 여지없이 낭패를 보지만,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패턴을 읽어내면 적당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또 손익 계산 기준도 제시했다. 항상 10%의 정도 이익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 이익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씨는 이와함께 불교식으로 돈 쓰는 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보시'라고 강조했다. '보시'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불법의 진리를 맛보는 학습이 수행이듯이, 보시는 일종의 '수업료'가 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는 1999년 9월 1일 15명으로 창립 모임을 시작해 그해 10월 7일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쌍계사 말사인 운흥사에서 능륜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창립과정에서 본사와 타 사업소의 많은 자문을 받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칙을 제정해 회원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삼천포 화력본부 내에는 약 20여 개의 서클 가운데, 우리 반야회가 회원수나 활동상황으로 볼 때, 가장 활성화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야회는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포교활동에 힘입어 현재 회원수가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대회장인 정일교 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손동제 부소장의 적극적인 격려에 앞으로 더욱 더 활동적인 불자모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 반야회는 회원을 5개팀(총무, 교리연구, 조직 · 홍보, 오락 · 섭외, 봉사활동팀)으로 구성해 각 팀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기법회는 처음에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인근 운흥사에서 봉행하고 있지만, 회사업무 및 회식, 격주 휴무제 등으로 회원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해 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보다 많은 회원 가족이 참석해 보람 있는 신행생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회는 가장 올바른 신행생활이라고 판단,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법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떠들더니 어느새 옆에 가만 가만 다가와 앉을 줄도 알고 고사리 같은 작은 두 손으로 합장하며 절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두견새 지저귀는 고요한 저녁 산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노라면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법회는 저녁공양-예절 및 교리교육-법회-다과회 및 토론회의 순으로 실시하며 활성화대책, 차기행사계획 및 현안문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성지순례는 연2회(춘 · 추계) 실시하며 반야회 번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사라 생각되지만 자금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례 화엄사, 연곡사, 칠불사, 쌍계사를 다녀왔고, 올해는 지난 6월 10일에 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으로 구성하여 대구 동화사,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갓바위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스님의 독경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봉사활동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찾아서 행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 회원들이 2001년 6월 대구 동화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요일은 법우애 · 동료애로 행복한 날
가족법회 · 성지순례 신행 돋우는 활력소

■**강창원 교무**(기계부 보일러 1과장)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사주박사

www.drsaju.com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2.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2004년도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8월 7일 ~ 9월 1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9월 2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시식	용왕산신재	바라 나비 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암
디스크관절,당뇨,백혈병
합병증,근육병,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복사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조계종 봉국사 납골당 특별분양
50분만모십니다!
- 강북 정릉에 위치
- 편리한 교통
- 년 4회천도재 봉행
- 영구안치, 관리비무
- 분양문의 :

011-768-7038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 2기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관상, 수상
▶ 일시 : 9月6日 18:00
▶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장충체육관 방향 경동교회 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월간역학 교육원
(02-2264-0258)

포교방법개혁 이련스님을 원하세요
운영이 힘든 서울 사찰 포교당이나 신포교 대불사 조건부 맡기셔나 건립하실 불심 깊은분 연락바랍
59세 미혼, 건강 대학원, 각종경전 진리, 법하 음반취입, 사주관상 부전포교 가수 등의
실천 불심 깊은 정도스님
016-776-8226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공양주(급)구함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7160-6811

처사님
모십니다
▷강원도
010-6384-7557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토굴,작은 암자
시주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628-115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사찰 (김포)
011-688-6625
011-810-1476

사찰농사(밭 3천평)
관리자 구함
월 보시: 60만원(숙식제공)
위치: 전북 장수군 장계면
063)353-0396
세부사항 조정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 주지 합장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공양주(급)구함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경기도 여주군 흥편면
기백리 청운사
헌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스님, 행자모집
▷45세이상
011-259-5989

46세 비구스님
입니다
도심권아닌 산사에
부전자리 구합니다
010-4752-5018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사 보각사(인천)
032)522-8131

공양주 보살님
구함
▷월 80만원
011-825-6909
031)771-82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부전스님구함
승랍10년이상
▷대구
053)963-8975

행자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대. 재단법인
031)764-3399
011-779-449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30~50대
연봉 600~1500사이
사무능력자 우대
054)636-0229

神典건축
- 사찰, 암자, 사당
- 명상, 요가센타
- 다도방, 황토방
- 한옥 리모델링
- 조경과 조형물
- 디자인 & 미술까지

두레우물
031)771-9321

기도하면서 지낼
사찰 또는 절터를
원합니다
땅값은 지급하겠음
뜻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지역
031)225-8913

기도와
포교하실 스님
행자구함
▷경기도 가평
011-722-3418

충남 당진 00사에서
염불기도하면서
가족처럼 함께지낼
40세이하 행자님과
60이상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174-3869
016-635-0618

충남 최대 10만평
납골당내 법당에서
기도정진 하실
비구니 스님 구함
(공부하실 처사 및 행자구함)
017-409-9599

칠갑산 토굴암자 운
영하실 보살님 구함
(몸만와서 운영가능
시설일체 텃밭 70평 포함)
전세 1000만
017-409-95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673-3222

기도 수행하시며 함께 사실 스님 계시면
연락해 주십시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임호산
가락성지 흥부암 주지 합장
055)336-2328
흥부암은 가야문화의 중심 사찰로 김해시 외동 임호산에 소재한 전통사찰로 지역 불자님들의 영험한 기도처 입니다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빡빡함
- 침침함,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 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
일본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 계 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9. 1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오봉양초
불심과 기도력을 향상시켜 줄 신 개념의 양초 개발 시판!
의장등록 제 269382호 상표등록 제 306035 출원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합장한 오봉초는 모든 불보살님께 한마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오봉초는 소원을 간구하는 신도님의 합장한 손이라 생각하시고 오봉초에 불을 밝혀 타들어 가는 고통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원은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이 세상 제일의 순수하고 선한 착한 마음입니다. 오봉초에 불을 밝혀 소원성취 하십시오.

오봉초는 최고급 재질로 생산되어 건강에 해로움이 없고, 그을음이 없으며, 연소시간이 오래 갑니다.



● 大 19cm
● 少 17cm
(정성을 다하는 수작업이므로 다량 주문 시 제작기간이 소요되며, 가격 별도 조정 가능합니다)

오 봉 양 초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58-21
전화 02)955-3708 / 팩스 02)3493-7779 / 휴대폰 011-304-3309
전국 대리점 모집합니다.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그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영부전 : 33평
- 요사 : 110평
- 부지 : 3800평
- 가액 : 30억

- 위치 : 대구
- 인법당 : 35평
- 부지 : 513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강원
- 인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
- 공부하는 스님 휴양 및 조용한곳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양정 1동
- 4층건물중 3층 전세
- 법당 20평, 방3개, 큰주방 1개
- 특징: 내부시설 최고급 홍송으로 꾸밈
- 물품대: 모든집기 일체포함 답사후결정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6-266-193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1-822-6104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1000평
- 법당: 30평 목조
- 요사: 30평
- 가액: 9억

- 위치: 서울
- 대지: 25평
- 인법당: 23평
- 가액: 8천
- 포교요충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삼존불 포함6천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남 양산
- 평수 : 30평
- 법당, 방2개,주방, 샤워실
- 보증금 1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無 전, 월세절충가능

055)386-2376
017-563-460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도로변
- 평수 : 30평 독채
- 큰방 2, 주방, 샤워실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강남 (지하철역 200m)
- 법당 : 35평 ● 요사 : 방 2개
- 보증금: 일천만원/ 월 일백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최고요지의 포교당임

[토굴]
- 위치 : 해인사 가야산 (국민관광호텔근처)
- 부지 : 180평 ● 건물 : 50평
- 양도가 : 1억5천(대출가능)
- 1200년된 법수사 사지 3층석탑 옆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토굴겸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시장 주변
- 2층 17평, 방3개 작은거실, 세면장
-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 기타법당시설은별도제외

010-7135-4030
(스님직접)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죽장 하옥
- 법당, 요사, 대지 200평, 밭 500평, 반듯이 붙어있음
- 산세와 경치를 보고 기도도량 찾는 분, 아주 좋은 곳임
- 가액: 1억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사찰 전,월세안내

- 위치: 부산 최고 시내 중심요지
- 1층 집, 2층 법당 (시설물 일체)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절충가능)

051)244-3024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중동)소재
- 부지: 110평(상가건물 4층)
- 임법당: 50평(방2개)
- 가액: 4억5천만원
- 특징: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포교지로 최적합

- 위치: 서울 성동구 소재
- 부지: 40평
- 임법당 25평(방2개)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특징: 도심에 위치한 포교당으로 단독주택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7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9천만원

011-810-8402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

032)544-6127
041)834-020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9238-9960

사 찰 안 내

<전원주택(토굴)>
- 위치: 의령
- 대지: 1,300평
- 건물: 58평
- 가액: 1억8천
- 의령에서 10분거리

<절터>
- 위치: 부산
- 대지: 1,700평
- 가액: 20억
-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임 버스진입가능

양산 부산간 중간지점인 양산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부동산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매물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시흥
- 4층건물중 4층. 평수 약 100평
- 방 4개, 법당 30평, 공양간 30평 목욕탕, 화장실, 집기일체
- 가액: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1588-1086
031)434-9020
010-6328-3499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뒷편 아파트 밀집지역
- 40평,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2천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2212-0686
016)396-1624

사찰 안내

- 위치: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 대지 : 66평, 건평 :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5억 3천만원

02)815-0302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부근 미륵사지 뒷편 산쪽 요지
- 1천7백평(전답) 건물 약 60평 미륵부처님 조성
- 법당 25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
- 가액: 2억5천만(조정가능)

019-632-80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고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부지: 독립된 청정계곡
- 16필지 총 8000평
- 관리지역 가액: 임야 1만원 전답 3만원 1억3천만원

011-9393-4965

사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한옥사찰
- 요사채, 총건평 36평
-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편리한교통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위치) 모든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토굴작은암자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60평, 요사채 30평
- 보일러 방 5개 입식주방, 샤워실
- 마당에 텃밭있음 비품일체
- 가액: 2천7백만원

011-9560-9197
011-823-1809

사찰터(급)안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38국도변 단곡계곡 두위봉 등산로변
- 용도: 사찰, 납골당, 연수원, 종합휴양시설
- 총평수: 밭 3만평, 필지 14, 주변국유림
- 가액: 평당 3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 사정상 급하게 처분합니다(분할가능)

017-342-4261 / 043)533-9529

사찰안내

- 위치: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1억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사찰부지안내

- 위치: 천안(천안역10㎞) 2차선 포장도로 근접
- 면적 : 2000평 ● 관리지역 : 밭
- 산으로 둘러쌓인 삼태기형
- 가액 : 5억원

041)621-4411
010-3121-3900

암 자(급) 안 내

- 위치 : 전남 (최적지) 시내 중심시장에서 걸어서 3분거리
- 대지 : 103평
- 30년된 안정적인 암자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667-9067

포교원안내

- 위치 : 송파구 2층에2층
- 총40평 법당 28평, 상담실 요사채, 주방, 화장실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일체포함)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010-7193-591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읍 단독건물
- 건평 30평, 대지 120평
- 방 3개, 마루, 주방
- 가액: 전세 2천만원 시설비 900만원
- 앞은 바다 뒤는 산 조용함

011-9281-5781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

016-424-0500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도심속 암자)
- 현재 운영중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대구 남구 시장입구
- 평수 : 20평(1, 2층)
- 살림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92-7449

토굴겸암자

- 부산 기장
- 부지 : 166평 ● 법당 : 30평
- 삼성각 10평, 산신각 15평
- 특징 : 앞 바다, 뒤야산
- 가액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 연락요망

011-581-2518

포교당안내

-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사무소 부근
- 평수 : 25평(2층) 냉,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1-669-3345

문화재전통사찰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내
- 면적: 약600평(종교부지등)
- 가액: 4억 (임대는 1억2천 월세가능)
- 개인등기된 문화재 전통사찰로서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하고 깨끗함 6m넓이 진입로 포장 되있고, 약수터 있음

011-703-3030

사찰안내

- 위치 : 원주
- 부지: 1036평 ● 법당: 30평
- 삼성각7평, 용왕당, 요사채2동 (30평, 15평)
- 목조 및 단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치악의 영지가 뻗어 분출하니 조용히
- 기도정진하며 살수있는 전통사찰입니다
- 가액: 사찰에서 직접면담합니다

033)731-6612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부근 미륵사지 뒷편 산쪽 요지
- 1천7백평(전답) 건물 약 60평 미륵부처님 조성
- 법당 25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
- 가액: 2억5천만(조정가능)

019-632-80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고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부지: 독립된 청정계곡
- 16필지 총 8000평
- 관리지역 가액: 임야 1만원 전답 3만원 1억3천만원

011-9393-4965

사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한옥사찰
- 요사채, 총건평 36평
-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편리한교통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위치) 모든시설은 사용하기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토굴작은암자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60평, 요사채 30평
- 보일러 방 5개 입식주방, 샤워실
- 마당에 텃밭있음 비품일체
- 가액: 2천7백만원

011-9560-9197
011-823-1809

사찰터(급)안내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38국도변 단곡계곡 두위봉 등산로변
- 용도: 사찰, 납골당, 연수원, 종합휴양시설
- 총평수: 밭 3만평, 필지 14, 주변국유림
- 가액: 평당 3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 사정상 급하게 처분합니다(분할가능)

017-342-4261 / 043)533-9529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왜관 칠곡
- 산세수려, 경관최고
- 350고지, 평수 350평 (실사용평수 700평)
- 한옥1채, 방2개, 욕실, 거실
- 전세 200만원에 월 30만원 (양도가능)

011-550-8180
017-813-9126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소재
- 하늘과 마주보는 산밑 1257평
- 농가 흙집 리모델링 방5개(구들방1개, 벽난로)
- 도량-아늑한 세월의 숨결이 묻힌 나무조각불상다수 미니 돌도랑 그위에 미니정자 오롯한 수행의 길을 찾는분
- 가액: 2억

(임법당, 집기, 비품 소품일체 양도)

033)342-7931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면소재지 시내중심지
- 3층 40평 ● 삼존불 산신탱화 칠성탱화,후불탱화. 모든시설 완비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비품 일체 포함
- 즉시법회가능

010-4422-5575
041)337-80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550만원(절충가능)

032)511-4974

<신 행정수도 인접>

사찰부지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참나무) 울창계곡 /
- 대전에서 25분, 계룡시에서 15분, 신 행정수도에서 40분
- 마을포장도로 인접
- 이용가치 : 종교시설(사찰부지, 기도원), 참나무찜질방, 유실수단지조성 가능,
- 면적 : 7만 3천평 ● 가격 : 5억 8천만원

017-405-1554
042-522-2588
(야간 10시 이후)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좋은 因緣 바램

- 경남 고성군 천황산 자락 시내에서 10분여거리
- 봉황이 알을 품은 正南向 名堂 석간수 옹달샘
- 종교부지 300여평과 주위1000여평 법당 (관음전)30평 , 요사체 30평 기타
- 황토와 태백산 1000고지 赤松으로 건축 절 주위 300여만평. 숲속에 위치 등산로
- 禪院및 기도처 수양이나 요양처로 最適
- 가액 10→7억5000 이면 양도하겠음

055)674-2202/010-8019-4862

“원음 최대한 반영 원칙” 의견 각각

“세계화 위해 옳다” “우리말 고착된 것까지?” 분분

불교학술용어표준화사업 ‘시안’ 일부 공개

구마라집, 구마라즙, 구마라습, 꾸마라지바…. 방대한 분량의 불경을 한역(漢譯)해 중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구마라집’ 스님에 대한 표기들이다. 이처럼 표기법이 학문적 배경이나 개인적 취향, 유행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불교서적을 읽을 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의 성과물인 표준화 시안이 8월 13~15일 동학사에서 열린 ‘불교용어 표준화 불사위원회(회장 이평래)’ 워크숍에서 일부 공개됐으나, 그 표준화 원칙과 적용 범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니르바나’는 ‘니르와나’, ‘구마라집’은 ‘꾸마라지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안웃따라삼약삼보디’, ‘반야’는 ‘쁘라갸’, ‘찰나’는 ‘끄샤나’ 등으로 표준화 된다.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표준화 작업은 원음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동일한 원전 용어가 다양한 한글 음가로 표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으로 원전 용어의 비교 및 정비 필요성이 학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고, 전산화 추세에 따라 용어 표준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용어를 제각각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교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불교용어 표준화가 저자와 독자, 학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준화 방향과 그 범위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중국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왜곡된 불교 용어와 표기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세계화의 측면에서 원어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우리말과 다름없이 고착된 용어까지 산스크리트어로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뿐 실익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보다는 원전 번역시의 표기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응이 이처럼 엇갈리는 것은 불교용어 표준화에 관한 학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표준화된 용어가 향후 수십 년 이상 학계의 ‘표준어’ 지위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와 검토를 거쳐 학계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기껏 표준화작업을 해놓아도 학계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의 촉박한 사업기간과 예산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주한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의 한 분과인 ‘철학분야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의 하위 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참여 주체를 기준으로 살피면,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을 한국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그 아래 소속된 18개 분과가 각각 분과 사업을 총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의 총 예산은 3억원. 그 아래에 어학, 문학, 철학, 수학 물리 등 18개의 분과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1개 분과에 돌아오는 예산은 산술적으로 볼 때 17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분과 총괄 사업 관리에 책정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학회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보니 공청회 등을 통한 학계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2년에 불과한 사업기간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에 대해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의 한 관계자는 “적은 예산과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표준화 작업에 애로가 많다”며 “학술용어 표준화가 정보화와 학문발전의 기틀이 되는 중대한 국책사업임에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시안은 추가적인 수정 · 보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주관단체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홍련봉 제1보루에서 발굴된 고구려 연화문와당.

아차산서 고구려 연화문와당 발견

홍련봉서…남한선 처음

아차산 일원 16개 보루(전략 요충지에 쌓은 작은 성) 가운데 유일하게 기와가 출토돼 주목받던 홍련봉 제1보루 유적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연꽃무늬 새긴 막새기와) 조각 3점이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월부터 이곳을 조사해온 고려대 매장문화재연구소(소장 이홍종)의 8월 23일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됐다.

조사단은 “임진강유역에서 고구려 기와가 출토된 예는 있으나 남한지역에서 와당이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6세기대로 연대가 확실한 와당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연화문와당이 궁궐이나 관공서, 사찰 등에서만 쓰였던 장식재라는 점에서 홍련봉 제1보루에 군 사령부가 주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홍련봉 제1보루는 석축 성벽을 쌓은 후 내부에 건물을 축조한 구조로 온돌과 저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홍련봉 제1보루 등 17개 보루를 ‘아차산 일대 보루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455호에 지정 예고했다.

박익순 기자

고려사경의 비밀 ‘신라’에 있었네

김경호 씨 ‘대방광불화엄경’ 연구로 밝혀

고려시대의 사경은 중국에 역수출할 정도로 꽃을 피웠으며, 그 연원이 독창적인 신라 사경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신라 백지묵서(白紙墨書) 대방광불화엄경의 연구>라는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을 통해 “원나라에 많게는 1회에 100명이라는 많은 수의 사경승이 파견되어 중국의 금은자 대장경을 사성해 주고 돌아왔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수 회에 걸쳐 나타날 정도로 고려 사경예술은 세계 제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라 불교미술의 전성기인 경덕왕대에 사성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경 유물인 호암미술관 소장의 국보 제196호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사경 전문가에 의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 백지묵서 <화엄경> 경심에 봉안되었던 사리는 부처님 진신사리였음을 확인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조탑소의경전인 <무구정광대타라니경> 뿐만 아니라 <대방광불화엄경>도 납탑 봉안 사경으로 사성되었음을 규명했다. 김 회장은 또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이 중국의 사경서체와 일반 서체와는 매우 상이한 독창적인 신라의 심미감이 반영된 서체로 기록되었음을 밝혔다. 서체의 연원은 백제 지역의 잔존 사경 서체로서 남조 서풍을 백제인의 심미감으로 재해석한 <무령왕릉지석>의 서풍을 이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화제의 논문

서산대사는 선교 통합 수행 강조

법진 스님 ‘조선중기의 선사상사…’ 박사학위 논문



“선과 교와 염불을 하나로 삼는 삼문(三門) 수행이야 말로 서산에 의해 확립되어 현재까지 내려오는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서울 정법사 주지 법진 스님(사진)은 최근 원광대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조선 중기의 선사상사 연구-서산과 그 문도를 중심으로’란 철학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서산이 주장한 ‘삼문수업(三門修業)’, ‘사교입선’, ‘간화선 우위’의 사고방식이 한국불교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진 스님은 논문에서 “서산은 실천수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원융한 수행을 주장했다”며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정토문(淨土門)의 삼문수업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절문은 조사선, 원돈문은 교문, 정토문은 선정(선과 염불)겸수를 뜻한다.

법진 스님은 또 <선교석> <선교결> <선가귀감> 등 서산의 저서에 나타난 일관된 경향은 ‘사교입선’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사교입선의 의미는 선종과 대립되는 교종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선과 교를 합해 깨달음으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산은 실제수행에서는 스님들이 경전을 수업하게 하고 사교입선을 통해 조사선이자 화두선으로 귀일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원 등에서 <도서>와 <절요>를 통해 기본 지식을 익히고 <법화> <화엄>으로 불법의 세계를 넓힌 다음 <전등록>과 <선문염송>으로 회향하는 것은 서산으로부터 정립되어 온 ‘사교입선’의 수행법이다.”

법진 스님은 또한 서산은 선과 정토(염불)를 아우르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원융수행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생존의 질서는 불성에서 비롯

서재영 씨 ‘선의 불성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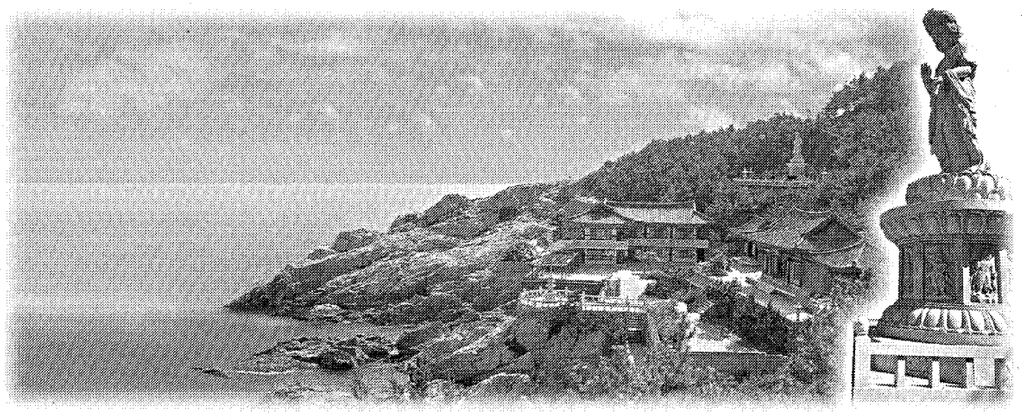
불교나 선사상이 현대 생태학의 사상적 대안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그 진가가 제대로 확인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재영 동국대 강사(사진)가 8월 28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57차 월례 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선의 불성관을 통해본 생명의 내재적 가치’는 구체적인 전거를 들어 불교생태학 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기에 충분했다.

서재영 씨는 선의 불성론이 존재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범인과 성인은 불성에 있어 차별적이지 않으며(凡聖一如), 미물조차도 불성이 있다(蠢動含靈)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부각시킨다.

이와관련 서 씨는 불성을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삶의 과정과 존재들 상호간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전거 중 하나는 <조당집>에 실린 배휴 스님과 동사 스님의 문답이다. 참새에게 불성이 있냐는 배휴 스님의 질문에 동사 스님이 “불성이 없다면 어찌하여 새매의 머리에다 똥을 싸지 않겠는가”라고 답하는데, 이에 대해 서 씨는 동사스님이 한 개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생존방식이나 질서조차도 불성의 한 단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런 맥락에서 불성의 의미는 “존재간의 상호 관계성,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 씨는 주장한다. 서 씨는 이처럼 모든 존재를 유기적 전체로 통합하는 선사상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데 유력한 근거며 살아있는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대진스님 초청 금강경 대강좌
기 간 : 9월 14일 ~ 9월 20일까지 (1주일간 매일 오전 11시)
장 소 : 상도동 보문사 법당
동 참 금 : 무료 (교재 및 강의 테이프 무료)
연 락 처 : 02)823-7443. 814-8793
대진스님 약력 : 직지사로 출가하여 직지사 강주 10년 역임. 봉암사, 해인사, 동화사, 백담사 등 제방선원에서 10여년간 수행했고 현재는 지리산 백장암선원에서 정진 중.
상도동 보문사에서는 시민선원을 개원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禪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시 간 : 오후2시 ~ 9시까지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밤 9시-새벽 4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동 보문사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279-390 02)823-7443. 814-8793

일주문



4개 국어 '법화경' 발간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9월 2일 오후6시30분 서울 타워호텔에서 범어, 한문, 영어, 한글 등 4개 국어로 된 <법화경> 발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동명대와 산학협력체결

부산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혜총 스님은 8월 25일 부산 동명대학에서 박용수 동명대학 학장과 불교캠퍼스 개설을 위한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동국대에 연구진흥장학금 전달

해남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8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에 조선불교연구 진흥 장학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단청재료 지원 차 방북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무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북한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단청 재료 지원 차 8월 31일 방북했다.



금강불교대학 2학기 개강

고양시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9월 7일 오전 11시30분 설법전에서 금강불교대학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02)381-7970



'물사랑 실천 현장' 견학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9월 15일 오전10시 중랑하수처리정수지와 정릉천 일대에서 '물사랑 실천 현장' 견학을 갖는다. (02)927-1232



'오세암' 등 불교영화 상영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월 18~19일 법왕사 경내에서 '오세암', '쿤둔' 등 불교영화를 상영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웰빙 전통사찰음식 강좌 개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9월 1일 가을철 웰빙 전통사찰음식 정기 강좌를 개설한다. (02)355-5961

인사

학교법인 동국대 △명성여고 교장 박명순 △명성여중 교장 김정옥 △금산중고 교장 채규수 △명성여고 교감 이춘신 △명성여중 교감 배용만 △금산고 교감 조봉권

동국대 <서울캠퍼스> 조교수 △최창렬 법학과

전임강사 △김영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황순일 인도철학과 △허남결 윤리문화학과 △성정석 생물학과 △양우철 물리학과 △이경원 경제학과 △김승용 · 박찬규 경영학과 △이상철 회계학과 △조준형 식물자원학과 △윤선태 역사교육학과 △신나민 · 조상식 교육학과 △강춘애 연극학과

<경주캠퍼스> 전임강사 △김경제 법학과 △이영찬 전자상거래학과 △하동엽 · 송인욱 · 곽경필 · 권순백 · 조재학 의학과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


진종오


라경민


이경원

"메달에 부처님 가피 담겼지요"

아테네 올림픽 불자 메달리스트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 진종오 라경민 이경원 선수

2004 아테네 올림픽을 빛낸 메달리스트 박경모 장용호 이성진(이하 양궁 금), 진종오(사격 은), 라경민 이경원(배드민턴 동)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불자라는 것이다.

참선으로, 명상을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또는 사찰에 가기만 해도 마음 다스리기에는 불교가 최고라는 불자 선수들. 금의환향한 이들의 목에는 색깔은 각각이지만 피땀 흘린 성과를 고스란히 담은 메달이 반짝이고 있었다.

8월 21일 양궁 남자단체전 결승이 있던 날 장용호 선수(28 · 예천군청)의 고향에서는 절에서 항상 손자를 위해 기도했던 할머니 박갑덕(84) 씨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눴다. 남편을 아테네에 보낸 뒤 하루도 빠짐없이 삼백배를 올린 아내 이강미(29) 씨는 "결승전이 열리는 날 딸과 함께 절에서 승리를 기원했고 할머니도 인근 절에서 기도했다"며 "어린 딸이 아빠를 위해 기도한 정성이 승리를 안겨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모 선수(29 · 인천계양구청)를 아테네에 보내고 정한수 떠놓고 정성드리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했다는 박 선수의 어머니 김순예(57) 씨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오징어 무침으로 푸짐한 밥상을 준비하겠다"며 기뻐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양궁 이성진 선수(19 · 전북도청)의 어머니 김옥순(42) 씨는 "개인전 결승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메달을 따주었고 단체전에서는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자랑스럽다"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권총의 기대주이자 무명신화를 만들어낸 진종오 선수(25 · KT)는 무명이라 기대가 없어 마음이 편하다며 평소 무심도리를 실천해왔다. 아버지 진재호 씨는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메달을 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라경민(28 · 대교눈높이)-이경원(24 · 삼성전기) 선수도 사찰을 자주 찾는 불자. "금메달이 아니어도 소중한 메달을 따 기분 좋다"고 말한 두 선수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운동의 세계로 들어갈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재불사 가장 급한 일

정진장학회 설립

지범 스님



"불교의 미래는 수행과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정진장학회'는 인재 불사를 위한 작은 시금석이 됐으면 합니다."

8월 15일 서울대 의대 및 영문과, 경희대 한의과대 학생 등 7명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정진장학회'를 설립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사진). '수좌계의 마당발'로 통하는 지범 스님은 "은사스님의 법명을 따서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장학회는 신도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장학회의 지원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인성과 학업이 뛰어난 학생들. 4년 동안 푼푼이 모아 온 1억원의 종자돈을 보시한 지범 스님은 젊은 불자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어 향후 불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스님은 또 "제가 씨앗만 뿌리고 거두기는 신도회와 불교계에서 거둘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발원했다. (02)823-744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8년간 시조 2만2천7백수 써

최다 창작 기네스북 도전

도열 스님



"물 흐르듯, 마음 가는대로 시조를 쓰다 보니 2만여 수가 훌쩍 넘었습니다. 제 작품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우리의 시조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제 혜양사 주지 도열 스님(사진)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시인 시조(時調) 최다 시작(詩作)으로 세계기네스북(The Guiness World Records Book) 등재에 도전한다.

'최도열 시인 세계기네스북 등재 추진위원회'는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님이 199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쓴 2만2,700여 수의 시조를 세계기네스북 본부에 등재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스님의 시조 2만여 편을 227권의 시조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도열 스님은 1950년 통도사로 출가한 후, 96년 계간 <현대시조> 신인공모전에 당선돼 등단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통도사, 불교도서관 기공식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8월 25일 통도사 솔발주차장 차고 철거지에서 불교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방장 초우, 주지 현문, 전계사 혜남, 박물관장 법하 스님, 오근섭 양산 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숙사 준공법회



동국대(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는 295실(2인1실)로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숙사를 8월 23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사장 현해, 현성, 영담 스님을 비롯해 홍기삼 총장 등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 했다.

법타 스님 만해대상 수상 축하법회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의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 축하법회가 8월 2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은해사 말사 주지 연합회, 대구평화통일불교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불교방송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축하법회에는 200여명이 동참했다.

ROTC 사관후보생 8백명 수계



육군행정학교 산하 학생중앙군사학교 호국남성사는 8월 22일 네팔 대성석가사 조실 도문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사 도문 스님은 ROTC사관후보생 8백여명과 현역장병 30여명에게 계를 내리고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 이끌어 갈 동량이 될 것"을 당부했다.

동산불교대 한 · 일 찬불가 합동협연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이 일본 북해도 양원사(주지 이즈모지)와 함께 8월 18~22일까지 일본 양원사 등지에서 '제3회 한 · 일불교문화교류'를 개최했다.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교류는 찬불가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불자 세상보기

구 승 회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환교수

기업의 새 코드 '봉사'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도 기부와 봉사가 일반화되고 있다. 학교는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성적에 반영하기도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군인과 종교단체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력 동원이 용이한 집단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화의 기부와 용역의 봉사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적 분배양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장한 제3부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관료적 시스템 밖에 있는 자발성에 기반한 도덕적 활동이다. 이를 제도화,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기부는 조세가 되고, 봉사는 강제노역이 되고, 이를테면 복지행정 관료의 수와 복지의 수혜자 수가 맞먹는 복지의 비대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는 체제와 효율성으로 잴 수 없는 자율성의 영역이다.

절대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오직 관료 집단만이, 시장이 낙후되어 있고 관료세계 이외에 어떤 합리적인 조직도 없는 사회에서는 군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가장 큰 역동성을 갖는 집단이 된다.

기업은 관료세계에 비해 지식 엘리트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집단이다. 정보수집 능력, 단기적 미래 예측 기술, 비용효과 분석 기술의 측면에서 기업을 능가하는 집단은 없다. 이런 엘리트 집단인 기업은 지금껏 이윤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원초적인 목표에만 주목한 나머지, 심지어는 이웃의 가난, 대규모 자연재해, 국가적인 위기마저도 '또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해 왔다. 마치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개혁이라는 아우라'를 이벤트 상품화하는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오늘날 환경문제, 정보화,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바꾸고 있다. 변화된 생산양식 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에 맞춰진다.

적정 이윤이라는 의미, 즉 효율성, 생산성에 기초한 최적화가 아니라, 기업의 역동성을 지역사회에 풀어냄으로써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성, 유연성을 통한 기업 가치의 최적화를 말한다.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는 참여의 문화를 만들고, 이는 다원주의적 기업문화로 이어져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

생산력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가장 유력한 분야는 지역 환경봉사일 것이다. 환경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관심사이고, 기업 활동은 반환경적이라는 적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환경봉사는 이런 대립 구도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기업이 친환경적인 소비 패턴을 기업 활동에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관계를 정립하는 '21세기형 기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봉사는 계몽적 성격의 시민운동, 혹은 예를 들어 '녹색 소비주의'를 홍보함으로써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차원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서비스를 수혜받는 현명한 소비자는 물총으로 산불을 끄려는 시도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역봉사는 이윤추구 활동도,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도, 지역사회에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업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판매실적, 어학능력과 동일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이해할 때, 타인을 위한 봉사 그 자체가 지향하는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무소유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출가 승단이 재산을 지니게 된 것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출가 공동체의 정재로서만 인정하고, 스님들이 사암 등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에서 무소유의 근본정신을 최대한 지키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청정출가승단을 표방하고 있는 조계종의 스님이 개인의 사암을 소유한다면, 그 종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타의 승단에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고, 또 긴 세월에 걸쳐 폐해를 줄이는 방편을 강구한 바탕 위에서 소유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낳을 것이며, 그 폐해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소속의 많은 스님들이 개인의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종무기관의 요직에 있는 상당수의 스님들까지도 그러하다 한다. 이는 조계종의 정체성과 청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사설사암과 조계종 정체성

물론 사설사암을 무조건 철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건의 뜻이 지켜져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할 수도 있고, 노후의 복지에 대한 보장이 없기에 사적인 사암과 신도를 통해 그것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설사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하지만, 그런 것을 구실로 삼아 사설사암을 유지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사설 사암이 있기에 오히려 모든 스님들이 무소유의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종단의 제도적 개혁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다.

조계종단은 청정 출가승단의 위상을 분명히 하여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사설사암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만 평생을 바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두 가지는 별개의 일이 아니지만,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자의 일도 바르게 시작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종단의 역량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과거사 청산

목숨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만난 사람은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으며,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해탈을 이르지 못하면 윤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증일아함경〉

"아이고, 우리 아무개 불쌍해서 어쩌나…."

인척 동생이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해 찾아간 영안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한바탕 울음을 쏟으며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말이다. 한동안 영안실에 앉아 있으니 동생의 죽음만 안타깝고 애통한 게 아니었다. 나이와 신분을 떠나 누구의 죽음이든 죽음은 언제나 못다 이룬 한을 남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그래서 더욱 커진다.

서러운 눈물이 넘쳐나는 영안실에 앉아 우리네 삶을 생각해 본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뒤의 자취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 그 뒤에 남겨지는 흔적을 여실히 관찰한다. 친일 경력에 이어 항일, 반공 재조명 등으로 과거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규명은 현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방에 불과하다. 어떤 역사학자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위험하다고 했다.

영원히 묻히는 과오는 없다. 앞서 살다간 이들이 남긴 단적인 삶의 이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한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오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중하게 다가오는 '현재'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아야 함을 일깨우는 교훈이다.

지금 여기에서 '여한 없이' '부끄럼 없이' 살다 돌아갈 일이다. 영안실에 앉아 언젠가 한번은 맞이해야 할 죽음과 끝없이 윤회하는 인간사의 비애를 절감한 후, 더욱 엄중한 삶을 다짐한다.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웰빙사찰'이 대안이다

사찰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읽었다. 일주일에 3~4차례 절에 가는 입장에서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기도나 상담, 봉사, 합창단 외에는 사찰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분배 중심의 구조로 변화를 겪고 있다. '웰빙'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면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선다. 휴양지를 찾는 이도 있고, 극장이나 쇼핑몰, 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사찰은 어떤가. 참으로 썰렁하다. 뭔가를 찾아나서는 이들의 발길을 잡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이다. 한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사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외래문화의 범람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에 배어있었던 불교는 희미해진지 오래다. 자주 사찰에 가는 불자가 아니라면 불교와 사찰은 그들만의 생활일 뿐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찾아나서는 이들을 사찰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것이 건물을 대형으로 짓는 불사보다 중요하다. 인적 없는 사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찰도 이제 '웰빙'이어야 한다. 꽃꽂이, 한지공예, 사찰음식, 비즈공예 등 각종 문화강좌가 필요한 이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사찰이 그런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공소희(대전시 서구 도마동)

수계·지계는 수행자의 기본

9월 3일에 있을 선우논강의 주제가 '수행과 계율'이라는 〈현대불교〉 기사를 읽었다. 계율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불법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라고 하셨다. 비구 스님은 250계, 비구니 스님은 348계를 지켜야하는데, 이는 숫자의 의미보다 그만큼 청정한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는 당부일 것이다.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의 말처럼 현대사회가 번잡해 수행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율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재가불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스님들이 수행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수계가 지계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혜능 스님의 진단은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수계가 형식적 행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지계는 수행자에게 삶 그 자체여야 한다. 그것이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가불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랜 세월, 계율을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준 스님들이 승가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이번 논강에서 스님들께서 참 수행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성(서울 동작구 사당동)

문화재 보호 우리 자신부터

서울과 충청 지역의 석조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화재 보호를 운운하는 목소리가 더이상 새롭지만은 않다는 말이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백화현상으로 그 모습이 하얗게 변색되고, 관촉사 석등은 심하게 기울어져 곧 쓰러질 것 같고….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모든 우려를 일축하고 정밀진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할 때 우리의 문화재들은 소중한 민족의 얼과 함께 잊혀져갈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유구한 역사, 단일민족 수없이 외치면서 과연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으며, 과연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우선 나부터 석조문화재에 관심을 소중히 여겨 보호하려 노력하자. 정부차원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과 철저한 과학·기술적 조치, 행정적 관리 등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신주영(수원 권선구 권선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범 음 범 패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에서는 본원 원장이신 어장 동주원명스님의 직접 지도하에 전통적인 범음범패 의식을 강의 하오니 조계종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를 모집하오니 배우고져 하는 스님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04년 8월 25일 ~ 9월 5일까지 (10일간)
- **수강신청대상**
  조계종 승려로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에 한하며 종법상 결격사유 없는 스님
- **구비서류 :** · 조계종 승적등본 1통
  · 이력서 1통
  · 명함판 사진 1매
- **모집인원 :** 00명
- **전형일시 : 2004년 9월 5일 오후 3시**
- **모집장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1-6 홍원사

※ 합격자는 9월 8일 개별 통보함

조계종 전통의식 연구원
Tel. 02)822-1990 / Fax. 02)822-1996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보우승가대학에서는 조종파적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의식과 경전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진은 학계저명한 교수님들과, 유명 강사스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통하여 초보자도 여법히 법회및 의식을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 강의과목
▶ **경전 연구반(1년)** - 스님 및 교임, 교양대학이상을 수료한 불자
(매주 금요일 오후 4시~7시 통신 강의도 가능함)
▶ **의 식 반(1년)** - 스님 및 교임, 예비승려, 관심있는 불자
◎ 기본과정 : 6개월. 월, 화요일 오후 4시 ~ 7시
◎ 전문과정 : 6개월. 수, 목요일 오후 4시 ~ 7시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42-0085)
지하철 6호선 창신역하차 7분거리 마을버스 연계됨 (기숙사 60명숙식 가능함.주차장 완비)

3 개교일시 **2004년 9월 9일 오후 3시** 추후 수시모집 가능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각반 50명이내,선착순접수함)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교 사무처(☎ 02-763-5213)

※ 경전연구반은 원각경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육조단경 선가귀감등 대승경전중 핵심부분을 위주로 강의할 예정임
※ 의식반 기본과정에서는 법당예절,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종성,각단예불, 축원, 각단불공등 본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여법히 집전을 할수있도록 쉽게 강의를하며
※ 전문과정에서는 49재, 천도재, 방생의식등에 필요한 제반의식과 바라무, 나비무등의 작법등을 강의함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도와주세요
병상에서 날아온 편지 두통

8월 23~24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는 주저함이 가득담긴 듯 차분한 필체의 편지 3통이 전달됐다. 이중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있던 지역의 한 스님의 사연은 병고를 이기지 못하고 26일 입적에 들어 생략하고, 남편과 엄마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사연이 담긴 두통의 편지를 소개한다.

나눔, 생명을 살리는 공덕입니다

"남편 수술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부처님 법도 간절히 믿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면서 불자모임의 봉사부장을 맡아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남편이 지난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분옥 씨가 병상에 누운 남편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

아내 이분옥 씨(44)는 백혈병 진단 받은 남편 유호원 씨(51)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만난 유 씨 부부. 아내는 우울증에 두 번 씩 자살을 하려 했던 남편을 사랑으로 품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독히 사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삶은 이들 부부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지난 2003년 급성백혈병은 유씨를 병상에 눕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유씨는 동생의 골수 기증으로 이식수술은 받았지만, 수술비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이들 부부에게 큰 짐으로 남겨졌다.

"집 한 칸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은 우리 가족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남편의 건강과 수술비 해결입니다."

이들 부부는 15만 원짜리 사글세방에서 살고 있다. 그나마 있던 전세금은 수술비용으로 모두 들어가버리고, 지금은 빚마저 진 형편이다. 아내 이 씨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커 보인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림프종 앓는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두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 남편 오규태 씨가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엄마! 혜리예요. 며칠 전 밤새 엄마 '끙끙' 댔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호빵 아줌마처럼 퉁퉁 부은 얼굴이 가라앉아 지금은 많이 나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그러니 걱정이예요."

혜리(12)가 어머니 이현진(38) 씨에게 쓴 마음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엄마가 저녁에 마트일 나갈 때마다 아빠가 힘드니까 괴롭히지 말래요. 저번에 피자 사달라고 졸랐다가 아빠에게 무지 혼났었잖아요. 예리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꾸중만 받았죠. 엄마! 난 요즘 은근히 화가 나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반쯤 어른 취급을 하시지만, 가끔 어린 아이처럼 투정도 부리고 싶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혜리. 아직 가끔씩은 어리광을 부릴법한 나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 사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빠 어제께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내가 요새 들어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우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울다가 웃더라고요. 실은 엄마, 아빠가 우는 이유를 난 잘 알아요. 림프종이라는 게 엄마 머리에 생겨 수술조차 불가능하고, 엄청난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것을요."

의사가 꿈이라는 혜리. 이제는 꿈을 바꿨다고 한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돼 온 가족이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란다.

후원계좌:우체국 202200-02-031589(예금주 오규태) 011-824-6067

김철우 기자

헌혈증 123장 생명나눔회에 전달


본사 서정만 이사(왼쪽)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혜숙 사무총장에게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다.

본사에 전달된 헌혈증 123장이 8월 26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에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혜숙 사무총장은 "적십자사에 혈액이 바닥나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헌혈증을 다량으로 확보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생활이 어렵고, 헌혈증이 꼭 필요한 불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된 헌혈증 123장은 (사)불국토(이사장 혜총)와 본사가 부산에서 함께 주최한 헌혈행사에 참여한 불자들이 전달한 95장을 비롯해 익명의 스님이 본사 나눔의 손잡기운동에 보내준 27장, 경북 포항에서 장천수 거사 1장 등이다. 김원우 기자

법련사, 아동용 겨울옷 2000벌 기증



법련사 총무 스님 등이 북한 어린이에게 보낼 옷가지를 실은 차앞에 기념촬영한 모습.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의류 2천벌이 전달됐다.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는 8월 25일 아동용 겨울의류(운동복, 니트, 조끼등) 2천벌을 승가원 선재동자원등 13개 복지시설과 북한동포를 돕는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법륜)에 전달했다.

이번 법련사 겨울 옷 보내기 운동은 8월15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신도들의 동참으로 이뤄졌다.

주지 보경 스님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따듯한 옷을 주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실천"이라며 더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접수

수지 보현정사 -137만2천원
강문선-58만3천830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19만3천500원
박기정-10만원
구길자-4만8천630원
정지윤-1만원

총 누적금액 20,845,68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 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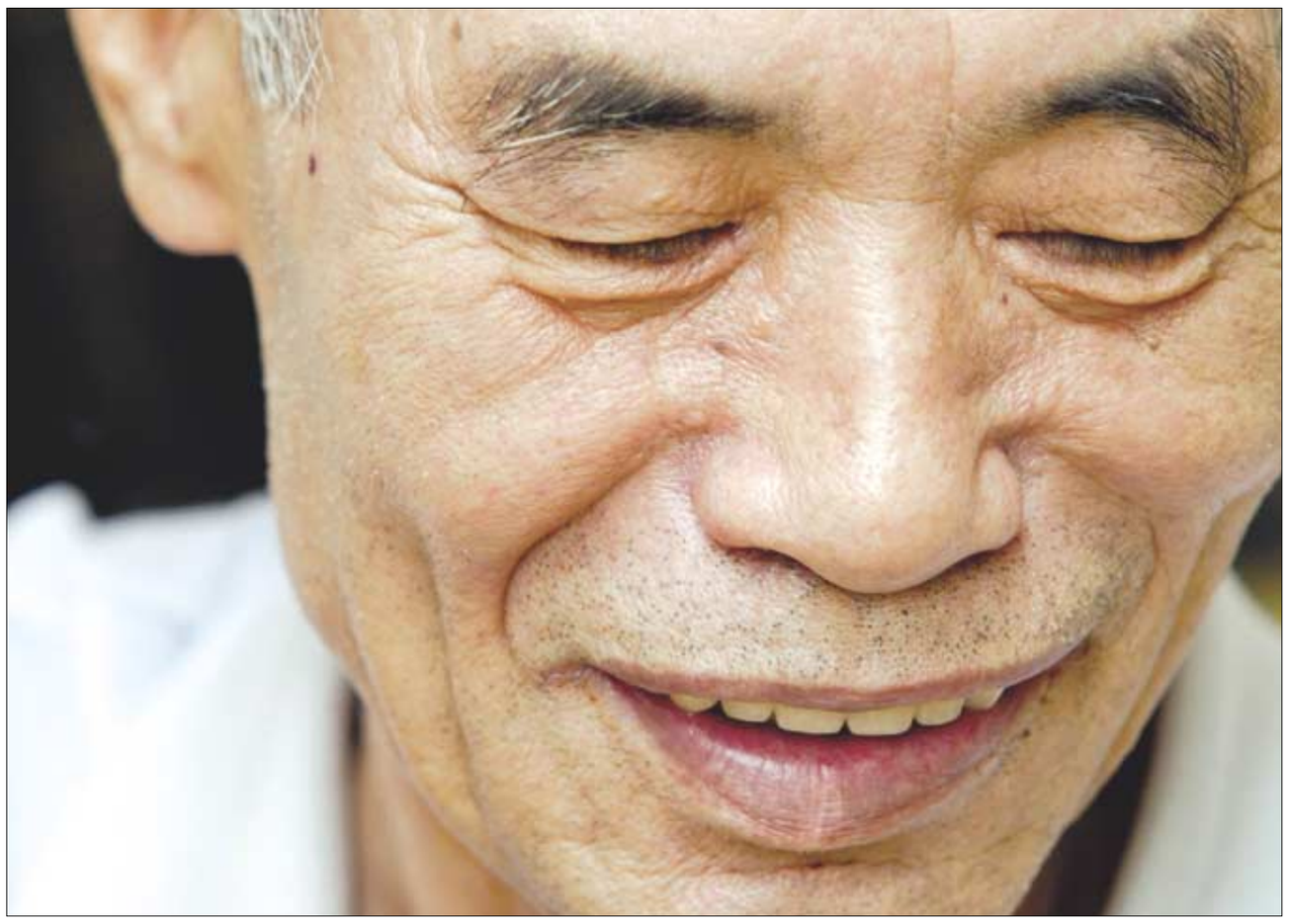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역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강물”

재야 사학자 **이이화** 씨



“역사 바로잡기는 역사가의 본령” 어릴적 배운 법성게, 평생의 거울 아차산에 고구려 박물관 추진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는 생떼에 불과합니다만 목소리가 크면 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 학계 · 시민단체가 하나 돼 고구려사 수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집필한 <한국사 이야기> 22권을 지난 5월 완간해내고, 요즘은 ‘동학농민혁명재단’ 발족 및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이이화(67)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동북공정(중국의 동북지역 역사 · 정세 연구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에 15만 군대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대군을 배치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 침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문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역사 기술에서 소외돼온 ‘민중’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고, 기존의 정치 · 경제 중심의 기술에서 탈피해 생활사를 부각시킴으로써 역사 서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재야(在野)’ 사학자다. 정규 역사학 교육을 받은 적도, 정식 교수도 아니어서 ‘재야’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산적한 일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잠적해서 역사서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라는 이이화 씨.

<주역>의 대가로 꼽히는 야산(也山) 이달(李達 · 1889~1958) 선생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이 고문은 부친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다. 유 · 불 · 선을 두루 섭렵한 척사 계열 선비였던 부친은 후천개벽 사상의 관점에서 <주역>을 이해했고, 용화세상을 꿈꾸던 인물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안면도 등지에서 직접 이상(理想) 공동체를 실험하기도 했다.

부친의 영향은 지대했다. 부친은 ‘학교에 가면 일본 놈 된다’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한학과 불교학을 가르쳤다. 특히 ‘법성게’는 몽땅 외우게 했다. ‘법성게’를 통해 화엄 사상의 정수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다. 덕분에 이 고문은 글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법성게를 다 외웠다 한다. 어릴 때 외운 법성게를 7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이 고문은 틈만 나면 외우며, 수양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특히 ‘허공 가득히 보배 비 내려 중생을 이익 되게 하나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機得利益)’는 구절을 좋아한다는 이 고문은 이 구절을 ‘성실히 노력한 만큼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역사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말한다.

이 고문은 또한 외래 문명을 거부하고 조선인이 살아왔던 고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며 비누 · 치약 · 약품 · 사진조차도 거부했던 부친의 ‘고집’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른 일이다 싶으면 절대 함께 하지 않고, 옳은 일이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야 마는 이 고문의 고집과 열정은 부친에 못지않다. 이 고문의 민중사관도 부친이 가르친 후천개벽사상과 무관치 않다.

그밖에 큰 감화를 준 인물로 이 고문은 허균과 정조, 그리고 원효 · 의천 · 보조 스님 등을 꼽는다. 시대 모순 해결을 위한 허균과 정조의 의지가 존경스럽고, 개혁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낸 원효 · 의천 · 보조 스님의 지혜가 값지기 때문이다. 무성한 개혁 논의 속에서 갈등만 커져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이 고문은 덧붙인다.

부친 덕에 어릴 적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1964년 불교계 신문 ‘불교시보’에서의 기자생활로 이어진다. 공초 오상순의 추천으로 시작된 기자 생활 기간에 이 고문은 전국 사찰을 돌며 유적지를 돌아보며 취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무렵부터 역사학자로서의 꿈이 싹트기 시작한다.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독재 등 시대적 모순이 중첩돼 있던 60년대, 모순 타파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 고문은 주저 없이 역사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다. “저의 역사연구 화두는 개혁과 평등이었습니다. 특히 시대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지속적인 개혁이야말로 역사발전의 조건입니다.”

자연히 그의 역사학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 실천을 지향했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올곧은 성품대로 역사의 그늘진 곳을 조명해 양지로 끌어올리는 짓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지금 그가 매달리고 있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 ‘동학농민전쟁 재단 발족’ 등의 활동은 그 가운데 일부다.

이처럼 실천이 뒷받침된 참된 역사학으로 후학과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고문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부인 김영희(55) 씨의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자기 것 챙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가진 것 내어 놓으며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남편의 욕심 없는 마음만큼은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역사연구밖에 모르는 외곬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김 씨는 20년간 불교를 믿어온 독실한 불자다.

현재 이 고문은 ‘고구려 역사문화재단’의 대표로서 구리 아차산 일원에 고구려박물관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회 내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안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설치되면 정치 논리에 휩쓸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산적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 고문은 다시 ‘잠적’해서 역사서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다. “바른 역사를 쓰는 것이야말로 역사가의 의무며 역사가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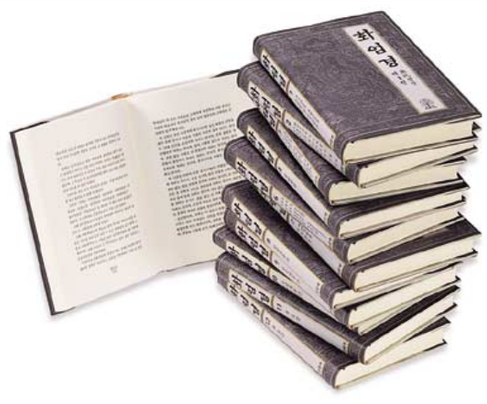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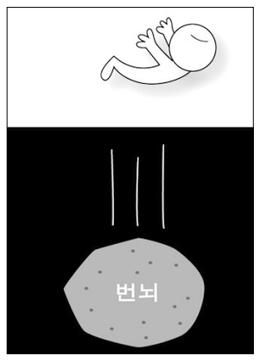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5>

사마타 수행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입니다. 지방에서 수행하던 3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혜 제일'인 사리풋타 존자는 이 비구들이 곧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도래했음을 알고 일부러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소 두 가지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종류의 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풋타여, 그것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니라." 그리고 게송으로 이렇게 읊으시었습니다. "두 법을 수행하여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수행자는 스스로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부처님의 설법 끝에 30명의 비구들은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선정을 닦는 일입니다. 신심이 아무리 깊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선정을 닦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생사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정 공부는 매우 다양해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그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집니다. 바로 부처님이 위에서 가르치신 사마타의 길과 위빠사나의 길이 그것으로 불교의 모든 선정 수행은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사마타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불자들은 상식적으로 3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서의 계학,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으로서의 정학, 지혜를 얻는 수행으로서의 혜학이 그것인데 이는 부처님이 중생들의 번뇌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삼단계의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는 바로 이 삼학 가운데 두 번째 정화 단계인 정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사마타란 말의 뜻은 번뇌와 망상이 조용히 가라앉아 그쳤다는 뜻으로 한자로는 지(止)라고 해석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요·평화에 도달

사마타를 닦게 되면 움직임이 없는 마음 상태의 삼매를 얻게 되는데 이 삼매가 깊어짐에 따라 수행자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들뜸 그리고 혼침과 나약함 등 다섯 가지의 장애가 사라져 무한한 기쁨과 충만 그리고 평온과 자유 더 나아가서는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제 8선정인 비상비비상처정 즉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선정'으로 아주 미묘하고 심원해서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경지가 아무리 높다 해도 번뇌가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궁극적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위를 한 차원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길 중에 위빠사나를 닦아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에 있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선원장

"염불선 바로 하면 우주와 하나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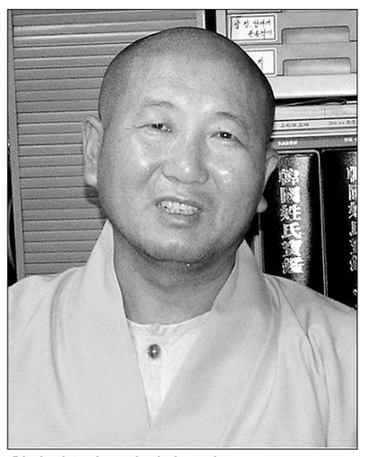
염불선으로 空 체험한 덕산 스님

충북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염불수행도 오매일여(寤寐一如)가 되어야만 견성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여당체(眞如當體), 자성(自性) 자리에서 하는 염불은 서방정토에 왕생하려는 정토염불과는 다르며 오히려 선(禪)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1982년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산 스님은 선방에서 정진하다 건강상 대중정진을 하지 못해 85년부터 염불수행을 시작했다. 92년 청화 스님(2003년 입적)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운 후 99년 8월부터 2000일 용맹정진에 들어가 이듬해 오매일여를 이룬 후 자성미타(自性彌陀)를 확인했다고 한다.

염불선으로 공(空)을 체험했다는 덕산 스님은 자성자리는 '한마음(一心)'이라 부를 수 있으며, '우주적인 생명 에너지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8월24일 저녁, 덕산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이 무엇이며 어떤 점이 선(禪)과 같은 지를 여쭤보았다.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진여당체에 마음 두고 소리내지 말고 빠르게 쉼없이 정진하면 염불선 이뤄

▲염불선을 정의하신다면?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만약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수행법입니다. 본래 나의 '생각이전의 자리'가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가 우주의 진여당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 지장보살과 여타 불 · 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염불선을 선(禪)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은?

—간화선의 경우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고 화두를 참구할 때 바로 활구(活句)가 될 수 있습니다. '이뭣고' 할때 그냥 '이뭣고'가 아니라 '이뭣고'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는 화두가 활구입니다. 염불 또한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고 염불할 때 염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력이나 간경 또한 마땅히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는 정진이 돼야 합니다.

▲염불선과 간화선에서 말하는 선(禪)이란 무엇인가요?

—선(禪)은 부처님 마음이기에,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유 · 무를 떠난 자리, 나의 본래자리라 해서 즉심시불(卽心是佛) 즉 '마음이 부처'라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부처라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전의 자리가 선이며, 부처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이며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로서 우주를 머금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과거천불, 미래천불, 현재천불, 역대 조사스님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이며 산천초목 삼라만상의 본래자리인 것입니다.

▲염불선의 구체적인 행법은?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내서 한다면 삼매를 얻기 힘듭니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 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매일여가 돼야 하나요?

—오매일여란 진여당체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득력하고 정진력이 생기며 오매일여가 가능하죠. 단, 육신에 끄달리는 평상시 습관을 끊어야 가능합니다. 육신은 무시이래 편안한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뒤로 미루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철저하게 물리쳐야만 해요. 끊임없는 정진으로 오매일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바른 수행의 길이 보일 겁니다.

▲삼매의 상태를 쉽게 풀이하신다면?

—삼매는 우주와 하나된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의문이 끊어진 경지, 다시 말해서 무명(無名) 무상(無相) 절일체(切一切)의 경지를 뜻합니다.

▲진리의 당체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자리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여당체는 문자와 언어, 시간과 공간, 어떠한 분별이나 유 · 무를 떠난 자리입니다. 진여당체는 물질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모양이 없다 하여 아주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유가 아니며 또한 모양이 없다고 하여 아주 없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을 있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며 없다고 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이 도리를 중도 곧 진여, 법성, 불성, 주인공, 부처 라고 방편상 이름지을 뿐입니다.

▲본래의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반야가 열리게 됩니다. 경전과 선어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지혜가 열려야 보살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나의 참모습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늘 당체와 하나가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본래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서 익혀온 습을 녹이는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보살행을 닦았듯이) 보임(保任)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재가 수행자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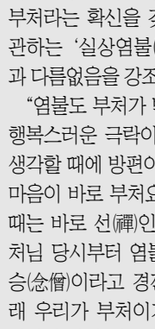
—염불은 근본 진여당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맑은 파장입니다. 특히 삼매경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거운 업도 맑힐 수 있는 좋은 파장입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지 않더라도 염불자체가 좋은 파장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업이 점점 맑혀져서 결국 나의 본래 진여당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가정에서 염불선을 바르게 꾸준히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업을 녹이고 가정을 맑히며 세상과 우주를 맑히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 혜은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

염불하는 자성 참구 "내 마음 부처일때 禪"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역임)은 불자들에게 어느 한 수행법을 강조하지 말고 각기 근기와 취향에 맞게 참선, 염불, 묵조선, 주력 등으로 정진할 것을 가르쳤다.

특히 스님은 화두참구 우위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정의(知情意)를 조화시킨 수행법으로 '염불선(念佛禪)'을 본격적으로 주창했다. 선종에서도 선과 염불을 함께 닦을 것을 말한 조사들은 많지만 '염불선'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스님이 처음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행법이 우리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염불법이라 설하신 스님은 염불에 화두를 붙여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구하는 방법과 본래의 자성이 부처라는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이 화두선과 다름없음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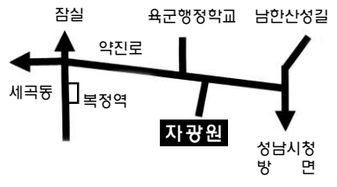
"염불도 부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스러운 극락이 십만억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방편이 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만법이 본래 부처일 때는 바로 선(禪)인 것입니다. 염불은 부처님 당시부터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이라고 경전에 다 나와 있고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또,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염불은 따지고 보면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부처가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선(禪)이 됩니다. 그런데 깊은 고려 없이 염불은 하근기(下根機) 중생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공안선, 묵조선, 염불선 이런 수행법에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역설하는 것입니다."(청화 스님 법어에서)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세영 Hi-Power 剪定(전정) 제품 set !
사찰 화단관리, 과수원관리 걱정 끝


set 내용 및 가격
● 105set : ① +④ +⑤ +⑥ - 48,000원
● 205set : ① +③ +④ +⑤ +⑥ +⑦ +⑩ - 75,000원
● 305set :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100,000원
● 별도품목 : 고지 절단 가위 톱 겸용 (3단 3m) - 45,000원
※ 단체 주문 시 필요한 사양을 맞추어 드립니다.(카다로그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람)
추천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각 사찰과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제품은 생산 판매하는 세영산업에서 직접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보내드리며 판매 이익금은 군불교 포교 발전에 쓰여집니다.
군불교 후원 사찰 대구 정토원 고봉 합장 / 053)984-0409
세영산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372번지
주문전화 053)358-1841,1843 / 핸드폰 011-528-2309
농협계좌 : 712-01-068522 예금주 윤희택(大鏡)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本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개강과 개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각종 기관의 문화강좌들이 대거 오픈하는 달이다. '새 마음'을 꿈꾸며 뭔가 색다른 경험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요가·명상 강좌에 참여하며 삼매의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청명한 가을 요가와 함께


순산을 위한 요가강좌에 참석한 임산부들.


청소년을 위한 요가 강좌에 참여중인 경기예고 학생들.

각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시군구 회관 등 9월부터 강좌 대거 오픈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수업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소화하고 싶다면 각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를 이용해 보자.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요가열풍에 힘입어 평생교육원의 요가 강좌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심신수련에 대한 수강생들의 높아진 수준을 반영하듯 수업 역시 밀도있게 진행된다. 특히 상명대 평생교육원은 세계 최초의 요가대학인 인도 비하르 대학에서 요가를 전공한 요가전문가 유성숙(전 파라 웰빙 요가센터 원장)씨의 지도 하에 요가 니드라(요가의 잠) 등 독특한 수업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요가강좌를 접하고 싶다면 문화센터를 찾는 것도 좋다. 중앙일보 문화센터를 비롯해 현대·롯데·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요가 강좌를 내놓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태교요가,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교감요가, 5세 미안의 유아들을 위한 베이비 요가, 노년층을 위한 실버 요가 등 맞춤식 요가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또한 참선도 함께 배우는 선요가와 인도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응용한 아유르베다 요가 등의 강좌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회관의 요가강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심신 안정' 실속을 챙길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강신재 기자


물구나무서기 체위를 연습중인 요가수련생들.

평생교육원

장소	강좌명	시간·요일	수강료	마감	개강	전화번호
강남대	웰빙 요가	화 15:00~17:00 화 18:30~20:00	15만원(15주)	9/3	9/6	(031)2803-441~4
건국대(충주캠)	음양오행요가	금 18:20~20:00	15만원(15주)	8/31	9/4	(043)840-3242
계명대	요가	금 12:00~13:00 월 19:00~20:00	10만원(15주)	8/31	9/6	(053)620-2293
광주대	요가와 명상	화,목 15:00~17:00	13만원(15주)	8/26	8/31	(062)670-2167
부경대	요가	금 19:00~21:00	12만6천원(15주)	8/31	9/3	(051)620-6785
부산대	움직임을 위한 요가	수 14:00~16:00	10만원(15주)	8/30	9/1	(051)510-1234
부산카톨릭대	웰빙 건강요가	화① 10:30~12:30 화② 17:10~19:10	15만원(15주)	9/1	9/6	(051)510-0699
상명대	요가	화 10:00~12:00	18만원(15주)	9/1	9/7	(02)2287-5289
아주대	요가	화목 18:30~19:30 화목 19:40~20:40	18만원	9/1	9/13	(031)219-1564
인하대	생활요가	화금 19:00~20:50	15만원(15주)	8/31	9/3	(032)860-8292~6
원광대	요가와 단전호흡 태극권	수 18:00~21:00	12만원(15주)	9/10	9/8	(063)850-5512~4
진주산업대	생활요가	①화금 10:00~11:30 ②수금 18:40~20:10	12만원(12주)	9/1	9/2	(055)751-3530~1
청주대	명상	수 10:00~12:00	10만원(15주)	8/31	9/1	(043)229-8878
한남대	요가	월금 10:00~11:30	13만원(10주)	9/3	9/6	(042)629-7780

문화센터 및 공공기관

장소	강좌명	시간·요일	수강료	마감	개강	전화번호
노원구청	요가	월수 2:00~3:00	무료(12주)	8/27	9/1	(02)950-3100
서귀포시 여성회관	생활요가	월수 14:00~15:30	2만원(8주)	8/25	9/1	(064)763-2950
용산문화원	건강요가	화목 12:40~13:40	6만원(12주)	9/1	9/1	(02)703-0052
김제시 여성회관	요가	월수 10:00~12:00	1만5천원(12주)	9/4	9/6	(063)540-3591
중앙문화센터 (본점)	정강주의 건강요가	금 10:00~11:30 화 14:00~17:50	11만원(12주)	9/1	9/7	(02)776-4414
중앙문화센터 (인천 계산점)	임산부를 위한 태교요가	토 11:30~12:20	12만원(12주)	9/1	9/7	(032)547-4221
중앙문화센터 (부산해운대점)	선요가·선기공	목 15:10~17:40	8만원(12주)	9/1	9/7	(032)741-3980
신세계 문화센터 (강남점)	아유르베다 요가	①월 12:00~13:10 ②월 13:15~14:25	9만원(11회)	9/6	9/7	(02)3479-1500
신세계 문화센터 (영등포)	실버요가	월 9:50~10:50	7만원(11회)	9/7	9/7	(02)2638-1500
신세계 문화센터 (영등포)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교감요가	월 10:30~11:20	3만5천원(11회)	9/7	9/7	(02)2638-1500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선의 세계 57

교외별전(敎外別傳)- 17

깨달음·반야·진리 모두 한마음으로 통해 내 마음이 세상의 진상 담을 때 '이심전심'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교외별전이라는 구절 뒤에는 흔히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이 따라온다. 문자를 인정치 아니하고(불립문자 · 不立文字), 문자로 전해지는 가르침 이외에 뭔가 다른 경로로 전해오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교외별전 · 敎外別傳), 무엇을 통해 무엇이 전해지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바로 이 대목이다.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는 것으로 교외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마음이라는 말은 인도불교사상에서도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중국불교사상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특히 많이,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그 용례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을 자세하게 파헤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제쳐놓고 좀 단순한 이해를 구해보기로 한다.

이심전심이란 직역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말이다. 통로가 되는 마음은 누구의 어떤 마음이며 전해지는 마음은 누구의 어떤 마음인가? 통로가 되는 것은 부처님과 나의 마음일 터이다. 말이나 문자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얘기이다. 경전에 문자로 고착화된 가르침을 통해서는 진리가 고스란히 전해지지 못하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겠다. 그리고 전해지는 마음이란 곧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깨달음 체험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다.

선종에서 이심전심의 효시가 되는 사건으로 흔히 거론하는 것이 이른바 염화미소(拈華微笑)의 에피소드이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영산(靈山)에 불러 모으고는,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들고는 말없이 약간 비틀어 보였다고 한다. 여느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섭(迦葉)만은 그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다는 얘기이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떠올리는 개개인의 마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마음이라 하면 깨달음, 반야(般若)와도 같은 뜻이고 세상의 진상 전체를 담은 뜻이다. 개개인의 마음도 그 속에 녹아있다. 마음이 개인의 마음으로만 일하고 있을 때에는, 간혹 서로 통하는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세상의 진상 전체를 담을 때에는 어느 누구, 어느 무엇의 마음과도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 말이나 다른 어떤 매개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달리 말해 저절로, 뜻이 통하려면 모두가 한마음이어야 한다. 그 한마음이란 이를테면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깨달음, 반야, 세상 전체를 담은 진리 그 자체이다. 거기에 동참하는 이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일 뿐 아니라 보편자의 마음이고 세상 전체가 공유하는 마음이니 누구와도 다 통한다.

아무튼, 이심전심이란 그러니까 경전의 문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세상의 진상을 깨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 체험을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체험이 전해진다. 나의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이어지고 재생산된다. 석가모니의 시대에서 수 천 년이 지난 뒤에 그와는 다른 인종으로 다른 땅에서 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직접 깨달음을 체험하고 깨달은 마음을 가질 때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고스란히 내게서 발현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무료특강

퇴마사(退魔士) 양성과정

천도와 제령에 관한 특수비법 공개

특강안내

◆ 강의일시 : 2004년 9월 4일 오후 2시~4시
◆ 지도강사 : 법관선생
◆ 장 소 : 서울 수유동 연구소

◆ 문의 및 신청 ◆

02)996-6156 / 051)817-6156
H.P: 017-553-6156

동방파동명상연구소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불교장례학과 불교한문학과 신입생 모 집

불교장례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의례(喪葬儀禮),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불교장례학과
2년과정 : 2004년 9월 14일(화) 오후7시개강

교과목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 · 종교의례 · 불교의례실습 · 보건법규 · 장묘제도론 · 사회복지개론 · 장례경영론 · 임종론 · 불교상,장례문화이해 · 실습 · 견학 등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정규반,통신반 2004년 9월 9일(목) 오후7시개강

과 목	· 장자 (1),(2) · 한문법 (1),(2) · 명심보감, 역경 ·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모집인원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장례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불교한문학과)

원서 교부 및 문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성불사중창불사회향법회안내

삼보님께귀의합니다

무더운 삼복의 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다가오는 계절
불자님들의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무량 공덕으로 성불사 중창불사를
원만히 회향코져 하오니 다소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인연을 맺으시기를 발원합니다

성불사 주지 혜원 합장

일 시 : 2004년 9월 12일 (음 8.28) 오전 10시
장 소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성불사 대웅전
연락처 : ☎ 051)292-6818

대한불교본원종 부산 성불사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0) '달라진 언어'를 수용하는 혁명을

육조 혜능이 일자무식이었다고?

옛 한문 고전을 읽혀 보면, 학생들이 도무지 '번역본'을 읽을 수 없다고 불평입니다. 유교 경전이나 불경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역본이나 중국어 역본,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던져 주어 보게 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국어 역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역본은 구절구절의 '주석'이 상세하고, 문장의 '구조'를 뚜렷이 알게 해 주며, 적절한 '맥락'과 '배경'을 보여 주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작 문장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이 점에서 영어 번역본이 단연 탁월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 번역본들을 통해, 해당 '문장'의 의미를, 적어도 애매한 구석 없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한문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은 영어권의 학자들이 특별히 학문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접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가 한문이나 중국어보다 더 우리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한문이나 중국어보다, 그리고 우리네 조상들이 19세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써오던 말보다 훨씬 더, 영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이 전통식 훈고나 언해보다도 영어 번역이 '이해'하기 쉽다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19세기 후반에 근본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은 이전의 한자어나 우리 고유어가 아니라, 일본이 서구의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 창안한 '번안어'들과 거기 걸맞는 '어법'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문의 기사나 칼럼, 학교의 교과서 한 꼭지를 펼쳐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단락에서부터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기' '후반' '근본적' '변화' '이전' '고유' '서구' '근대적' '문물' '창안' '번안어' '어법' '형성' '신문' '기사' '컬럼' '학교' '교과서' '단락' '점' '확인'…. 이 말들은 한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쓰던 한자말이 전혀 아닙니다. 원효나 지눌, 퇴계나 율곡에게 이 한자어를 들이댄다면,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 한자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자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전통 한자가 아닌 근대적 '신조어'들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은 거의 의미의 손실 없이 서구어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들이 원래 서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들을 영어로 대치하면 이렇습니다. century, latter, fundamental, change, earlier, unique, western, modern, civilization, creation… etc. 한문공부를 하시는 분 가운데는 위의 목록에서 가령 '고유(固有)'라는 한자어를 끌어내 이 말이 <맹자>에서 쓰이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쓴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미는 '본질적인'이라는 뜻이지, '독특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적 한자어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적 번안어로 재활용되기는 했지만, 그 둘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의미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용법의 차이를 넘어, 전통과 현대 사이의, 동양과 서양 사이의 서로 다른 세계관과 엇갈리는 가치관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自然)이 세계관의 차이를, 권리(權利)가 엇갈리는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 또한 본격 논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언어를 혁명적으로 수용해야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옛 적의 한문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적 한문은 지금 영어보다 훨씬 낯설고 이질적인,



흡사 그리스어나 이집트어 같은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정말 깊이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달라진 언어'를 전폭 수용하는 혁명적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불교 한문을 그대로 들이대면 대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의미를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했다고는 못합니다. 어림하니 짐작은 하겠지만, 그게 진정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그만 아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는 그 말의 피와 살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뼈와 골수는 결코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악이 안 되고 겉도는 사이에, 불교가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빈 자리에 이방인 포교사들의 목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포교사들의 성공신화, 그 비결을 한국불교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비결은 그들의 수행력에 있다기보다 그들이 쓰는 '언어'의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에 가까운 '영어'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일상의 체험' 위에서 정직하게 설파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인기와 호소력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영어와 외국인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당대의 언어에 철저했던 육조 혜능

육조 혜능이 선의 실질적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저는 그 '당대의 소통'에서 찾습니다. 주변의 선지식들이, 삼장법사 현장처럼, 다들 인도의 원전에 조회하고, 전통적 학문 언어를 고집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인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신의 체험으로, 당대의 대중들과 현장에서 소통해 나갔습니다. <육조단경>을 펼쳐 보십시오. 그 언어는 우리가 경전이나 논소에서 보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가히 파격적인 구어를 쓰고 있습니다. 촌스럽지요. 거칠고. 그러나 얼마나 생생한 육성입니까. 그의 <금강경> 해설은 자신의 체험을 당대의 대중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그들을 진리에의 길로 이끌겠다는 간절한 노파심으로 사무쳐 있습니다. 그의 <금강경> 해석이 구결(口訣)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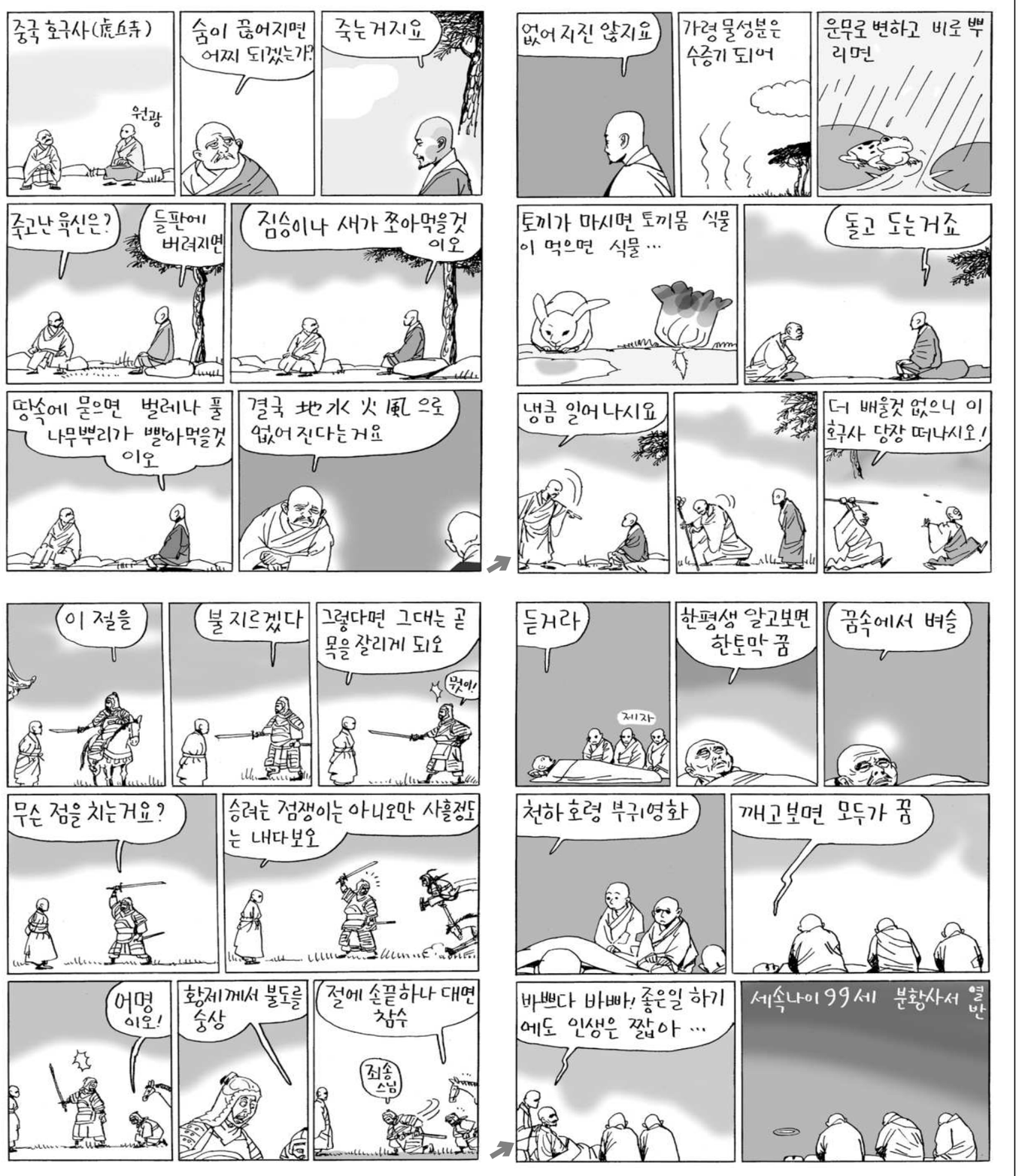
그는 일자무식(一字無識)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 불교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안목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혜능의 이런 과격한 탈전통이 없었다면 중국불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의 그 화려한 개화 또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혜능의 그 방편(方便)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혜능의 언어와 저작을 오랜 전통으로 묵수하는데 있지 않고, 혜능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체험에 입각하여, 지금 소통되는 당대의 현장 언어에 철저해 나가겠다는 서원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㉝ 원광 법사의 '꿈'

조태호



원광(555~638): 신라 중기의 스님. 화랑도의 세속 5계를 지었다. 중국(진나라) 금릉 · 장안 등에서 유학. '여래장경사기' '대방등여래장경소' 등 저술.

네티즌 교리문답

상덕(常德)의 뜻은?

문 열반사덕에 상(常), 락(樂), 아(我), 정(淨) 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존재는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상덕의 '상'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열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ID '신심행')

답1: 상(常)은 현상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무명(無明)으로 보면 늘 변화해서 다른 것 같지만 명(明)으로 보면 다 상(常)이요, 한 순간도 열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늘 변화 하는 것 같지만 파도는 단 한 순간도 물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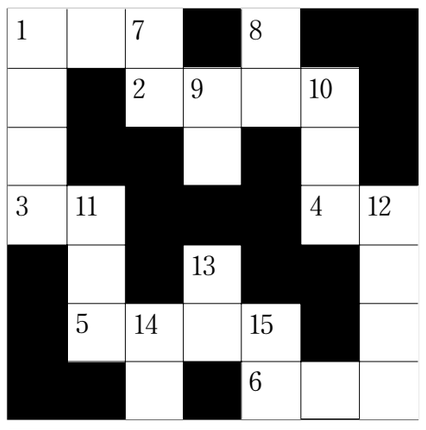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행님이 열반사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상(相)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만 버린다면 그게 바로 상이요 락이요, 아요, 정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것은 늘 이대로 다 상(常)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는 이가 본다면 생멸(生滅)이요, 무상(無常)일 뿐입니다. 늘 열심히 자기의 상을 버리세요. ('법설')

답2: '상락아정'은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불교의 이상 세계인 열반이 지닌 네 가지 큰 덕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상덕'은 부처님의 누리시는 열반의 경지는 '항상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중생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열반의 부처님 세계는 나고 죽음을 벗어나 영원, 그 자체입니다. 무상이 아니라 항상이며 유한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살로메')

답3: 부처님이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상하고 무아이며 고로구나 이렇게만 알아버렸지요. 또 공(空)이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열반을 꺼진 불에 비유하니까 '허무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 버렸지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공(空)과 불공(不空), 진공(眞空)과 묘유(妙有), 이(理)와 사(事)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중생은 무엇을 말하든 말에 집착하니까요. 열반도 무상, 고, 무아 대신에 상, 락, 아, 정이라 말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모두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지요. 지금 대승에서 양변을 같이 말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중도는 양변을 떠나는 것이지요. ('후박나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산다는 열 가지 것 2. 거짓말을 금한 계율 3.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장소와 시설을 빌려 주는 곳 4. 토지 가격 5. 정약용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 · 토지제도 ·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한 책 6. 높은 물가.

세로 1. 연기설을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 등 12가지로 설명한 것, ○○○○설 7. 살아있는 부처 8. 어린 물고기 9. 사람 나이 81살을 표현한 말, 90을 바라본다는 뜻 10. 한 해에 네 번 발간하는 간행물 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다른 이름 12. 히말라야 산에 살며, 그 울음소리가 곱고, 극락정토에 둥지를 튼다는 새 13.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14. 가랑비의 한자어 15.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 100배 알기

자연을 닮은 영혼 인디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메리카 인디언(American Indian)을 서부영화나 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거칠고 호전적인 야만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 원주민의 이름을 인디오(Indio: 스페인어로 인디언이란 뜻)라 부른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름은 뜻하지 않게 인디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는 백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문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속에 자연과 야생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백인들이 만들어낸 오만과 편견의 현대사를 거치며 그들의 순수한 삶과 역사는 사라졌지만, 이제 인디언은 조화로운 인간의 전형으로, 자연의 사상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귀함을 간직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의 지혜와 사상을 배우고자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인디언의 영혼
오히예사 지음 | 류시화 옮김
오래된미래 | 1만1천원

하지만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대에 이 책이 더욱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은 그들의 드높은 기상과 용기, 올바른 정신을 보다 새롭게 승화시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좀더 내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다.

인디언으로 태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했던 저자 오히예사는 아버지에 의해 '찰스 이스트먼'이라는 이름을 달고 백인사회에 편입했다. 그는 보스턴 의대를 졸업하고 최초의 인디언 출신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나, 무고한 인디언들이 백인들에 의해 살해된 '운디드니 대학살 사건'을 경험하면서 보호구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바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 때부터 그는 어릴 적 이름 오히예사(승리자)를 되찾고, 보호구역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인디언들을 진료하면서 인디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중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오히예사는 이 책에서 인디언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서술로 이끌어낸다. 자연에 대한 막연한 신비가 아닌 실체적 삶에의 의지와 영적인 교훈들도 들려준다. 또 아기를 가진 인디언 여성의 태교부터 아이의 탄생과 교육, 놀이, 그리고 인디언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와 도덕관념, 종교, 전통에 이르기까지, 인디언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었으며, 고결한 정신세계를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강조하고 있다.

오히예사가 어린 시절 사촌 여동생 오에세다와 토론한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인디언 교육법의 좋은 예이다. 할머니는 두 어린아이에게 "도마뱀은 어떤 부족에 속한 동물이지?" 하고 질문한다. 두 어린아이는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예사는 도마뱀을 구체적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인디언에게 교육은 온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자연에 있다. '위대한 신비'라는 절대자는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 자연이 신전이며, 바람이 그의 손길이다. 어머니 대지와 위대한 신비가 펼쳐놓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디언이 사는 방식이다.

인디언의 언어에는 문자가 없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신비가 깃든 자연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겼다. 인위적인 이름표가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디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은 시간에 대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그들에게 시와 분으로 쪼개진 시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 만나러 올까요?"라고 묻는다면 "해가 저 나무에 걸리면"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시간을 자연스러운 것, 혹은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시간은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시간을 대하는 인디언의 태도와 그들의 말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 **인디언 여성의 태교=** 인디언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순결한 언행과 명상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열려 있는 영혼에게 그가 '위대한 신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눈동자에 새기며 홀로 생활하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삼는다.

● **인디언의 교육 =** 인디언들에게 학교 건물과 책과 정기적인 수업 시간은 없다. 하지만 인디언 아이는 자연의 방식으로부터 배움을 얻었다. 숲이 곧 학교였다. 언제나 자연 세계와 가까이 접촉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 생명체들과 다정다감한 관계를 맺는다.

● **인디언 사회의 규율=** 인디언들의 일반적인 생활 규칙은 진지함과 예의 바름이다. 인디언들은 누구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유물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습관적으로 조용하고 질서 있고 단정한 태도를 지켜나간다.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음식과 성적인 관계를 엄격히 절제하는 한편, 꾸준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킨다. 특히 금식 수행과 함께 육체를 지치게 함으로써 지나친 성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

● **인디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 여성의 위치가 문명의 척도라고 얼굴 흰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인디언 여성만큼 확실한 위치를 차지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도덕성과 혈통의 기준이 여성에게 주어진다. 아내는 남편의 이름이나 남편 부족을 따르지 않으며, 아이들은 엄마쪽 부족에 속한다. 가족의 모든 재산이 아내 소유이고, 모계를 따라 혈통이 이어진다. 그리고 집안의 명예는 부인의 손에 달려 있다.

● **인디언의 종교=** 인디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들은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디언들은 태양을 숭배한다. 인디언들의 눈에는 태양과 대지가 명백히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우주의 아버지인 태양은 자연의 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신은 다만 이 대지 위에서 올바르게 살고 겸허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자신의 품 안에 받아들일 뿐이다. 그것이 인디언들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전문기 서평



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1만원

정말 요즘같은 시대에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년 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를 얘기한다니, 책 제목부터 솔깃했다.

이 책은 대표적인 경제논객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씨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체된 한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시장 논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 · 기업 · 국가는 냉철하게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특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10년 뒤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주력산업 변화와 차이나 쇼크, 노동조합 약진 등 경제현상부터 진보와 보수의 갈등, 대미 외교, 세대간의 문제까지 아우르면서 한국이 투자국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낮아지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며 다국적 기업과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낙관론자가 본 어두운 미래경제

청년실업, 남들보다 먼저 해외로 눈돌려라

이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정치논리 등에 위협받으며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잃기 때문. 따라서 자유경쟁과 시장논리를 회복하고 집단보다 개인, 민족주의보다 글로벌리즘, 하향평준화보다 경쟁을 통한 상향평준화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경우에도 '미래는 주어지는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는 개인과 시장의 가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우 개인이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 전통이 역사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근본 기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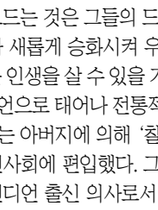
그것은 다름아닌 새마을 정신중의 하나인 '자조(自助)정신'이다.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졌던 아버지 세대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정신은 '나눠먹기'로 바뀌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향후 10년에 대해 이렇게 전망한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진보 진영은 득세한다. 어쩌면 이런 득세는 10년 이상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의 충고중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한국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나는 직장이 호텔인 탓에 외국인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대한다. 가끔씩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 굳이 10년까지 안가더라도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방향을 선회해서 남들보다 10년먼저 해외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은 어떨까.

■정해손 (프레지던트호텔 지배인)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苦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화장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 · 효림 ·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 · 허주 · 수완 · 정운 · 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반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부처님 말씀의 길잡이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행복요리법
마티유 리카르 지음
백선희 옮김
현대문학 | 1만5천원

행복은 어디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 서점에는 '행복론'을 소개하는 책이 넘쳐나고 백화점이나 가게에서는 '행복'에 관한 상품이 무수히 팔려나가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행복요리법>은 불교와 서양 철학, 인지과학, 심리학, 뇌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행복'의 의미를 밝혀내는 책이다. 지은이는 촉망받던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티베트로 떠나 33살에 출가한 프랑스 출신 마티유 리카르(58). 얼마 전 철학자인 아버지 장 프랑수와 르벨과 나눈 대담집 <승려와 철학자>(이끌리오)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그는 현재 달라이 라마의 통역을 맡고 있고, 불교 경전의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행복이란 어쩌다 가끔 선물을 받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

과학자의 길 버리고 출가한 佛 출신 스님의 행복찾기

리가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적 평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타심(利他心)을 강조한다. "겸손은 근본적으로 타인들과 그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태도"라는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높은 공격 성향을 보인다는 사회심리학연구를 인용하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결국 한 개인의 행복은 이기적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지향할 때 함께 얻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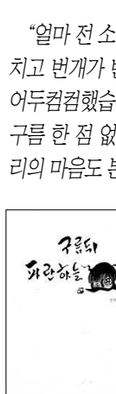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완벽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참된 본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베레스트산을 오르기 위해 반드시 네팔의 한적한 시골에서 출발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교통이 혼잡한 서울 한 가운데서도 출발할 수 있다"며 "조급하기만 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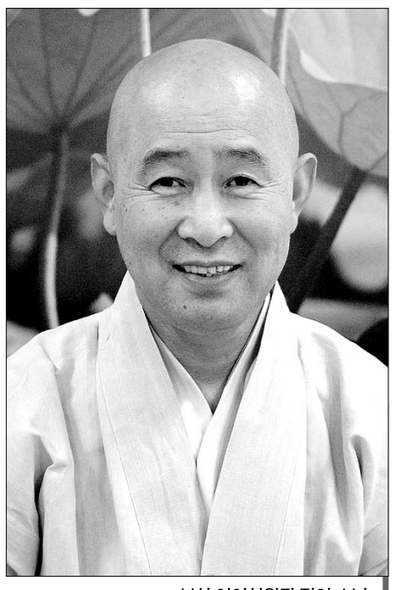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얼마 전 소낙비가 쏟아지는 오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하늘은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창문 밖을 내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가 파란 하늘인 것입니다."



구름 뒤 파란 하늘 2
정여 스님 지음 | 혜성출판사 | 8천5백원

고뇌 구름 걷어내고 맑은 마음 엽니다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삶의 여유 전하는 간결한 법문 직접 그린 선화와 함께 담아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이 생활 속의 여유를 전해주는 글을 모은 책 <구름 뒤 파란 하늘 2>를 펴냈다.

티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에 탐내는 구름, 미워하고 원망하는 구름을 스스로 만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짚어낸 스님은 "우리가 일으킨 갖가지 생각은 파란 마음에 일으킨 구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뇌 구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밉고 괴로운 생각이 맑고 깨끗한 하얀 마음에서 일으킨 마음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실린 150여 편의 글은 1997년부터 98년까지 부산불교방송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이란 프로그램에서 법문한 내용이다. 이번에 펴낸 책은 98년 법보시용으로 발간됐던 것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다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스님이 직접 그린 선화(禪畵)도 글과 함께 어울려 잠시 쉬어갈 여유를 마련해 준다. '성내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입니다' '늘 진리에 의지해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 간결한 법문에 어울리는 그림들이 책 읽는 맛을 더한다.

정여 스님은 범어사에서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범어사 강원을 수료하고 2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지난 10여 년간 일선에서 부산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과 보현장학회 이사장, 부산불교교사대학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극단의 형벌>**(스콧 터로 지음, 정영목 옮김, 교양인, 1만2천원)=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인가? 미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 스콧 터로는 이 책에서 사형제도의 비인간성과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지은이는 법률가로서 자신이 직접 다룬 여러 사형 사건과 일리노이 사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사형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한 경험을 소개한다. 최근 '사형폐지특별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 **<예수님은 독실한 불교 승려였다>**(석파 스님 지음, 비래사)=대전 비례사 주지 석파 스님이 펴낸 20여 페이지의 소책자. 스님은 예수가 <신약성서>에 나타나지 않는 13세부터 29세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주장한다. 민희식 교수의 <법화경과 신약성서>의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011)455-1290



■ **<기독교는 정말 진리일까?> <격암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하비결은?>**(김하원 지음, 도서출판 인언, 각 1만원, 1만5천원)=종교와 철학에 관한 저작을 쓰고 있는 김하원 씨가 예언서 <격암유록>을 비롯해 <정감록>, <송하비결>의 진위 여부와 예언의 정확성 등을 파헤치고 있다. 지은이는 이러한 예언서들이 후대 신흥종교단체들이 지어낸 위서(僞書)라고 주장한다.





중생의 아픔 보듬는 두 시인의 마음

칡꽃이 필 때 만난 사람 진관 스님 시집 | 자주민보 | 1만원
이 길이 나는 좋아 해운 스님 지음 | 세손 | 5천원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두 권의 시집이 나왔다. 서울 해인선원장 해운 스님의 <이 길이 나는 좋아>와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의 <칡꽃이 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길이 나는 좋아>가 각박한 도심 속에서 상처받고 고뇌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달래준다면, <칡꽃이 필 때…>는 이른바 '여순반란사건'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진관 스님

"여순 반란 이라는 비극에 대하여 말하려는 순간에/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나를 슬프게 한다./기억하라 기억해 내라 눈물로 기억해 내라"('여순 반란 이라는 비극에 대하여' 中)

진관 스님이 펴낸 <칡꽃이 필 때…>는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쓴 시 110여 편이 담겨 있다. 스님은 "지난 1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처럼 '여순반란사건' 또한 관련법 제정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수, 순천, 구례 등지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이 시를 바친다"고 밝혔다.

"우리는 형제이고 부자였었지/ 서로가 잘났다고 했었지/ 그래서 싸우고/ 원수가 되고 가난한 거지가 되었었지"('IMF 시절 우에노 공원' 中)나 "지구촌 사람들/ 이라크 나라/ 평화의/ 봄이 오기를 노래 부릅니다"('언제쯤 평화의 봄이 될까' 中)에서처럼 해운 스님의 시는 분단이나 경제난, 전쟁 같은 현실의 아픔을 노래한다. 동국대 홍신선 교수는 "스님의 시심(詩心)을 통해 불교가 도구적 이성의 폐해를 줄이고 뭇 생명 있는 것들의 공존, 화해의 삶을 추구하는 대안사상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불교용어는 쉽게 풀이했고, '공존'과 '허공에 꽃이 핀다' 등의 시는 현각 스님의 번역본을 함께 실었다.



해운 스님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3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4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5	참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6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림원
7	붓다 그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외	무우수
8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9	예세조켈	예세조켈	김영사
10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아직도 몰라요? 이제 그만!!
"이럴 수가??? 이제야 속 시원히! 확실히! 알았다."
도서출판 인언
☎ 02) 702-6008
F) 02) 712-4933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진리일까?」
「한쪽 뺨 맞고 성질내신 예수님」 개정판 302쪽 / 10,000원



"내용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선물하려고 한다."
(한 독자분이 읽은 후, 세 권을 더 사 가면서)
"재미있더군요. … 3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ID: 행복한 딸기)
• 왜 서양의 많은 유명 철학자, 지식인들조차 차라리 미신이라고 했을까?
• 왜 서양인들은 기독교를 이제 거의 버려가고 있을까?
• 왜 기독교는 미신일까? 이 한 권이면 의문점, 논쟁, 불화 모두 끝입니다 !
한 번 읽고는, 아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는 분도 많습니다.
성경의 오류 / 기독교인의 억지와 기만 / 교리의 억지와 모순 / 거짓 예언 인용 / 예수조차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 / 볼테르 · 루소 · 톨스토이 · 러셀 · 토인비 등 많은 서양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등등 짧고 재미있는 105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

격암유록은 가짜 정감록은 엉터리 송하비결은?
440쪽 | 15,000원

비결서, 예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
• 450년 전의 신비한 예언서, 위대한 민족의 경전이라는 「격암유록」은 왜 100% 가짜인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요즘 시중에 나도는 춘산채지가, 초창록, 원효결서, … 율곡비기, 송하비결 역시 모두 가짜. 엉터리
• 신문, 잡지에 자주 오르내리는 도인, 예언가, 무속인들의 예언들은?



특히 비결, 예언을 전도의 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종교를 믿는 수십만 신흥종교인은 꼭 한 번 읽어 봐야 할 책



북소리를 통해 하늘 아래 수많은 소리의 내면에 귀기울여 보라는 메시지를 담은 소리극 '천고'.

리듬의 시대다. 비트의 시대다. 또한 두드림의 시대다. 언어는 필요없다. 단지 소리와 몸짓만으로 한국적 신명이 무엇인지를 펼쳐 보인다.

국립극장은 9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내 하늘극장에서 두드림의 향연, '넌버벌 페스티벌'을 연다. 객석 관람의 일방적 공연에서 탈피해 넓고 탁트인 야외에서 공연자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 두드리고 소리지르는 등 한바탕의 한국식 신명이 펼쳐지는 공연 4개를 한데 모았다.

'넌버벌(비언어)퍼포먼스'라는 테두리로 묶이긴 했지만 이들이 선보일 공연은 조금씩 색깔이 다르다. 스토리가 있는 타악 뮤지컬이 있는가 하면 춤과 북소리의 만남, 풍물공연, 그리고 몸짓극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도 하다.

언어는 가라!

■ '넌버벌 페스티벌' (9월1~25일, 국립극장내 하늘극장)

인간 내면세계 춤 소리로 표현, 야단법석 등 한국식 신명 펼쳐

첫 번째 공연인 타악 뮤지컬 '야단법석'(9월 1~4일)은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 전통의 양식으로 풀어낸 독창성이 돋보이는 공연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기를 통해 자아성찰이라는 교훈적 주제와 대중적인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얼핏보면 스님들이 나와 단순한 두드림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음악적 완성도와 심오한 주제가 내포돼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동양의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타악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번째 공연인 '하늘아래 소리 천고'(9월 8~11일)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잊고 지내는 주변의 소리를 화려한 몸짓과 두드림으로 표현한다. '천고'는 북을 통해 오감을 찾는 하나의 수행이다. 공연기획사인 D&D의 박재순 대표는 "북의 내면에는 소리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공연 의도를 밝혔다. 결국 '하늘아래 소리 천고'는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소리에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담아보라고 설득하는 작품이다.

세번째 순서는 문화마을 들소리의 '집단신명 퍼포먼스 타오'(9월 15~18일). 원시종합축제의 신명을 재현하는 무대로 공연제목인 '타오'는 노장사상의 근본인 도(道)의 중국 발음이다. 잘 놀아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건강한 문화를 지향하는 퍼포먼스다. 특히 이 작품은 국내외에서 매년 200여차례 공연될 만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얼마전 막내린 싱가포르 아츠 페스티벌의 폐막제에서 2만여 관객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고, 유럽 공연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 무대는 극단 달판춤이 '강만홍의 두타'(9월 22~25일)로 장식한다. '두타'는 탐욕과 망상을 버리라는 뜻으로 신체 움직임만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몸짓무용극이다. 99년 창단된 달판춤은 지리산 청학동 삼성궁과 삼각산을 오가며 공연해왔으며 최근 뉴욕 라마마 극장의 초청으로 공연하기도 했다. (02)744-030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넌 버 벌 퍼 포 먼 스 (Non-verbal Performance: 비언어극)란?

20세기 예술의 여러 장르와 횡적으로 관계되는 독특한 행위 예술을 가리킨다. 즉 연극이지만 공연자가 어떤 인물로 분장해서 연기 하거나 연기자 자신이 극적 의미를 가진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독립된 신체적 동작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극적 행위를 포함한 오페라와도 다르며, 단순히 동작을 수반한 음향 행위를 보여줄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시각과 청각, 운동 감각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흥적이고 독립된 동작 연출

한마디로 말해 넌버벌 퍼포먼스란 노래나 연주 등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독립된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왜 넌버벌 퍼포먼스에 열광하는가?

리듬과 비트, 자유분방한 춤이 중심인 넌버벌 퍼포먼스에 요즘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다. 96년 내한한 '스텀프'가 지핀 넌버벌 퍼포먼스의 불꽃은 97년 만들어진 '난타'로 타오르기 시작해 올해 '델라 구아다'와 'UFO'에 이어 이스라엘의 '마유마나'까지

기발한 아이디어에 빠른 리듬

가세하는 등 넌버벌 퍼포먼스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계의 타악 연주그룹 '야단법석'과 전통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한 그룹 '두드락', '도깨비 스톰' 등도 넌버벌 퍼포먼스 열풍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같은 넌버벌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은 '난타'. 97년 이후 계속 공연되면서 강남과 강북에 각각 전용관을 세우고 휴일도 없이 관객들의 감동을 '난타'하고 있다.

'난타'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17개국, 118개 도시에서 2660여회를 공연, 현재 총관람객수 138만여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같은 넌버벌 퍼포먼스의 열기에 대해 공연전문가 박창수씨는 "정보화시대의 특징인 빠른 속도에 부응하는 넌버벌 퍼포먼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연예술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비트있는 리듬과 춤이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시 종합축제의 신명을 재현하는 집단퍼포먼스 '타오'.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타악 뮤지컬로 표현한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공연 모습.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ea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免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 창간 10주년을 맞아, 제2 창간을 실현하기 위한 고객배가운동 실천과 나눔의 손잡기 운동 전개에 지사장님들의 적극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5>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자

이번 아테네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박성현 선수가 마지막 한발을 쏘기 직전 사람들은 조마조마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관중들도 불안과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긴장했었는데 선수 본인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화살을 당기는 선수의 모습은 매우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손에서 벗어난 화살은 과녁을 향해 날아가 만점을 맞혔다. 만약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실수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메달권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 중엔 금메달을 획득할 것이라고 특별한 기대를 받았던 선수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의 그 어떤 선수보다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승 기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메달권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데 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나 응원, 관중의 야유가 선수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수가 평정심을 잃게 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요하게 되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런 실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전에서 부처님을 칭찬하는 글도 찾을 수 있지만 부처님을 비방하는 외도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경전에 기록된 비방의 이야기 말고도 실제로 부처님을 면전에서 비방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외도들이 시샘하며 붓다나 그의 가르침, 그의 제자까지도 비방했었다. 부처님은 이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아함경>의 <아리타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모든 사문 범지들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여 '사문 구담은 중생을 다룰만한 자격이 없다. 그는 진실로 범부 중생이며,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다. 저 여래는 현재에 있어서 근심이 없다고 거짓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래를 몹시 욕하고 매질하고, 꾸짖더라도, 여래는 그 때문에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결단코 그를 해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여래를 몹시 욕하고 매질하고 꾸짖으면, 그 때 여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본래 만든 것이요 내가 본래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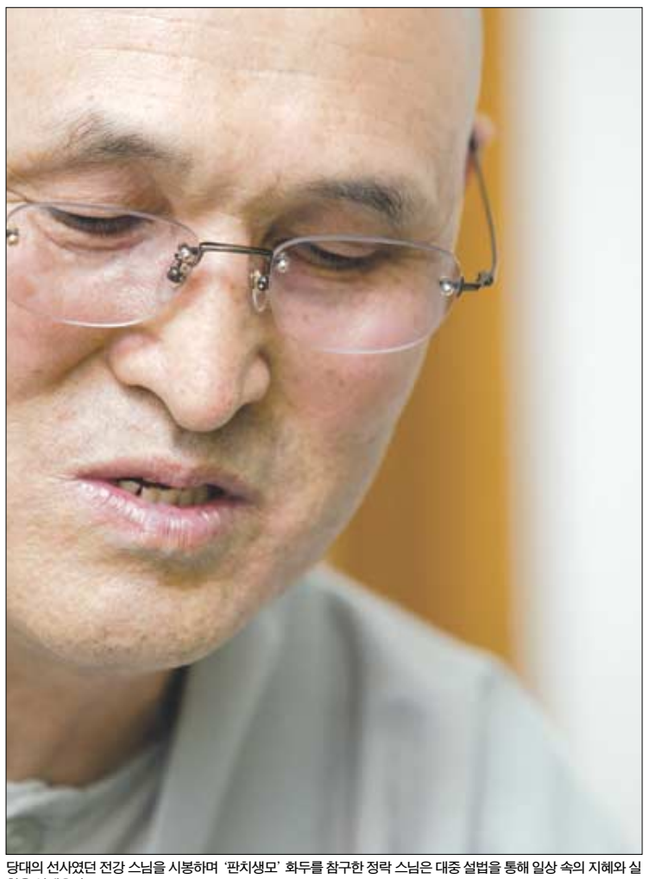
부처님은 외부의 비난이나 모함에 분노나 증오로 대적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다른 이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쓴소리가 들리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자기반성은 자기비하나 자기학대와 다른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로써 섬기고 존중하더라도, 여래는 그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여래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예로써 섬기고 존중하면, 여래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지혜가 있고 번뇌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이런 보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칭찬의 근거가 되는 자질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한 인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미덕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위험에 빠진 아이를 나의 생명을 걸고 구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나를 칭찬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의 선행을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비난·모함 받으면 자신에게서 원인 찾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진실만 추구할 것

사회로부터 적절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던 사람이 굴복하지 않고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지 않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칭송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기대와 달리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기를 얻은 나머지 너무 거만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난이 다가 오면 분노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면 억울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생활하라고 부처님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란 너무나 변하기 쉬워 그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변덕스런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주위의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고 평상심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당대의 선사였던 전강 스님을 시봉하며 '판치생모' 화두를 참구한 정락 스님은 대중 설법을 통해 일상 속의 지혜와 실천을 일깨운다.

지상 백고좌

정락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행복의 열쇠 '역지사지'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흔히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생일은 어머니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내가 축하받기 보다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날이지요."

8월 27일, 선친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대왕의 애틋한 효심(孝心)이 배어있는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 내의 효행교육관. 경기지역 초등학교 1급 정교사 과정을 마친 신임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락 스님의 효행 교육이 시작됐다.

정락 스님은 생일이 바로 '은혜 갚는 날'이라며 "효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자, 평상시에 늘 해야 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순의 노스님에게 육십대의 스님이 여쭈었습니다. '노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되는 거죠?' 그러자 노스님이 '안하니까 안되지.' 했어요."

정락 스님은 아이들이 효도를 실천하는 일에도 실천력, 지속력,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큰 효도는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1996년 용주사 주지 소임을 맡은 후 효행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정락 스님은 어린이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체적 건강은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지닐 때 좋아지며, 이에 기반한 사회적 건강은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생일은 부모은혜 갚는 날

스님은 초임 교사들을 위해 한 초등학교의 재미있는 인사법을 소개하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격을 형성하는 원리도 설명했다.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사하면서 '효자입니다' 또는 '효녀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인지 학교가 몇 년만에 모범학교가 되었다는군요."

정락 스님의 법문엔 이처럼 항상 재미있는 예화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선(禪)적인 역설'이 보인다. 여기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사람에 대한 동체대비심이 깔려 있다. 스님의 법문은 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마음속에 감춰진 행복 찾아라

"인도의 간디가 하루는 기차를 타러 역에 갔는데 막 열차가 떠나고 있어서 겨우 마지막 칸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철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출발한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그 순간 간디의 선택은 나머지 한쪽 신발도 벗어서 먼저 떨어진 신발쪽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신발 한 짝만 주우면 쓸모가 없으니 아예 나머지까지 던져준 것이지요."

정락 스님은 적어도 불자라면 간디가 처한 경우에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몸마저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상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간디처럼 우연히 신발을 즙게 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발을 던져준 것까지 잊어버리는 무심(無心)의 경지에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둔 여의주(如意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스님의 말씀은 삶의 행복은 물론 수행을 통한 열반의 성취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임에 분명했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사랑(慈) 연민(悲) 기쁨(喜) 평등(捨)이라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발합니다. 자(慈)무량심과 비(悲)무량심을 베푸는 보살의 수행은 그래서 자리와 이타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古新堂 활성生황토

활성생황토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황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과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내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황토 반죽은 적정 점착력의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정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황토의 기능
원적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절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황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능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활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제품의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활성생황토로 시공한 내부 모습

이런 분들에게 황성생황토 제품을 ...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두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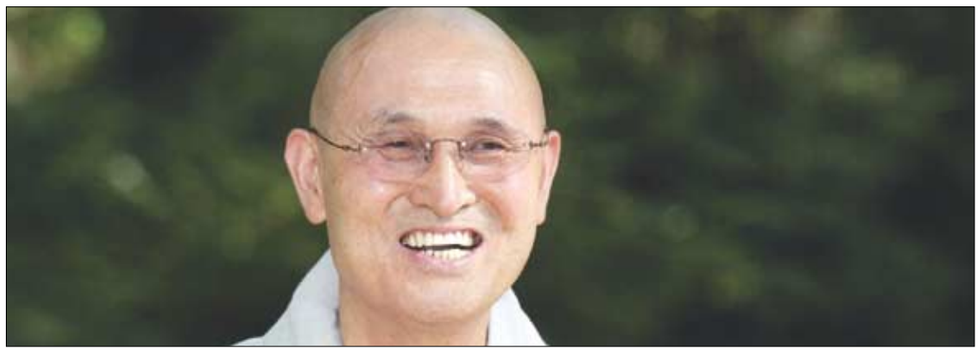

▲활성생황토로 시공된 벽

활성 생황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곰팡이 효과 • 항균 · 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기파 차단

제품 성상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제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음능력 및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점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황토시공
• 엄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자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사용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칠칠工營 合資會社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냄새제거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 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ceo@ks7700.co.kr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 공무원 등을 상대로 효행교육을 하고 있는 정락 스님의 표정은 늘 밝고 편안하다.

행을 겸하는 것입니다."

사무량심에서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은 동시에 다른 세 가지의 기초가 된다. 이 세상에 도덕이 안전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진실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리라. 스님은 가족과 이웃간의 생활윤리를 밝혀 주는 <선생경(善生經)>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피면 수행과 이타행이 들이 아님을 알게 된다고 했다.

"선생 장자가 매일 아침 깨끗이 목욕하고 육방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부처님은, 불법에서 말하는 육방예(六方禮)를 설하십니다. 부모는 동방이고 스승은 남방, 처자는 서방, 친족은 북방이며 아랫사람은 하방, 그리고 스승과 바라문은 상방입니다. 이런 모든 방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와 마음가짐(五事)을 설하신 것입니다."

정락 스님은 <선생경>에서 다섯 방위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의 사람이 바로 구도자 자신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중앙에 서 있는 수행자의 인격이 완성되면 육방이 저절로 편안해지고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우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도가 되지만, 사람답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불효가 된다는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의 잔잔한 지혜를 담은 이러한 법문들은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평상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물의 근본이치를 꿰뚫어 보는 선적인 역설과 동체대비심을 강조하는 법문들은 하루 아침에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전강(田岡, 1898~1975) 선사를 시봉하며 몸과 마음으로 저절로 터득한 장광설(長廣舌)이라 할까.

"스승님은 직설적인 화법을 쓰셨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현실화시켜 보여주셨죠. 그 분의 삶 자체가 불교여서, 잘못을 범했을 땐 무척 엄하셨지요."

하루는 전강 스님이 새벽 3시에 정락 스님을 깨우셨다. "야야, 3시 예불시간이다. 일어나거라."

수행과 이타행은 不二

그런데 알고 보니 2시였다.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이었다. 전강 스님이 "시계를 분해해 보거라"하셨는데, 정락 스님은 스승의 명을 무심히 듣고 "시계 수리점에 시계를 맡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침 공양 후 전강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너는 도를 닦을 사람이 아니다. 도를 위해서는 위법망구(爲法忘軀)할 자세가 돼야 하는데, 너는 이런 사소한 일도 거역하느냐?"

깜짝 놀란 정락 스님은 "스님, 제가 속가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버릇을 고치고 잘 하겠습니다." 했다.

그러자 전강 스님은 "뭘 버리고 잘 한다는 게(이것도 분별심이라) 벌써 틀려먹었어" 하셨다.

여기서 정락 스님은 깊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스승의 육성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챙기는 한편, 한치도 나태함이 없이 전법도생(傳法度生)의 길에 매진하고자 하는 다짐이다.

정락 스님은 세간에서든 출세간에서든 마주한



수행과 전법이 둘이 아님을 말하는 정락 스님.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복력(福力)이 커진다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수행이 제대로 되면 탐욕과 어리석음, 화내는 마음도, 상(相)을 내는 마음도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복을 짓는 일이 됩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범죄와 자살이 만연한 우리 사회, 민생을 외면한 쉼없는 정치적 갈등, 국가 간의 폭력과 전쟁 등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스님은 "불교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록 불교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글=김재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락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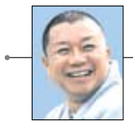
'생활속의 선법문' 대중 인기 한몸에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입에 올릴 위치가 아닙니다."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처럼 명법문으로 이름난 정락(正樂) 스님이 유독 스승에 대해서만 말을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전강 스님의 맏상좌이자 사형인 송담 스님(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장)을 깍듯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송담 스님을 매우 존경하는 정락 스님은 용주사 주지에 재선되어 용화사를 찾아갔을 때, 송담 스님이 "은사스님의 제자라면 주지 소임도 잘 해야 하지만, 절대 본분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늘 공부를 놓치 말라"고 한 가르침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고 한다. 정락 스님은 스승님의 법을 이은 분이 송담 스님이기 때문에 전강 선사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법석에서나 생활 속의 적절한 예를 들며 하는 '쉽고 감동적인 법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스님은 전국의 사찰은 물론 정부 각 기관과 민간 기업체에 초청되어 수시로 강연한다. 그때마다 스님의 '생활 속의 선법문'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스님의 잔잔한 지혜를 담은 법문들은 삶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선적(禪的)인 역설과 보살의 자비심을 담고 있기에 시민들에게 웃음과 안심을 주는 생활법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39년 10월7일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정락 스님은 20세 되던 해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77년부터 81년까지 지냈다. 83년 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았고, 94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두타 스님

요즈음은 사미(니)계를 수계한 일 년 이내에 강원이나 선원에 입방하고 4년을 수학해야만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기에 강원이나 선원이 초심자로 북적대지만 이런 강제규정이 없던 예전에는 선원이나 강원의 기초과정도 마치지 않고 운수납자의 길을 걷는 초심자가 아주 많았다. 기초가 충실하지 않은 수행자가 많다는 것은 종단적으로나 수행자 개인적으로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없는 자유방임형의 종단 풍토에서도 총림가풍의 정서가 강하게 배어있는 강원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끊임없는 구도열을 발산했던 스님이 두타 스님이다.

두타 스님은 나의 사형인데 본인이 극구 세상



그림 · 문병성

에 드러낼 것이 없다하고 제방에 알려지는데 대한 스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름을 바꿔서 소개한다. 스님은 좀 별나다. 다른 사람들은 어서 빨리 강원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데, 두타 스님은 사람들의 이런 저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처소에서도 사람들과 의견대립이 잦았고, 독불장군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타 스님은 행자생활도 해인사에 입산하기 전 이미 다른 곳에서 경험을 하고 해인사 행자실에 입방했다. 힘든 해인사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미계를 수지한 뒤에는 선방으로 곧장 가서는 일심으로 정진했다. 그러다 느낀바가 있어서 후배들이 수학하는 강원에 방부를 들여서 초심자가 배우는 <치문>부터 수학했다.

그런데 2학년 과정인 사집을 끝내고 나서 다른 강원의 치문반에 방부를 들여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 행동만 보아도 두타 스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이미 형성돼 있었던 것 같다.

두타 스님은 은사스님인 혜암 스님에게도, 옛날 선사들이 스승에게 법거량하듯 하는 일이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사형 사제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많았다. 김장김치를 담글 때조차 양념이 바르게 들어가지 않으면 곧은 소리를 은사스님께 바로 하고, 은사스님이 종정 소임을 보면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스님께 '못마땅하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 물론 두타 스님 자체가 욕심없는 일상생활로 완급을 잘 조절하면서 여법하게 정진하니 가능한 일이었다.

두타 스님이 원당암에 기거하게 되면서 사실 대중들은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면도 있다. 행동이 조심스럽지 않으면 누구에게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타 스님은 오로지 도(道)에 집중하며 도(道)를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즉설주왈로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자신을 관조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산다.

스님은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고자 탁발행각에 나서기도 했다. 종단에서는 탁발행각을 금지

원칙 벗어나면 '즉설주왈' 공부 점검위해 탁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도 조계종 스님들은 탁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탁발하기가 쉽지 않다. 스님은 해인사 아랫마을에서부터 탁발을 시작했다.

해인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리만큼이나 탁발도 어려워져 갔다. 어느 한곳을 선택해서 염불과 축원을 시작하면 도중에 시주가 들어와도 반드시 끝내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몇 군데 다니지 못해 벌써 탁발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되곤 했다. 개중에는 마지못해서 시주를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염불과 축원을 끝내고 난 뒤 반드시 (시줏물을) 돌려준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도 시줏물은 삼륜이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다. 시주를 하는 사람과 시줏물과 시주받는 사람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또 돈을 너무 많이(?) 시주하는 사람에게는 거스름돈을 얼마 주거나 아니면 전부 되돌려 주기도 하니 어떤 이는 두타 스님을 볼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에 빠져서 탁발을 공치는 날도 많았다. 그런 날은 생식을 하기 위해서 과일 몇 개 사고 나면 차비가 없어서 해인사까지 걸어와야 하는 날도 있었다. 탁발하기도 바쁜데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여유롭다는 뜻이리라.

두타 스님만큼 탐 진 치 삼독을 버린다면 아무리 바쁜 세상인들 여유롭지 않겠는가.

■ 해인사 원당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수험생에게최고 은행석온열복대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불,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얀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착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독경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 격 : 10.000원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들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팩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명희)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척척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희귀 금강약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한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배개불 1인용을 증정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 12단주,108, 손목염주 225.000원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또한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108염주,12단주 195.000원
12단주,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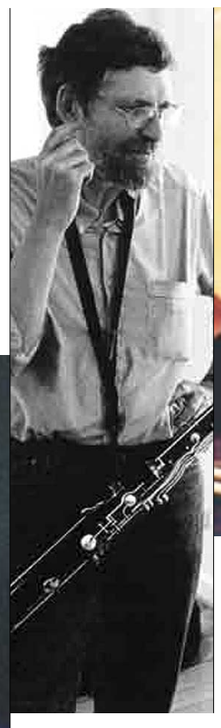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잉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농협:743-02-563237 정해철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불교용품점,개인사업자

동서고금 아우르는 음악축제 가보자







▲판소리 농악 등 전통음악과 재즈의 결합을 시도하는 박재천 씨.

◀독일 출신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가 미셸 필츠.





▲프리뮤직 아티스트들의 모임인 음악단 '상상'의 허윤정 씨.

◀재즈와 전통음악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음악가 미연.

◀2003년 5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린 제3회 팜 축제 공연 모습.

제4회 예술축제 팜(FAM)

9월 4~5일 조계사 마당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한판 '즉흥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조계사와 예술축제 팜(FAM: Folk And Modern) 집행위원회는 9월 4~5일 양일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한국 전통음악, 염불, 서양 고전 음악과 재즈, 교회 성악 등이 만나는 신명나는 무대를 세운다.

첫째 날인 9월 4일 오후 5시에는 악단 '상상'의 한국전통음악공연, 염불 시연, 흑인연가 중창, 김창수 강태환 씨의 인도음악과 알토 색소폰 즉흥연주 등이 3시간 동안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연되며, 둘째 날에는 9월 5일 오후 3시부터 미셸 필츠의 베이스 클라리넷 즉흥연주, 그레고리안 성가, 박재천 씨의 즉흥 타악연주 등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동서양의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염불, 그레고리안 성가, 흑인영가 등 다양한 음악들을 모아 발표하는 'Sacred Voices(성스러운 소리들)'란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즉흥적으로 시연된다.

5개국 15개 팀 5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하며 '민족음악의 발전과 현재', '종교음악의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강좌도 함께 개최된다.(02)3273-6848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주요 행사 일정

행 사	시 간	내 용
예술 축제 팜 공연 (조계사)	9. 4 오후 5시	극단 상상의 전통음악연주, Free Solists의 즉흥연주, 김창수 인도음악 연주, 강태환 알토 색소폰, 염불과 육십나무 무용단 춤공연 등
	9. 5. 오후 3시	강태환 알토 색소폰 연주, 김창수의 인도음악 공연, 미셸 필츠의 베이스 클라리넷 즉흥연주, 그레고리안 성가, 박재천 타악 연주, 오끼 이따루의 트럼펫 공연, 흑인영가 등
팜 강좌(조계사)	9. 5. 오후 1시	종교음악과 현대음악의 만남을 모색하는 자리
박재천 워크숍 (명동 유네스코회관)	9. 4. 오후 1시	즉흥음악 아티스트 박재천 씨가 들려주는 동서양 악기의 조화에 대한 강연
샘 베넷 워크숍 (명동 유네스코회관)	9. 5. 오후 1시	재즈 연주자 샘 베넷이 뉴재즈와 아프리카 음악(명동 유네스코회관)에 대해 강연을 한다

공원으로 가을 마중가자

서울 9개 공원 식물교실 등 가을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내 9개 공원이 '가을이 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26개 가을철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남산공원은 9월 4, 18일 오후 2시 30분 물달개비꽃과 머루 열매를 관찰하는 식물교실, 11일과 18일 오후 3시 남산 전시관과 서울성곽 등 역사유적을 돌아보는 역사문화교실을 연다.

낙산공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식물도감과 곤충도감, 나무모빌, 한지엽서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나비와 잠자리, 풀벌레, 버섯 등을 관찰하는 길동생태공원의 체험교실도 흥미로운 행사다.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http://parks.seoul.go.kr) 전화(02)711-6133.

영국사서 아시아 시낭송회

'아시아 시를 사랑하는 모임들'(http://cafe.daum.net/sigopa2000)이 주최하고, '영국사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양문규 · 시인)이 주관하는 제1회 아시아 시낭송회가 9월 4~5일 충북 영동의 송호수련원과 영국사(寧國寺)에서 열린다.

낭송회에는 중국 시인 수팅, 일본 시인 사이토 마모루, 베트남 시인 응위엔 콰 디엠, 대만 시인 슈샤오리엔, 몽골 시인 야워홀랑 등 아시아 시인들의 명시를 독자들이 낭송된다. 한국에서는 서정춘 나태주 정호승 고형렬 박영근 송찬호 최영철 이정록 김완하 박철 김석환 박명용 김용락 등 국내 시인과 독자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043)743-9082

유명 강사 초빙 중고생 특강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가을을 맞아 여성 건강교실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교과목 무료특강을 마련한다. 여성건강교실은 9월 9~30일 매주 목요일마다 신원식, 이동석, 이병기 등 유명 전문의를 초빙해 갱년기 대처방법, 유방암 조기진단과 예방법, 호흡기 질환, 여성과 치아건강에 대해 강의한다.

영남불교대학은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요일마다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와 영어, 수학 특강을 개최하며, 이 기간 '레크리에이션'과 '성교육'에 대한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053)474-8228

공연

전통춤 맥 잇는 김명자 무대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김명자 씨의 승무 공연.

우봉 이매방(77) 선생의 부인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와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인 살풀이춤 전수조교인 김명자 선생의 춤 공연이 열린다.

김명자 선생은 9월 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김명자의 춤-전통춤의 원맥을 이어가고자' 공연을 펼친다.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004년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기금을 지원 받아 공연된다. (051)646-4480

천미희 기자

전시

사기장 이수자 '흙과 나무'展

9월 1~6일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이수자 우남 김경식, 동원 정혜주 작품전 '흙과 나무'가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10층)에서 9월 1~6일 열린다.

초가을을 맞아 열리는 '흙과 나무'전은 다기와 도자기 다구를 비롯해 다장, 차탁, 잔탁, 다식집게 등 흙과 나무로 만든 다양한 차 생활 도구들이 선보인다. 차향과 목향 도자기가 가득한 전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초가을 새로운 추억이 될 것이다. (011)818-3972

배지선 기자

극장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 드라마 / 95분
개봉예정일: 9월 3일
감독: 피터 웨버
출연: 스칼렛 요한슨, 콜린 퍼스 등
등급: 15세 이상
1665년 네덜란드. 화가 베르메르와 그 집의 하녀로 들어간 16세 소녀 그리트를 주인공으로 한 이 영화는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미완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베르메르의 대표작으로 네덜란드에서 국보급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림. 타국에서 그의 작품전이 열려도 결코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족 / 드라마 / 94분
개봉예정일: 9월 3일
감독: 이정철
출연: 주현, 수애, 박지빈, 박희순 등
등급: 15세 이상
1년 365일 있는 듯 없는 듯 부대끼며 살아가는 관계, 가족. 영화 가족은 '엇갈림'을 모티브로 한 가족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가족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교훈적인 메시지나 관습화 된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미 오랜 갈등으로 어긋나버린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도실 나한단주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 복숭아 씨앗을 채집, 정성스럽게 가공해 만든 제품. 복숭아 씨의 기를 몸에 받아 잡념, 악몽 등을 떨쳐내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원산지 한국, 크기는 약 9㎜, 가격 2만원. 재질은 도실과 쑥비취 구슬.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일 09:20 혜거 스님의 선특강
2일 12:00 TV법회(해인사 영가천도)
3일 22:10 불교TV 스페셜(법만 스님)
4일 11:3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5일 11:30 충성 성불하십시오
6일 13:10 열린마당
7일 12:0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사찰순례(8월 29일 06:30~07:00) 전국 각지의 사찰 역사와 성보 문화재, 사찰에 깃든 설화와 주석하셨던 스님들의 구도 열정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는 시간이다.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출연해 사찰에 얽힌 모든 것을 알려준다.

■불교텔레비전: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9월 3일 09:20/20:30) 이번 시간에는 니콜라스 빌랜드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니콜라스 빌랜드 스님은 1950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1985년 달라이 라마로부터 비구계를 받았으며 현재는 뉴욕의 '더 티베트센터'의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흥국사 금강경 강의 고양시 흥국사는 9월 7일 오전 11시 30분 불교교양대학 금강경 강좌를 개최한다.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강사는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02)381-7970

보문사 금강경 강좌 서울 상도동 보문사는 9월 14~20일 오전 11시 지리산 백장암 선원에서 정진 중인 대진 스님을 초청한 금강경 대강좌를 개최한다.(02)823-7443

불광사 건강체조교실 서울 불광사는 9월 6일 오후 2시 반야당에서 우리춤 건강체조 강연을 연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02)413-6060

불교귀농학교 9월 10일 개강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9월 10일~11월 2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제15기 불교귀농학교 학생을 모집한다.(02)733-1884

불교문화학교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회는 9월 15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수원 팔달사에서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학교를 연다.(031)251-1778

함께 해요

월정사 불교대학생 모집 오대산 월정사는 9월 4일 개강하는 1년 과정의 월정사 불교대학 제1기 학생을 모집한다. 교육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 선착순 70명.(033)332-6664

범어사 초청법회 부산 범어사는 9월 2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부산 법륜사 회주 선래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51)508-3122

건강노인선발대회 대한노인병학회는 9월 22일부터 전국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3회 건강노인선발대회'를 개최한다. 22일 서울보훈병원에서 예선, 10월 6일 고대 인촌기념관에서 본선대회가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9월 13일까지.(02)2269-1040

내 몸 개혁프로그램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팀은 9월 1일까지 희망자 20명의 신청을 받아 6개월 과정의 '내 몸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760-3331

무료검진 서울 금천노인복지관은 9월 17일 오후 2시 당뇨, 오전 10시 안과, 21일 피부과 비뇨기과, 24일 한방침구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02)804-4058

한글교실 회원 모집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9월 8일 개강 예정인 내원장수대학, 1일 개강하는 한글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부산 사하구 일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인라인' 강좌도 열고 있다.(051)264-9033

자원봉사자 모집 복지법인 연꽃마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는 종이접기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02)365-3677

민간요법 수강생모집 대구 불교사회복지대학이 전문민간요법과 불교상담과 수강생을 40명씩 모집한다. 전문민간요법과는 9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1시, 불교상담과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1시에 강의를 한다. 접수마감은 15일까지.(053)475-2588

다도 · 가야금 배워요 대구 보현문화회관이 다도, 가야금, 사경 교실을 운영한다. 다도교실은 9월 2일부터 목요일, 가야금교실은 6일부터 월요일, 사경 교실은 17일부터 수요일마다 열린다.(053)431-5400

즐겁게 떠나요

수원 역사기행 답사단체 터사랑은 9월 5일 수원성, 용주사, 융건릉 등을 둘러보는 역사기행을 실시한다. 출발은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02)725-1284



20면 상식 퍼즐 정답

십	장	생		치		
이		불	망	어	계	
연			구		간	
기	원				지	가
	각		회			릉
	경	세	유	표		빈
		우		고	물	가

신행수기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중〉

유경남 (용인시 기흥읍)



그림 · 김홍인

봉사하는 이곳이 바로 도량 하고싶은 일 갈수록 늘어나

우리 회원들 중에는 아직 불교 기초교리도 잘 모르고 기복신행으로만 일관하는 불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제대로 배워 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자비한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게송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량 하면 사찰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게송을 염하다 보면 우리 칠봉회 회원이 봉사하는 이 장소가 바로 도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회원들에게 <봉사의 길>이란 책도 구입해서 읽어 보라고 나눠 주기도 하고 큰스님의 법어집도 틈틈이 읽어보라고 권했다.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우리 칠봉회 회원들이 차츰 불교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들 요청에 의해서 조금씩 회비를 모아 이웃 사랑도 나누었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김장 김치와 떡도 나눠주면서 위로도 해드렸다. 이런 활동으로 1993년 강북 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회원들이 질서있게 한자리에 앉아서 중환자 수술실에서 쓰이는 거즈를 접을 때는 그 손놀림이 흡사 기계와 같이 움직인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한 가지 일에 심취해 있는 듯 보인다. 이럴 때는 회원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비어있어 잡념이나 번뇌와 망상 따위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이다.

굳게 다문 입과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잽싸게 움직이는 손놀림만 응시하는 그 표정을 굳이 표현한다면 '텅빈 충만'이라고나 할까. 내가 몇 해 전 법정 스님의 수상집을 읽고 바로 이 '텅빈 충만'이란 글말을 보고 묘한 매력을 느꼈다.

도대체 그 경지가 어떠한 경지일까? 단 한번만이라도 나는 그 경지를 체험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해 본다. 우리 회원들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한다. 그래서인지 1993년 연말 평가회에서 서울대 병원장으로부터 단체 감사패를 받았다.

회원들이 몇 년간 같이 모여서 봉사하는 동안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회원이자 나의 제자이기도 한 김종순 법우는 71사단 부사단장님이 근무하는 부대에 아직 군법당이 없어 안타까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열심히 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칠봉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해서 군법당 건립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3년 10월 청명한 가을날 석정 스님을 모시고 군 불자와 그 가족들이 모인 법당에서 성대히 점안식을 봉행했다. 모두가 환희심에 찬 모습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종순 회원이 그 부대 군불자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의 위신력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되어 흐르듯 나의 주변 사람 모두에게 봉사의 의의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옛날 내가 교직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 친목 모임을 만들어 한달에 한번씩 강원도 원주에서 만나고 있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마음을 모아 한 달에 한번 씩 양로원을 찾아 음식을 대접해 드리면서 자비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친구는 그것을 계기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봉사자로 많은 활동을 하여 원주시에서 인정을 받고 시민상까지 받았다.

1993년 어느 날, 나는 절에다 조상 천도재를 올리고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놓인 신문을 집어드는 순간 제일 먼저 나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기사가 있었다. 잠실 복지관에서 국어사랑 지도교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기사였다.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20대에서 50대 중반의 20여명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기회를 놓친 문맹자들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하고 다시 교단에 서는 기분으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문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나는 그들의 인생 상담자가 되어 여러가지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연이 많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행(안양 한마음선원장) 큰스님의 법어 중 "인생은 모르면 생존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다"라는 가르침을 인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사성제에 대해 설법을 했다.

처음 4가지 고통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느냐는 듯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성고', '구부득고'를 말해주니까 진지하다 못해 나중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해주어 나를 감동케 했다. 이어 인연의 법칙을 가르쳤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여 책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자기 의사를 글로 나타낼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을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들은 하나 같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까지 말하며 기뻐했다.

나의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빌며 1년 과정을 마쳤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눈물 흘리는 분들께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하며 글사랑 모임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떠나왔다. 당시 나는 청주에 포교차 자주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서이다.

열악한 포교당 운영에 힘들어 하시는 스님을 도와 불교서적(기초교리, 큰스님 법어집) 불교용품을 실어 나르며 포교활동에 적극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불자가 되어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정상현
춘천시청 지적과장

돌이켜 보면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 도리라고 알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불교대학을 3기로 수료하고도 교수님들의 강의만 들었지 법당 한번 찾지 않고 돌아 온 것은 알음알이가 늘어난 만큼의 행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삼보 예경의 믿음을 심어준 분은 심만춘 교수님이자 스님이었다.

"부처님은 각자(覺者)로서 우리들에게 부처의 종자가 있으므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길과,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대 자유인의 면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경전) 또한 불자가 가야할 여정에 나침반이며 불법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서 만인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법입니다. 또한 승가는 부처님의 길을 가시는 거룩한 분들이며 화합과 평화을 우선하는 공동체로서 따라야 합니다."

결국 삼보를 예경하는 것은 크게 보면 자유, 평등, 평화를 실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 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이후부터는 공사를 막론하고 사찰을 찾을 때에는 제일 먼저 법당에 참배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독송으로 하루 시작 독송으로 마무리 편견·자만심 사라져 늘 마음 편해

지역사회 친구들과 같이 하는 '춘천 불이회'에서는 불교가 싫지만 않다면 누구든지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에는 교회에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법회시에 법사 스님께 삼배의 예를 드림과 아울러 자신의 자성불에게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불교인들의 잘못인지도 모르지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형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편견을 거의가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초발심자 중에도 거사들의 경우 남이 있는 곳에서 절하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분심이 생기고 안타까워 불이회장 법종 거사와 협의해 가급적 이웃 종교나 무종교인을 회원으로 영입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나는 불교대학을 먼저 다녔다는 이유로 회원들끼리 법회를 볼 때에는 자칭 포교사가 되어 교수님들이나 스님들께 귀동냥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천수경> 독송으로 시작하여 직장에서는 틈 나는대로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대불정 능엄신주'와 '광명진언' 독송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고 있다. 또한 주 1회 불교대학 수강과 더불어 월 2회 정기법회를 주관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주말에는 관내 사찰을 찾아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며 재(財) 보시는 못 하더라도 몸으로, 뜻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일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불법을 포교하고 사찰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님들과 춘천시청도반회. 춘천 불이회. 석왕사거사림회, 춘천불교청년회. 택시회사법륜회 등 불자님들의 도움이 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 되었다. 좋기는한데 이것 역시 빚이자 갚아야 할 업이라고 생각하니 한편 걱정이 되지만 피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마음 편히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욕심이 일면 초라해지고 비우면 넉넉해진다는 말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이나 만남에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을 살아간다면 끝내는 '선 자리마다 진실이 실현될 것'이라는 입처개진(立處皆眞)이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오늘도 직장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각양 각색의 부처님을 만나러 나선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장수칡집
홍천터미널
인제,원통방면
춘천 방면
북방삼거리
홍천온천
홍천IC (중앙고속도로)
횡성,원주방면
양평,서울 방면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2005년 불교카렌다 출시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원 일 문 화 사
FINARTTREE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Homepage:www.wonil-c.co.kr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福田函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

지난 8월 19~20일, 경주 기림사(주지 종광)에서는 도예가와 차인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다. 월간 <Tea&People>과 기림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다도구 특별 워크숍'에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도예가와 차인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찻그릇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 현장의 이모저모와 이날 발표된 2편의 글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8월19~20일 경주 기림사에서 열린 '제1회 다도구 워크숍'에 참가한 차인과 도예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도예가·차인의 아주 특별한 만남

다구의 정체성 · 방향에 대해 토론
홍재표 옹, 전통물레 시연 등 행사

태풍 메기가 한반도를 휩쓸고 간 뒤인 19일. 예상치 못했던 기상으로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더디게 기림사로 모였다. 하지만 태풍도 이들의 차에 대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게 모인 참가자들에게 월간 <Tea&People> 신희호 발행인은 "이번 워크숍은 차인과 도예가의 만남이자 이 시대 찻그릇을 만드는 도예가들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함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도구 특별 워크숍'을 통해 우리 도예가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반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부 '특강 및 주제발표'에서는 차문화공예연구소 김동현 소장이 '다도구의 기능과 특성'을, 월간 <Tea&People> 편집위원인 이병인 교수(밀양대)가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2부 열린 '다도구 작품전시 및 감상'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대표 작품과 차인 소장 다구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서로의 감상과 의견을 나누었다.

저녁 6시부터 진행된 3부 '토론 및 대화' 시간에는 법심 스님(부귀사 주지)의 인사말에 이어 원로 도예가 홍재표(73) 옹의 다구 제작 시연이 열렸다. "욕심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홍 옹은 60여년 동안 지켜 온 전통물레를 직접 가져와 시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의 열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해갔다. 일송요 황동구 대표의 '찻사발의 특성과 제작과정' 강의는 자신의 체험과 다기를 만들며 느꼈던 의문점을 함께 풀어보는 토론회로 이어져 10시까지 계속됐다.

경주 백암도예의 박승일(33) 대표는 "다른 지역 작가들과 만날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작품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선배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채찍으로 삼아 앞으로 더 좋은 찻그릇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문화공예연구소 김동현 소장의 강의.



원로 도예가 홍재표 옹의 전통물레 시연 모습.



참가자들이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주제

다도구 도예가들을 위한 제언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세계화라는 큰 변화의 바람 속에서 다도구도 시대적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자기만의 형태와 질감의 창조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더해 시대적 특성과 기능을 갖는 명품(名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잘 팔리는 도예가의 작품을 모

특성·기능성 갖춘 명품 만들어야

방해서는 안된다. 전통도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재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날 차도구를 만드는 도예가들은 시대의 문화적 특성과 흐름을 이해하고 차문화의 큰 흐름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자신만의 차도구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명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찻사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황동구(일송요 대표)

진정한 도예가는 도를 닦는 수행자와 같이 찻사발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좋은 찻잔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차인이나 도예가들도 있다. 이 시대 같은 다도구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찻사발을 만드는데 있어, 찻사발의 안속이 너무 좁거나 평평하면 차가 잘 풀리

안속 완만한 곡선으로 이뤄져야

지 않으므로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한다. 또 찻사발 안속의 회돌이(소용돌이) 부분을 깊이 물레질하거나 옛 그릇을 흉내 내기 위해 굵은 실선을 사용해 그을 경우 그 자리에 차의 가루가 남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릇의 형태에 따라 약하게 하거나 너무 깊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안속 바닥부터 입구까지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차를 잘 마실 수 있다. 안쪽 면을 다듬을 때 손가락에 힘을 주어 겹친 자국이 남게 되면 차가 쉽게 흘러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주=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우리 사찰 차 모임 —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

생활에 필요한 茶法 교육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 회원들이 차비비기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사찰이나 각종 단체의 차 교육 현장도 배움의 열기로 넘치게 된다.

9월 1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을 지난 8월 26일 찾았다. 다도반을 이끌고 있는 윤영예(45) 사범은 "최근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강생들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혹시라도 교육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품만들기·혼례 예절 등 꼼꼼히 지도
현장 수업 겸비해야 사범 수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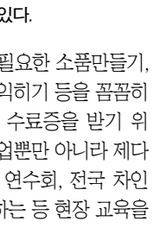
현재 30여 명이 공부하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 다도반은 지난 2002년 문을 열었다. 교육은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 사범교육 2년 과정으로 이뤄진다. 초급과 중급반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다법 위주로 가르치고, 사범교육은 한국차문화협회의 사범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차문화협회 수원지부장이기도 한 윤 사범이 행다수업 외에도 다도에 필요한 소품만들기, 전통혼례 예절 익히기 등을 꼼꼼히 지도한다. 사범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제다실습, 지도사범 연수회, 전국 차인 큰잔치에 참석하는 등 현장 교육을 겸비해야 한다. 방학 중에는 '엄마와 함께 하는 다례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찾아왔던 부모들이 자연스레 다도반 수강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장에서 차 교육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범을 길러내는데 다도반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윤 사범은 "늘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용주사 템플스테이 현장과 수원여성지도자연합회 행사 등에서 다도시연을 펼치기도 한 다도반 회원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널리 회향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차향만큼이나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031)251-1083

인터뷰 **윤영예 사범**



초발심 잃지 않으려 노력

"제게 처음으로 차를 대접해 주신 한 스님께서는 '차란 나누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야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수원지부장이기도 한 윤영예 사범은 경기불교문화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예절관과 장안고등학교, 이천 해룡사 등에서도 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도 포교사'다. 벌써 15년째 차를 배우고 있지만, 늘 차를 처음 접했던 초발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윤 사범은 "우리 다도반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차향이 은은히 배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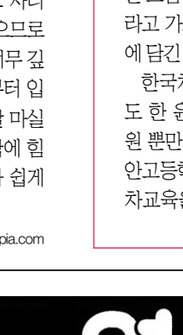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고성능 무선마이크
▷각종 마이크 판매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하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응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선법(禪法)은 실천이 문제입니다

(488호에 이어서)

▲질문자2: 먼저 삼보님 전에 지성으로 귀의하옵고, 시방제불 보살마하살님과 큰스님 인연지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행주좌와 중에 24시간 무심의 생활을 하려고 관하고 놓고 무심, 관하고 놓고 무심, 이런 식으로 한 2, 3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야심경이 5년째 되던 작년에 탁 터지는 한 소식을 하면서 스님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부처님 나투심 아닌 곳이 없고, 이곳이 불국토고 내가 있는 곳이 도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항상 무심의 생활 속에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찾아보니까 소 자체도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잔등에 타가지고 소를 부리면서 제가 처처에 나투신 부처님들과 함께 시방세계를 놀다가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일체 삼라만상이 유심조(唯心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 고통 모든 것에 한생각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일으킨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대상과 경계가 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불이관(不二觀)에 의해서 하다가 스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노닐 순 있지만 그 물 자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부처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에조차도 걸리지 않는, 고기가 물속조차도 넘어선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색(色) 공(空)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중도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스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깨우침에도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까지 열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바라밀다라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배 자체도 버려라 하고 강을 건너기까지만 가르쳐주시고 있고, 강을 건너고 나서 가야 할 길도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떠한 수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가야 할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다 터진 것처럼 말하면서, 하하하. (대중 웃음) 아까 말한 거나 지금 말씀한 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선법(禪法)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청산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더하고 덜함도 없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아십니까?

▲질문자2: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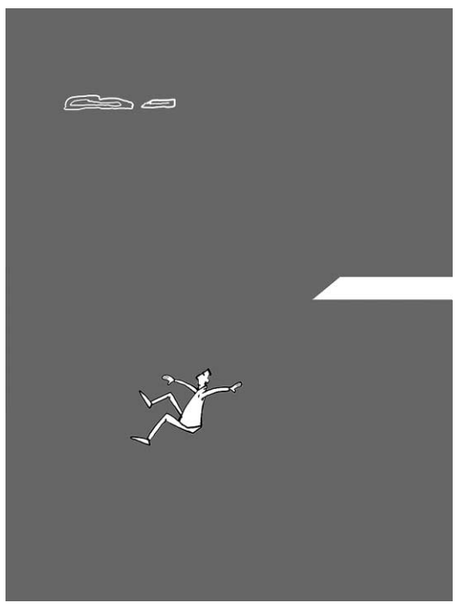
▲스님: 그럼 내놔보시죠. 귀신 방귀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까닭은 아십니까? 우리는 느끼는 걸로만 알아서 안 되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법은 실천이 문제입니다. 또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기르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세 가지,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거를 안간힘을 쓰고 할 양으로 무심, 무심, 무심 하시는데 그 무심조차 놔야 되죠. 무심으로 살아야지, 무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무심으로 살지 않는 게 됩니다. 그 일체를 다 놓고, 제자리에다 놓고 그 제자리에다 놓는 데서 그것이 다 녹아서 그릇이 홀랑 빈 연에 자기라는 것이 홀연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도 또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려면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먹여서 키우는 것이 둘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두번째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세번째는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발현이 됐으면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어린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사회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를 낳았으면 키워서 공부시킬 거 다 공부시켜서 사회에 나갈 만해야 내보내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완전히 실천했을 때, 또 자기가 실천하고 체험을 했을 때 그때에 한마디를 해도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문자2: 스님 법문 속에서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모두 놓으면 된다, 그런데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이라고 해서 한마음에 죄 지었던 마음조차도 멸해버리면, 그 마음 자체를 멸해버리면 죄 자체도 곧 멸해진다. 그래서 주인공에 맡기면 인과 자체도 다 멸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 선사들께서 말씀 하신 불락인과(不落因果)와 불매인과(不昧因果)에 대해서 불락인과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큰스님들, 법력 높으신 도인들께서는 인과는 오되 인과를 받지 않는다,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경계와 대상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인과는 오되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불락인과를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옛 선사의 법문집에서 보니까 그것이 틀린 거다. 불매인과다. 도인이나 법력이 높으신 분들도 인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스님께서 주인공한테 맡기면 모든 인과가 다 녹는다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스님: 의심이 그렇게 갑니까?


그림 · 최주현

▲질문자2: 네.

▲스님: 하하하.

▲질문자2: 가르침을 주옵소서.

▲스님: 물론 불락(不落)이다 하면 불매(不昧)가 올 거고, 불매가 있다 하면 불락이 올 겁니다. 이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색, 공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양면이 다 불지 않느냐, 왜 불매(不昧)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하나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들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게 없으니 이것이 다가오는 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온다 안 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 여여함이 그대로 불매입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싫다 좋다, 죽는다 산다 하는 생사도 그냥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불매라고 하겠죠. 그래서 불락이라고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우의 몸을 쓰고 오백 년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오백 년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백 년이 일 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또 여우 몸으로 살든지, 늑대 몸으로 살든지, 구더기의 몸으로 살든지 선지식들은 그거를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한 뜻이 뭐냐 하면 그것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거든요. 지렁이 발도 내 발이요, 하다못해 메뚜기 발도 내 발이요, 인간의 발도 전부 내 발이고, 내 아픔이고, 내 몸이고, 내 자리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선이라는 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가설된 그 전깃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깃줄과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또는 불매와 불락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간 힘을 쓰고 할 양으로 무심 무심 하는데 그 무심 조차도 놔야돼요

그릇이 홀랑 빈 연에 자기라는 것이 홀연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 그러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서든지 각자 가정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제일 높죠?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본다면 뱃사공은 뱃사공대로 높고,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또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높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높고요, 산과 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호박꽃도 꽃이라고 자기는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자 다 그 범위내에선 다 높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해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매(不昧)다 불락(不落)이다 하는 것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오지요. 불이 들어왔으면 불만 들어왔지 그 양면의 전깃줄이 가설이 된 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설이 됐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선이라는 건 불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가설된 그 전깃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깃줄과 불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데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또는 불매와 불락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질문자2: 네. 제가 글을 쓰면서도 불법과 천지이법(天地理法)에 그릇됨이 없을까 해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예.

▲질문자2: 한마음, 님을 뜨겁게 사랑함도 허공에 뜬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저 뜬구름이 언젠가는 흩어져 소멸되어 갈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저 뜬구름이 하나 되어 허공을 채워져 있듯이 님과 하나 된 우리들의 세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옵니다. 피고 지는 꽃이 영원히 지지 않는 꽃보다 더 애처롭고 더욱 간절한 아름다움의 아픔이 있듯이 님과 하나 된 내 사랑, 저 뜬구름같이 언젠가 흩어질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소중하지만 님과 하나 된 내 사랑, 영겁토록 한마음일 것을 나는 압니다.

큰스님과 여기 모두 계신 불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박수)

▲스님: (합장하시며)

만나고 헤어짐은 없으련만
만나고 헤어진다 하네.
아름답고 밉다 하지만
아름답고 미운 것도 없다네.

이 세상 모두가 다
두구불천에 돌아간 이 세상
하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또 돌면서 영원하리.

▲질문자3: 스님 법문 자주 듣고 많은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또 제가 내보이고 싶은 거는 사실 저라고 내세울 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오늘 그릇을 올려놓고 이 그릇이 빈 것인지 찬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스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빈 것도 없고, 안 빈 것도 없을 텐데….

▲질문자3: 빈 것도 없고 또 안 빈 것도 없는 게 더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스님의 말씀 하나 담아 주시면 화두로 삼겠습니다.

▲스님: 화두는 이 육신 자체가 그대로 육근(六根) · 육진(六塵) · 육식(六識)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화두인 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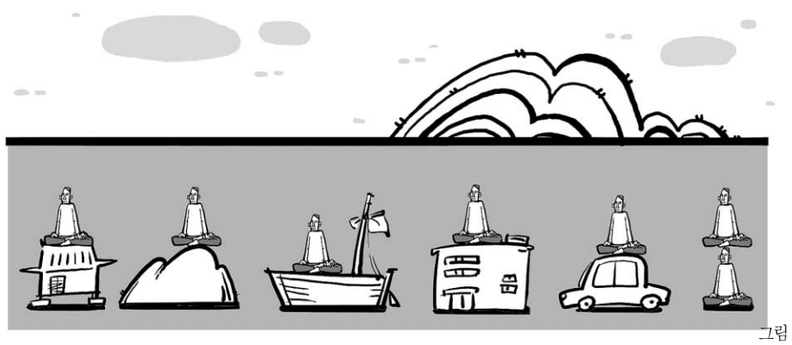
▲질문자3: 모든 것이 다 화두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책을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저의 깨달음이 바른 건지 또 이렇게 생활하고 가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선지식께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그 말씀 올렸습니다.

▲스님: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 방구씨는 어디서부터 온 까닭일까요?

▲질문자3: 저는 그것이 잡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교는 사실 다른 얘기로 표현하게 되면 저는 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 쯔쯔쯧.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걸 잡념이라고 생각하나요? 생각을 못하게 되면 목석인데? 그것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데? 그걸 재료로 생각을 해야지 잡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길이 점점 좁아질 텐데요.

▲질문자3: 기실 제가 보는 것도 잡념이라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방편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를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잡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높고 낮음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느니라

☞29면에서 계속

념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 그 대답을 못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질문자3: 다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마음 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데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아무거나 들이대도 손색이 나질 않아요. 아무거나 들이대도 공안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고, 불법 아닌 게 없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들이대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해버리면 안되죠. 그 도리만 알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말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해요. 또 질문 없습니까?

▲사회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허허허. 그럼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공기주머니를 이탈하면은 아주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도 물에서 이탈이 되면은 어렵듯이 사람도 공기주머니에서 이탈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도 내면에서 이탈이 되면은 어렵습니다. 이 공기라는 자체는 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기는 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춥다, 덥다 하는 이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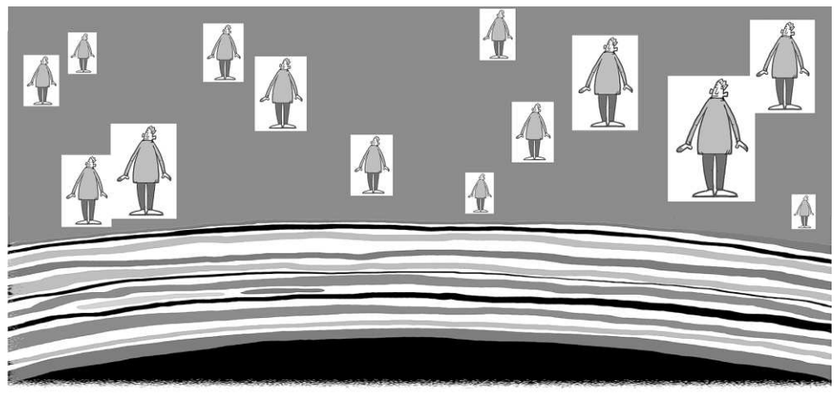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 바로 공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존선 만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오존선 만법이라 함은 전부 허공 이 자체 물레를 말하고 또 지금 지구다 하면은 지구 속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혹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항성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장관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쭉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존선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오존선은 중심에서, 이 지구의 중심에서 모든 거를, 즉 비도 오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그렇게 소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름도 일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도 하게 하고, 이 모두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조절하고요.

그런데 공기는 이탈이 되면, 더 올라간다면 태양열로서 재료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안양에서 시장이라면 딴 데 시장을 범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이탈이 되면 모든 것이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탈이 돼서 그냥 돌아가죠. 공기가 없으니까요. 공기가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요. 공기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태양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살고 있고, 흡수를 하되 물속 밑바닥까지 태양열이 거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파도를 일으켜서 물을 돌려야 생명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막 돌아가죠. 그리고 또 따뜻하지가 못하니까 춥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두가 이러한 이치로써 진리가 모두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된다. 역대에 그 부모들 존전에서 나오는 그 씨도, 내 씨나 삼천 년 전 부처님 씨나 똑같은 씨입니다. 즉 불씨죠. 불(佛)이라는 건 생명의 근본이 불이니까요. 또 교(敎)라는 것은 모두가,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파도로 인해서 모든 게 돌아가면서 생명이 살고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심봉이 꿋꿋하게 서질 못하면 맷돌이 돌아가지 않듯이, 심봉이 있는데도 이탈이 되면 즉, 심봉이 없다면 그냥 맷돌이 건성 돌아가게끔 돼 있죠.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고요.

이러는 까닭에 우리 마음 자체, 지구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양 한 변두리에 한 혹성이 있어서 그 혹성을 기준해서 살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혹성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에게 세포가 있듯이 세포가 모든 사대(四大)에 피를 조달하고 통신을 조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탁 치면 벌써 두뇌로 해서 사대로 아픔이 탁, 신호가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구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구나 똑같습니다. 지구에도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통신 조달은 바로 오존선에서 조달을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오게 할 수 있고, 춥게 할 수 있고, 덥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상 알고 보면 우리 몸체 하나가 육근 · 육진 · 육식이 더불어 같이 한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오늘 법회날인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선법(禪法)이라는 거는 그렇게 남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얕은 소견으로 그냥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에서 이것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하나로서 이것이 해당이 되고 이 생각 자체가 그냥 법으로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와서 법회에 지장을 주거나 그렇게 걱정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이 모두 훨저히 하고 또 포교를 해서 장애자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고, 또 장애자가 나온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과거로부터,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해서 지금 현실에 모두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가 되놓으면 그것도 좀 유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또 이 공부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얼마나 모두 고생들을 합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쓰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생각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남편이 술을 먹고 그냥 차를 몰고 저 죽을 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로서 몸뚱이를 잡으려고 해서는 잡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 된단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중: 예.

▲스님: 마음은 어떠한 거라도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서 거기다 맡겨야 이것이 따뜻한 감을 갖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 모든 것은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타의에다 원망을 하지 마세요. "저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저것이 왜 저렇게 못됐어?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럭하고는 그런 마음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 낸 대로 욕하는 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고대로 보이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타의에다 원망을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내고 욕하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그 마음 쓰고 하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선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살면서 자유스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아픈 고해에서 벗어나십시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2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 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9월 7일(화)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헌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청정도량에서 철야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 (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사람을 찾습니다



● 인적사항 : 최복임 (여), 79세
전남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구산마을

● 발생일시 : 2004. 7. 12(월) 아침
주암종합고등학교 부근 산책중 행방불명

● 인상착의
· 특징 : 키 150cm 정도에 허리가 많이 굽고 금테안경 착용
· 복장 : 상의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 하의 검정색 바지, 신발은 미색구두 착용

● 연 락 처
순천경찰서 : 061)751-0112
신고센터 : 061)753-0363, 0373, 755-5511
휴대폰 : 011-609-3889, 018-645-5511

보호하고 계시거나 거처를 연락해 주신 분께 사례금 5,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도(道)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포럼’

한국의 ‘도(道)정신치료’가 프로이드와 융의 정신분석을 넘어설 수 있을까. 국내외 정신의학 권위자와 수행자들이 모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월 21~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신치료학회(명예회장 이동식) 창립 30주년 기념 ‘도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포럼?에는 미국정신의학회 회장을 지낸 앨런 태즈먼 교수(미국 루이빌대), 인도정신의학회 비조이 바르마 회장,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미산 스님(조계종 총무원 국제담당 특별보좌관), 박홍 신부(前 서강대 총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수도(修道)와 정신치료가 접목된 ‘도정신치료’를 낱낱이 해부했다. 한국정신치료학회가 내 놓은 도정신치료란 무엇인지, 실제 정신치료 현장에서 도정신치료법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마음의 거리낌을 없애라”

주객일치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바탕
‘십우도’ 전개 과정 치료에 적용 효과 탁월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명예회장. 선(禪)을 비롯한 동양의 사상에 정통한 그는 30여년간 도정신치료를 연구 · 지도해 왔다.

평범한 대화속 환자의 ‘핵심 감정’ 이해
진면목에 도달토록 질문 · 대답 이끌어내

▽ 도정신치료란?

도정신치료를 창안한 이동식(85)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 “정신치료는 애응지물(碍膺之物), 즉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신분석에서 ‘핵심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애응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주목한 것은 치료자의 ‘공감’이요 ‘자비심’이다. 객관적인 관찰과 해석, 그리고 이론과 기법에 묶여있는 서양의 정신치료자와는 달리, 도정신치료의 치료자는 완전한 공감을 통해 환자와 주객일치를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이해’를 넘어서는 ‘공감’ 능력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동식 회장은 “수도를 통한 치료자의 정심(淨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정심의 과정을 십우도(十牛圖)에 빗대어 설명했다. ‘동자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나서는 과정’을 묘사한 십우도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 때의 ‘소’는 ‘핵심감정’과 동일하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전세계 내로라하는 정신의학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먼저 소를 찾아 나선다(尋牛 · 그림1), 다음은 소의 발자국을 보고(見跡 · 그림2), 그 다음에는 소를 본다(見牛 · 그림3). 이 세 단계는 핵심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에는 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상태다. 다음은 소를 얻는다(得牛 · 그림4). 이 단계는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느끼고 자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소를 먹인다(牧牛 · 그림5). 이 상태는 감정(소)을 놓치지 않고 부리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 자라고 커지는 것을 나타낸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騎牛歸家 · 그림6) 단계에서는 자신의 핵심감정을 인지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소의 색깔은 흰 색으로, 사랑도 미움도 없는 ‘정심’을 나타낸다. 다음은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아있다(亡牛存人 · 그림7).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무아(無我)가 되지 못한 상태다. 이것이 이 회장이 말하는 서양의 정신치료 · 정신분석의 한계다.

이후에는 사람도 소도 다 잊어버린다(人牛俱忘 · 그림8). 집착과 걸림이 없는 공(空)이며, 완전한 해방이고 무아다. 그리고는 본래면목으로 돌아간다(返本還源 · 그림9). 자신이나 현실을 투사(投射)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저자거리로 돌아가 중생을 제도하는(立鄽垂手 · 그림10) 상태다. 자기 문제를 해결한 보살이 무아의 경지에서 중생제도에 매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동식 회장이 말하는 ‘치료자의 자비심’이 발할 수 있는 단계다.

▽ 도정신치료의 실제 적용

정심의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치료자가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번 포럼에서는 정신의학계 행사로는 이례적으로 도정신치료 상담 현장 녹취록을 공개하며 도정신치료의 실제 사례를 선보였다.

공개된 녹취록은 총 4개의 사례로, 이동식 회장과 환자들의 대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치료 당시의 대화들은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하다. 보살의 자비심은 커녕 직접적이고 일관성 없는 질문들에 일부 의사들은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숭산 스님께 인가 받은 이래 20여 년 간 참선지도와 정신치료를 지속해 온 강자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핵심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환자의 이해 능력에 따라 치료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며 환자와의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보통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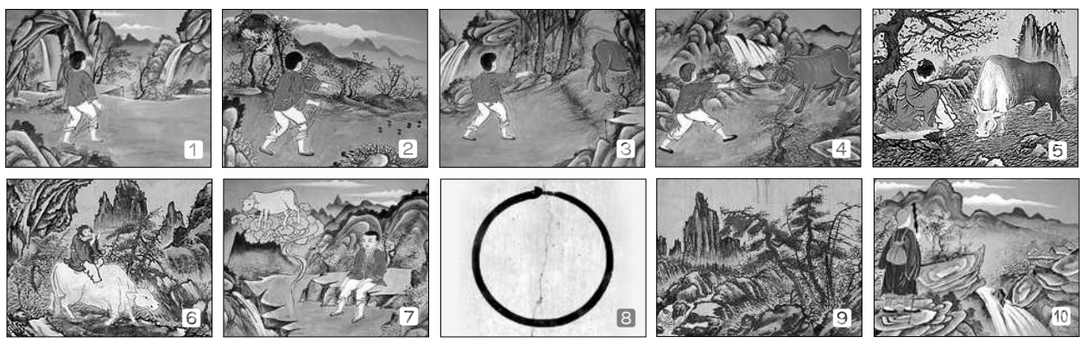
이 회장이 내세우는 ‘보살’은 ‘관용’과 ‘포용’의 뜻을 넘어서서 ‘각자(覺者)’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다. 마냥 따뜻하고 상냥한 상담자이기에 앞서, 환자의 마음을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 꿰뚫고 또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때 정신분석의 이론과 기술은 중요치 않다. 정심의 과정을 통해 무아의 경지에 선 ‘보살 치료자’는 환자가 진면목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근기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이끌어 낸다. 그래서 미국 인간주의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에릭 크레이그(미국 어셤션대) 교수는 “치료자는 지속적으로 핵심감정에 집중하면서도 이를 지칠 줄 모르게,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고 평한다.

예를 들어 보자. 0도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던’ 것이 180도를 돌면 과거에 억압했던 부정적인 감정과 맞닥뜨리게 된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경계다. 치료자는 180도 경계에 선 환자를 ‘완전한 공감’을 통해 360도 지점으로 회복시킨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이후 맞이하게 되는, ‘부정과 긍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계’다. 위장이나 투사가 없는 현실, 즉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쥴리안 볼노이스(영국 로얄 정신의학원) 박사는 상담사례의 토론발표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본질적으로 이동식 박사는 환자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문을 보여주고 ‘자물쇠’와 ‘자물쇠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뒤에 서서 그가 문을 통해 걸어가도록 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십우도(十牛圖)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 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영험도량
퇴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지혜의 눈이 열리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오늘날 중국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찰나에 깨치는 3일간의 충격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각에 대한 열의와 소망만 있으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해도 얻기 힘든 무심과 깨침을 5일간 체험해 보십시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 수련내용 : 無心, 無分別智, 無分別後得智, 스스로 업장소멸과 영적문제 해결 확인
이론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련없는 이론은 공허합니다.
빈마음수련원 (구, 대광사)
033)435-8166 / master@binmaum.org
www.binmaum.org / 한글인터넷주소 : 생각기술교육원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관상학. 기문둔갑

마하몰 추석용품 웰빙상품 지상기획전

고객님께 드리는 혜택

하나,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신한,LG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 할부 혜택 을 드립니다.
삼성,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삼성,신한카드 : 2004년 7월5일 부터 12월말까지. LG카드 : 2004년 7월5일 부터 9월말까지)
둘, 특별 이벤트 - 생활기능음반 구매고객에게 「치료시리즈 - 목욕미인CD1매」 증정 - 선착순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기능성음반 아로마향

스트레스 해소, 몸과 마음의 릴렉스
뮤직테라피(Music Theraphy)에 기반을 둔 신개념의 웰빙뮤직
피부조직과 신체 장기에 직접 침투하는 놀라운 치유파동의 힘!
매일 일정 시간동안, 단지 듣는 것 만으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해소, 피부미용 효과까지!



숲(forest) 물(water) 즐거운다이어트 피부미인
숙면(쾌면) 어깨결림 말끔히 집중력향상 상업번성

■ 생활기능음반 시리즈
~~15,000원~~ → 13,500원

- 자연시리즈 - 숲(fores), 물(water), 바람(wind), 바다(sea), 산(mountain)
- 미용시리즈 - 건강미인, 목욕미인, 메이크업, 즐거운다이어트, 피부미인
- 치료시리즈 - 숙면(쾌면), 어깨결림 말끔히, 변비가 말끔히, 금연, 고혈압
- 활력시리즈 - 집중력향상, 실력발휘, 상업번성, 플러스사고, 즐거운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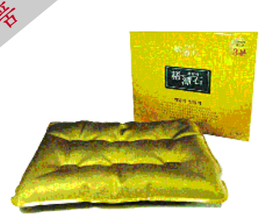

aqua(과일향) biolm(플로럴부케향) grass(허브향) earth(초코렛향)


■ 견성향(지관단) : 15,000
· 참숯무연 아로마향
· 재질 : 천연 참숯, 라벤더 등
· 길이 : 13.5cm
· 중량 : 100g

자연의향기가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드립니다.
■ 뉴모닝스타 : 9,000원(개당)
■ 모닝스타 : 6,500원(개당)
· 길이 13cm 50개입



건강용품 생활용품


■ 희담석 찜질팩(신형)
· 39,8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방석
· ~~1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좌복
· ~~198,000원~~ → 298,000원
· 크기 : 720mm X 390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을 일상생활에서 느껴보세요.


■ 숯매트(1인용)
· 150,000원
·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참숯백탄 5kg


■ 숯방석
· 35,000원
· 튕기성확보, 원적외선방사
· 흰색, 검정


■ 수행화
· 40,000원
· 검정, 회색


■ 37°기(氣)베개
· ~~60,000원~~ → 40,000원
·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Life Soul)이 부착
· 아이보리, 하늘색


■ 천연연꽃비누
· 개당 : 15,000원
· 세트(12개) : 150,000원
· 고급식물성 오일과 천연재료를 첨가

건강식품 전통식품


■ 홍삼액(60포)
· 120,000원
· 함량 : 홍삼71.58%(국산) (홍삼70%, 홍미삼30%)
· 80g × 60포


■ 농협홍삼정과
· 900g : 177,000원
· 400g : 79,000원
· 함량 : 홍삼71.58%(국산)
· 홍삼(국산 4년근 이상)100%


■ 홍삼진액(40포) :
· 88,000원
· 5년근 홍삼근 99.01%(국산) (홍삼20%, 홍미삼80%)
· 100g × 40포

■ 홍삼절편(200g) : 46,000원
■ 홍삼무설탕캔디 (200g x 3ea): 25,000원
■ 홍삼젤리(500g x 3ea): 17,000원
■ 홍삼유가(850g x 2ea): 16,000원


■ 향적원 선물세트 1호2종
35,000원
· 혼합장아찌 1kg, 고추장 1kg


■ 향적원 선물세트 6호2종
50,000원
· 상황버섯고추장 1kg, 상황버섯된장 1kg


■ 상황버섯된장(1kg)
28,000원
· <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봉순씨가 직접 만든 <된장>

■ 향적원 선물세트 3호3종
30,000원
· 청국장가루 200gx3개
■ 향적원 선물세트 4호2종
50,000원
· 더덕장아찌 1kg, 매실장아찌 1kg
■ 향적원 선물세트 5호5종
48,000원
· 청국장가루 200gx3개, 청국장환 200gx2개

茶&茶具


■ 연향차 : 30,000원
· 유기농 재배한 퉁불사 연향차
· 연잎 100%, 40g


■ 불성차(100g)
· 중작 : 35,000원
· 세작 : 50,000원
· 우전 : 100,000원
· 지리산 전통 수제녹차


■ 백련정차
· 50g : 18,000원
· 100g : 35,000원


■ 삼각티백 백련차 (Triangle Tea Bag)
· ~~49,000원~~ → 39,800원


■ 연마을 11호(백련차 선물세트)
· 32,000원


■ 연마을 6호(잎차+수제다기세트)
· 58,000원


■ 연마을 7호(잎차+3인다기)
· 83,000원

추천 특판상품


■ 반야바라밀다심경판
88,000원
· 크기 : 770×230×25
· 재질 : 뉴송


■ 관음도족자 : 35,000원
· 크기 : 42×90cm
· 작가 : 조중일


■ 황토달마
~~98,000원~~ → 59,800원
· 지리산 황토100%


■ 청자칠보투각향로
~~49,000원~~ → 39,800원
· 국보재현품
· 높이15.3 · 대좌지름11.2cm



■ 에밀레 용걸이종
· 재질 : 청동, 구리, 주석
· 大 : 37,000원(지름12cm X 높이21cm
· 中 : 25,000원(지름8.5cm X 높이14.5cm
· 小 : 17,000원(지름6cm X 높이10cm


■ 묘음법륜장(妙音法輪藏) 개금형
~~1,080,000원~~ → 864,000원
■ 묘음법륜장(妙音法輪藏) 청동형
~~600,000원~~ → 430,000원
· 10개한정 특별할인판매
· 크 기: 320mm x 154mm



① 도실나한합장주(약9mm) 20,000원
② 산호합장주(6mm) 16,000원
③ 터어키석 주불 합장주(10mm) 7,000원
④ 무가공 패다라수 합장주(11mm) 3,500원

반야심경반지 펜던트

지혜의 반지 반야심경 합격기원 반지


■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외부(外部)각인된 숍반지
· 14K Gold : 245,000원
· 18K Gold : 352,000원


■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내부(內部)각인된 숍반지
· 14K Gold : 150,000원
· 18K Gold : 198,000원


■ 반야심경 은(銀)반지
은 92.5% 로듐도금
크기 : 폭 약 8mm
· 38,500원


■ 반야심경 목걸이(원형)
가로 18mm, 세로 33mm
■ 반야심경 목걸이(사각)
가로 21mm, 세로 32mm

· 특징 :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각인된 원형 펜던트
(뒷면에는 연꽃 문양과 옴자 양각)
· Silver 92.5% · 은 : 48,000원 ※ 팬던트와 체인 포함


■ 반야심경 팬던트 Gold
· 14K Gold : 260,000원
· 18K Gold : 380,000원
※ 체인별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